

197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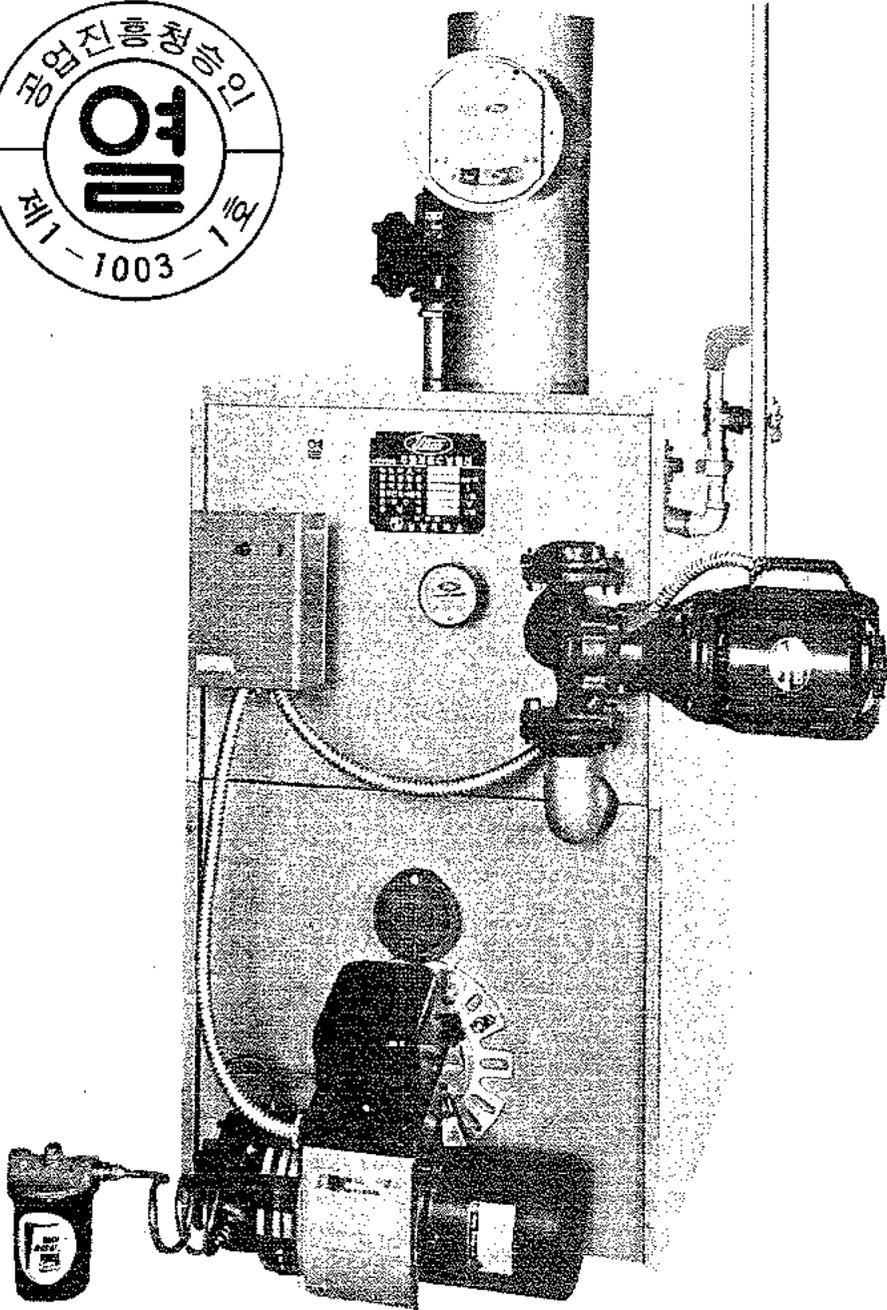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높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ltr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티카商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의1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ASPHALT·EMULSION)시대로!



완전 방수제

동방 포루마

포루마방수 일위대가표 (m²당)

1975年分

방수종별	3회 방수공법	P.P. 망 침투 특수공법		지 하 실 방 수
		5회공법(P.P.망 1회)	8회공법(P.P.망 2회)	
방수계소	벽면, 옥실, 정화조, 물 탱크, 지하실외벽 등	옥상, 균열벽면	균 열 옥 상	지 하 실 (1층당)
포루마 (KR-3)	243 ⁰⁰	324 ⁰⁰ (4회)	486 ⁰⁰ (6회)	지하실 외벽은 3회 공법적용
포루마止水用(KR-5)				67 ⁵⁰
P.P. 망		120 ⁰⁰	241 ⁷²	
포루마시공공임	311 ⁰¹	415 ⁰⁰	624 ⁰³	52 ²⁶
방수층 혼합세멘트				
바탕 정리				
공사준비비용				
보호물 탈				
소 계	564 ⁰¹	860 ⁷⁴	1,351 ⁷⁵	119 ⁷⁴ (1층당)
공과잡비 (%)				
합 계				
※방수외벽은 2회도장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며, 내벽은 2회도장후 벽지를 붙인다.		포루마(KR-3)는 유연성, 접착력, 내한성 등이 우수하며 P.P.망은 인장강도가 강하므로 포루마 5회공법은 아스팔트 8회 방수의 성능을 능가함.		※수압에 따라 총수가 상이함 포루마 止水用 액체방수 분말방수등과는 달리 강도가나 면서 균열과 모체분리가 없음

포루마 용량방수
포루마는 수성 아스팔트 재료로 세멘트용량과 혼합하여도 100% 방수가 된다.

방수시공공사
포루마와 질석을 혼합하면 신축이 우수하고, 원 박한 패배가 된다.

스티로폴 접착
스티로폴을 붙이고, 스티로폴판 자체를 방수한다. 스티로폴위에 미장토, 양도 칠수 있으므로 스티로폴을 옥상층부터 올려 단열방수 있음.

포루마 (KR-3) 1회 도장시 1m²당 소요량

명칭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세멘트 포함시
포루마(KR-3)	0.27	ℓ	300 ⁰⁰	81 ⁰⁰	0.2kg 발도계상

포루마도장 방수공임 (1m²당 1회)

방수공	인부	인	인	인	인
0.037	0.037	1,780	65 ⁰⁰	1,030	아스팔트 증감기준
					38 ⁰⁰

포루마 止水用 (KR-5) 1층당 시공비 (1m²당)

포루마 止水用	방수공	인부	인	인	인
0.27	0.012	ℓ	250 ⁰⁰	67 ⁵⁰	액체방수 증감기준
					1,780
					21 ³⁶
					액체방수 증감기준
					1,030
					30 ⁰⁰

P.P. 망 깔기 (1m² 당 1회)

P.P. 망	깔기 방수공	인부	인	인	인
1.19	0.037	m ²	50 ⁰⁰	59 ⁰⁰	특별된분 10%가산
					1,780
					65 ⁰⁰

※바탕정리, 방수층혼합용세멘트, 보호모루터는 별도 계상

※ 깔기 인건비가 포함되었음.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 LTD.

서울 : 29-1718 대전 : 3-5733
부산 : 43-4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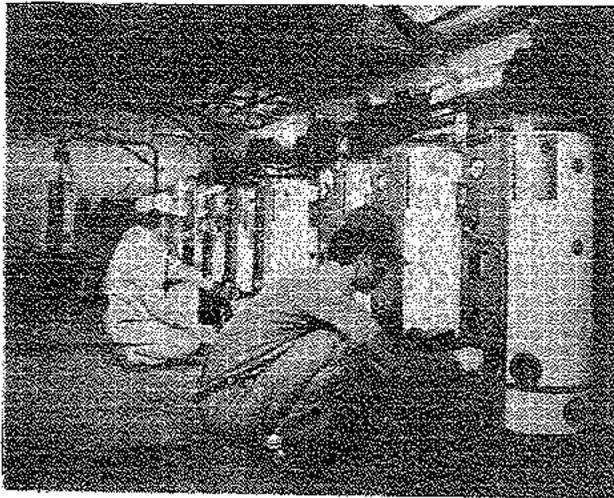


Better ideas make better boilers

Korea Rocket Boiler (로켓트 보일러)



- ※ 제 1회 연료사용기기 전시회 우수상 수상
- ※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우수상품 지정



■ 상공부 공업 진흥청 형식 승인

- ◎ 기름보일러 1-1002-1
- ◎ 기름보일러 1-1002-2
- ◎ 기름보일러 1-1002-3
- ◎ 기름보일러 1-1002-4
- ◎ 기름보일러 1-1002-5
- ◎ 기름보일러 1-1002-6
- ◎ 기름보일러 1-1002-113
- ◎ 오일버너 4-1001-40
- ◎ 연탄보일러 1-1004-10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TYPE ITEM	종 류	로켓트 기름보일러 (가정용 공장용)											로켓트 스팀보일러		로켓트 연탄보일러			
		단 위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250	KR-300	KR-400	KR-500	KRS-200	KRS-500	KR-101	KR-102	KR-103	KR-104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260,000	320,000	410,000	120,000	320,000	3,110	6,220	9,330	12,440	
난방가능평수	Heating Area	20-30평	30-50	60-90	8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200	400-600	3-4	5-9	12-15	18-20	
관 수 용 량	φ	105	122	166	178	308	386	573	624	926	1280	-	-	35	81	185	130	
연료 소비량	L/HR	3-5	5-6.5	6.5-8	8-11	11-15	15-20	20-24	24-27	32-36	44-55	-	-	19공탄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6.25	5.25	6.25	5.25	5.25	5.25	6	2	2	2	2	
배관구경	φ	50	50	65	65	75	75	75	75	100	100	65	75	32	40	40	56	
연통구경	φ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400	250	300	100	100	100	100	
바나나	IP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외경척수	O	470	540	610	610	690	690	900	1000	1300	1400	800	1100	430	650	950	1,250	
외경척수	H	1150	1150	1280	1450	1600	1750	1750	1650	2000	2,300	1750	2200	590	590	500	590	
중 량	kg	320	340	420	440	380	520	590	670	720	900	720	2400	280	130	200	265	
로켓트 보일러 아날가격	공 장 도	159,400	202,000	260,900	301,400	410,600	512,400	590,700	690,900	748,800	976,400	본 체 300,000	본 체 1,600,000	50,460	82,400	109,000	149,500	
로켓트 보일러 바나나 아날가격	공 장 도	194,300	194,300	194,300	246,800	246,800	246,800	246,800	278,300	312,900	312,900	자용장치 527,500	자용장치 1,270,000					
보일러-바나나 합계	공 장 도	353,700	396,300	461,200	540,200	657,600	759,200	837,500	969,200	1,462,700	1,689,400	207,500	2,878,000					

- ◎ 용 도
- ◎ 증액용 30坪 ~ 250坪
- ◎ 공장, 가옥사, 빌딩, 100坪 ~ 500坪 (1004-10,000의 용량 65°C-85°C-온수용)
- ◎ 식용품장, 음료용, 내부가 임미중 시리온 처리된 각종 보일러
- ◎ 수송직물, 검자, 식음기공, 공장용, 사무나물 (0.5 TON증기보일러)

- ◎ 특 징
- ◎ 열효율 87.2%
- ◎ 연료소모 40% (재래식보일러비교)
- ◎ 500 TON 오일프레스 성형제대
- ◎ 특허 7873호 특수시설 (공방납방결음)
- ◎ 전 자동 운전 및 안전장치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 - 1

전 화 : 27-9358 · 26-1135 ~ 6 · 66-1363 · 66-2810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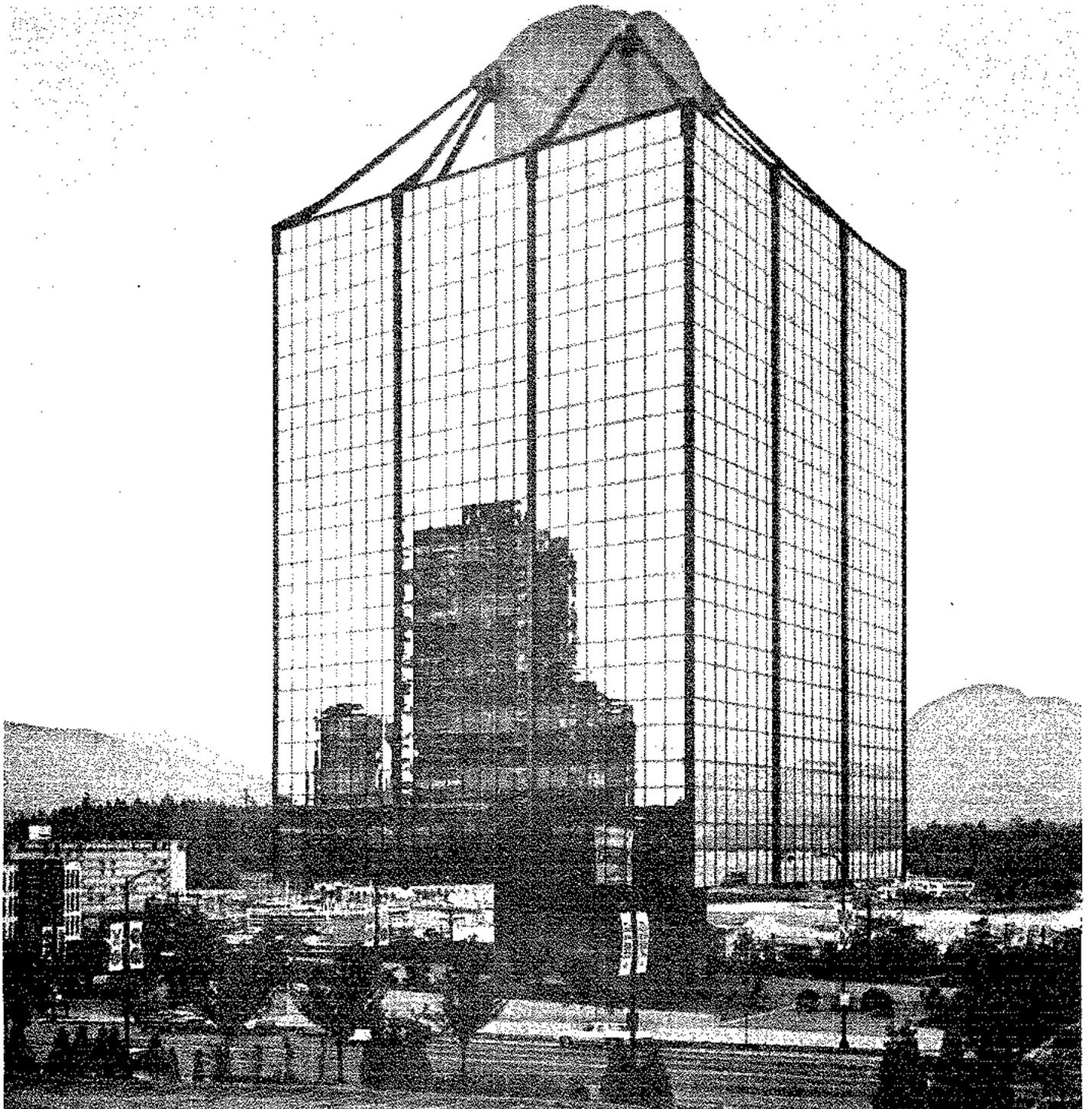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 電話：(23) 7141~45
仁川工場：仁川市 東区 萬石洞2 / 電話：仁川 (3) 0111~0119
釜山工場：慶南東萊郡日光面伊川里 / 電話 釜山 (5) 4066~4070

※ 제품안내

맑은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각종전구발브, 유리블럭, 관유리 < 조명용
의료기용

各國의 建物들 (씨리즈Ⅲ)



국명 : Canada 도시명 : British Columbia 주 Vancouver시 빌딩명 : The Westcoast Building.

삼원보일러

삼원기름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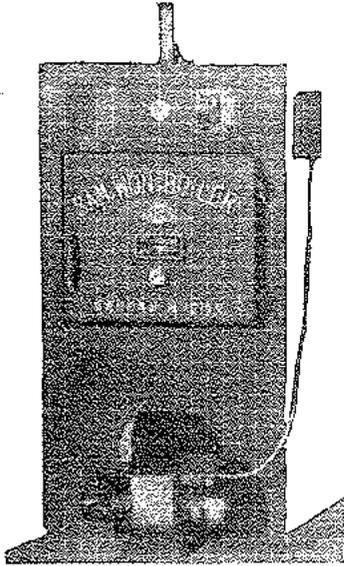
미국 SBI 규격품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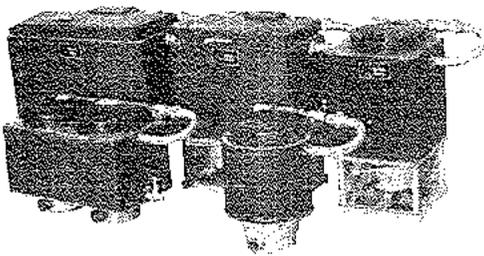
- ※안전자동
- ※횡영관특수식 3 - PASS
- ※연료비 20% 절감
- ※급탕 겸용
- ※보일러청소간편
- ※수명 15년 보장

삼원보일러



항목	단위	S-1	S-2	S-3	S-4	S-5	S-6	S-7
발열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연료소비량	L/Hr	2.5	3.7	7	9	12.5	18.7	25
수압시험압력	Kg/cm ²	4	4	6	6	6	6	6
전열면적	m ²	2.15	2.48	3.71	5.62	7.4	11.57	16.26
연통직경	mmφ	200	200	250	250	250	300	300
배관구경	mm A	50	50	65	65	80	80	80
바	나	HP	1/2	1/2	1/2	1/4	1/4	1/2
	W	cm	52	52	57	61	61	80
외형치수	H	cm	91.5	91.5	105	122	122	140
	L	cm	55	70	62	92.5	123	120
난방면적	평	30~40	40~60	60~100	100~140	140~200	200~300	300~400
삼원보일러본체가격	공장도(원)	130,000	160,000	200,000	250,000	330,000	440,000	550,000

삼원 보일러 연탄용



특징 스마일보일러

-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 ※상부복사열 100% 흡수
- ※탄재가 밑으로 처리됨
- ※수명 일반품의 3배
- ※상하부 2중가열 특수식
-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

연탄보일러

형식종류		SB-1	SB-2	SB-3	SB-4	SB-5
항목		2단용 (1열2탄)	3단용 (1열3탄)	쌍2단용 (2열2탄)	쌍3단용 (2열3탄)	3열3단용 (3열3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3	3	3	3	3
사용연관	크기	22	22	22	22	22
연통	mm φ	80	80	80	90	90
배관구경	mm A	25	25	25	25	32
설치방법		부뚜막식	보일러식	부뚜막식 보일러식	보일러식	보일러식
난방면적	평	3~5	5~6	6~10	10~14	14~20
가격	원	35,000	50,000	60,000	95,000	130,000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용도 : 주택, 아파트
병원, 여관



주식
회사

삼원기계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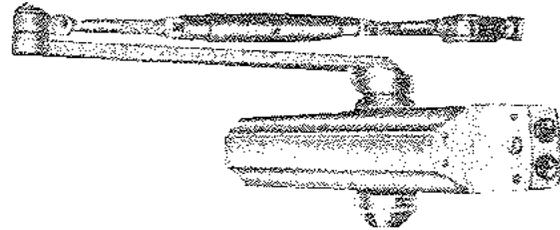
TEL. 63-8872, 전시장 42-8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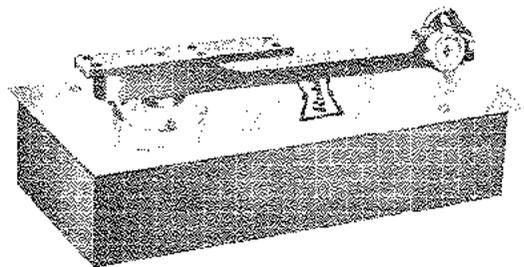
RUBICON HARDWARE

⇒ 建築界 諸賢의 不便을 덜어드리기 爲하여
建築用鐵物綜合 메-카로서 業界의 一翼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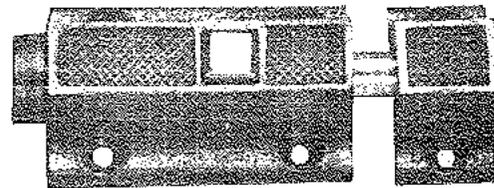
도아 크로저 DOOR CLOSER



후로아 힌지 FLOOR HINGE



自動 락지 AUTO LATCH



- DOOR CLOSER는 標準型外도 여러 機種이 있으며 特히 Stop裝置機種이 있어 문을 열어두어야 할때는 開門 90度에서 任意位置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FLOOR HINGE는 現在市販되고 있는 製品과는 달리 完全油压式으로 作動의 부드러움과 正確性은 需要家 여러분에게 滿足을 드릴것입니다.
- AUTO LATCH(自動락지)는 ONE TOUCH로 잠그고 열 수 있으며 出入門의 補助자물쇠, 家具用 等 그 用途는 多様합니다.
- 其他 精密을 要하는 여러가지가 生産되고 있으며 特殊한것은 注文에 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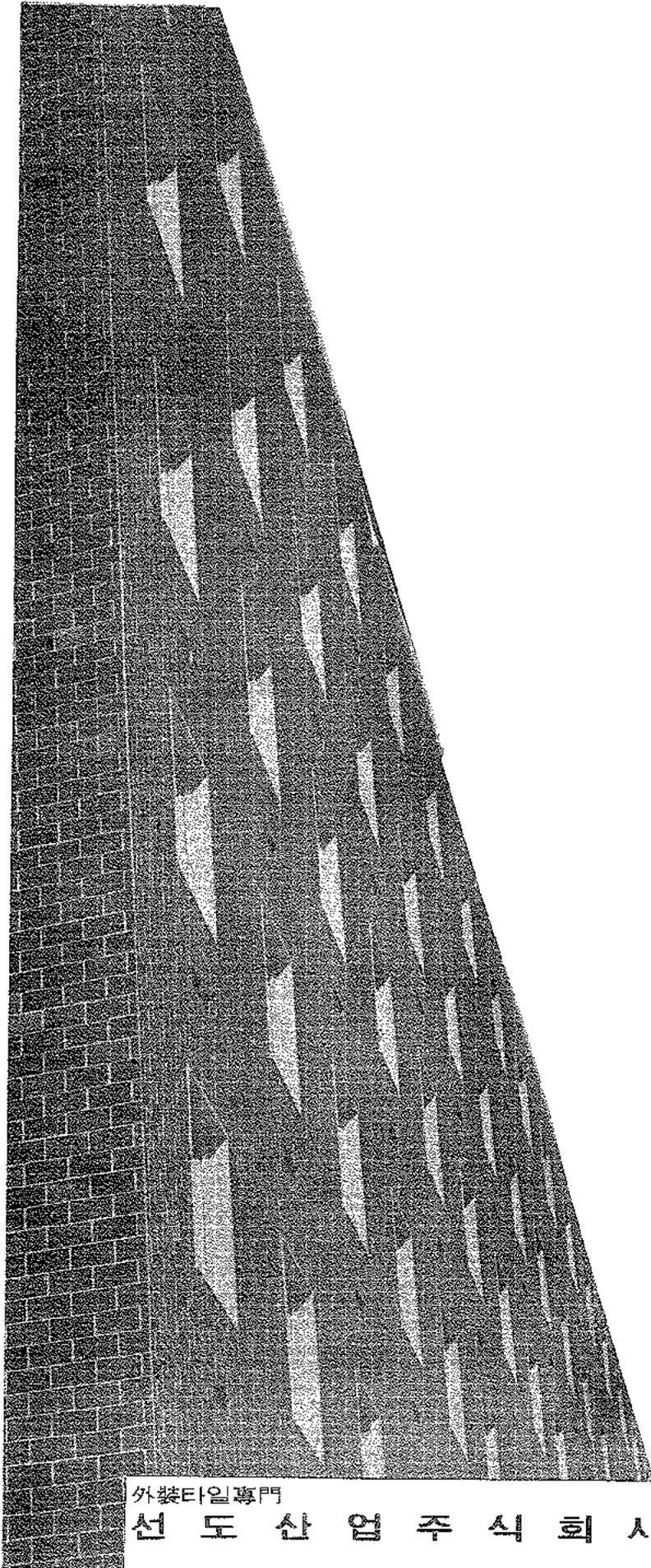
世界를 向한 建築用 鐵物綜合 메-카

루비컨製作所

本社 및 工場
市内事務所

서울特別市 永登浦区 溫水洞 42-1 TEL. 8-2294
서울特別市 中区 草洞 55 TEL. 26-1567-29-8680

끝없는 空間創造가 이 素材에서...



鮮陶外裝타일은

耐寒·耐酸性이 强하고

優雅한 色感

美麗한 色相

刺戟性있는

余分の 光澤을 除去한

表面의 多樣한 色度處理...

지금부터

建材에 必要한 條件을

完全히 具備한

需要家注目の 製品입니다.

(特殊形狀, 特殊치數의 注文도

引受하고 있습니다)

外裝타일專門

선도산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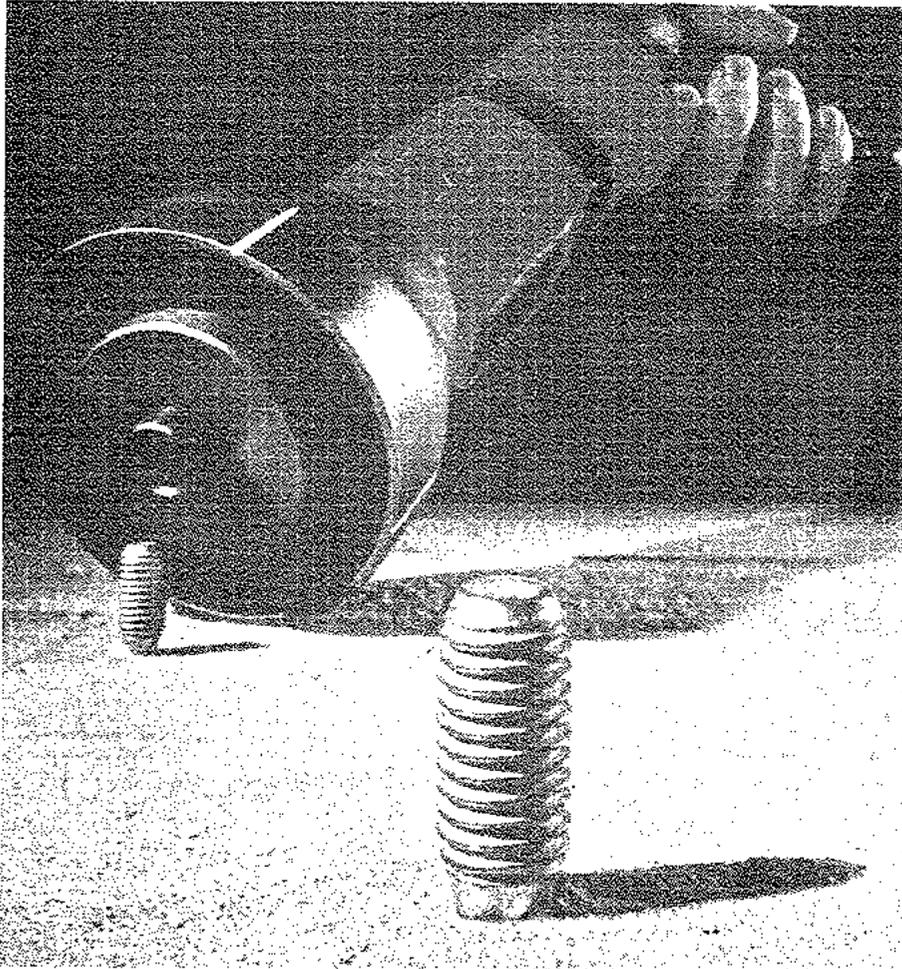
 SUNDO TILE

京畿道 廣州郡 西部面 草二里212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 2街 148
TEL. ②① 1565·2534 ⑤⑤ 0764·1790

HILTI

安全建設用打釘工具

HILTI



※ 1. 주요 용도 (건축, 조선, 제강용)

- 건축 토목공사
- 전기 설비 공사
- 배선 배관 공사
- 전철 철도 공사
- 탕널 공사
- 조선공사
- 간판, 장식공사
- 냉난방 공사
- 기계 기구류 부착 공사
- 철골 공사
- ROOFING, SIDING, DECKING

※ 2. 특 징

- 최대의 안전성
- 시공 기간의 단축
- 시공의 간편, 신속, 확실
- 인건비의 절감
- 깨끗한 의관
- 강한 고착력

※ 安全第一의 原則으로 하고있는 HILTI는 세계에서 最初로 低壓式 安全打釘原理 開發에 成功 여러 方面의 附屬作業에 從事하는 團으로 부터 絶對的인 信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네브國際勞動局(ILO) 後援의 HILTI 安全原理에 依한 打釘工具는 여하한 狀態에 있어서도 鋼鐵의 PIN을 安全하게 確實히 CONTROL 해 줍니다.

※ 새로운 HILTI SYSTEM의 시공예



韓國總代理店

韓國火藥株式會社

本社: 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 12-1

TEL. 23-0381~9 · 直 22-6679

● 營 業 所

- 釜山 Tel. 43-2066 · 全州 Tel. 213181
- 天安 Tel. 3500 · 堤川 Tel. 2044
- 鎭湖 Tel. 300 · 黃海 Tel. 410
- 蔚村 Tel. 2314

● 대 리 점

- 서울: 삼성화약사 TEL. 96-1949
- 삼성 HILTI TEL. 68-0290
- 인천: 대 한화약사 TEL. 121-0750
- 대구: 아세아화약사 TEL. 121-0109
- 부산: 한광중포사 TEL. 03-1577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建築士」(通卷85号)

1976 3

韓国内에서도 実施可能な リフト スラ브 工法小考.....	金正秀 (2)
室内建築디자인의 概念과 그 어프로치우方法 (2).....	尹道根 (6)
人間과 建築環境.....	李環會 (11)
韓国学校 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 要因 分析과 方向에 關한 研究(2).....	劉香山 (15)
集積된 空間의 解決 모듈計劃에의 接近.....	李鶴榮 (22)
■會員코너	
協會와 會員.....	金枝泰 (26)
會員作品.....	(29)
東南亞 視察團 紀行.....	(42)
慶州市 美觀地區建築條例(施行規則).....	(49)
海外作品.....	(57)
會員動靜.....	(64)
月間協會動靜.....	(71)
協會記事.....	(72)
建築許可統計.....	(79)

編纂委員會

- 委員長 李興秀
- 委員 金仁錫
- ◇ 金眞一
- ◇ 李文輔
- ◇ 尹道根
- ◇ 俞景哲
- ◇ 韓錫燮
- ◇ 金漢根

表紙：景福宮，配置圖

發行人兼 編輯人・李主福 / 登錄番号・第24-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6. 3. 31 / 通卷 第85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韓國國內에서도 實施可能한 리프트스래브(Lift-Slab)工法 小考

金正秀
延世大 教授 工博

넓은 평지붕을 地上에서 製作을 끝내고 所定位置 까지 끌어올리며 建築하는 리프트 스래브工法(Lift Slab System)은 工費와 施工期日을 短縮할 수 있을뿐 아니라, 모든 지붕工事를 地上에서 施工함으로써 安全하고 正確한 지붕工事를 할 수 있는 좋은 方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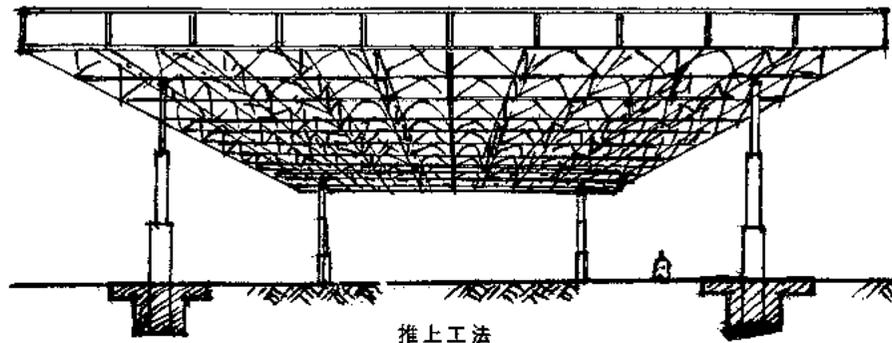
특히 鉄筋콘크리트 평지붕 建築物에 있어서는 數 많은 지붕 또는 바닥板 型틀을 번거주는 “싸프-트 가不心要하고 콘크리트를 地上에서 施工할 수 있으며, 鉄骨工事に 있어서는 모든 鉄骨組立, 용접, 리벳팅, 볼트조임 등의 工事를 地上에서 行함으로써 從來와 같은 大型크레인이 不心要하게 되며, 安全하고 確實한 優良 施工을 期待할 수 있다. 이러한 利點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大多數의 韓國建築家들이 선뜻 이를 實施해볼 勇斷을 내지 못한 理由로서는 經驗이 없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지붕 全體의 超大型重量物을 높이 올리는 機械施設에 익숙지 못하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實際로 알고보면은 리프트 스래브에 使用되는 機械란 작기(Jaok)이며, 이러한 用途에 使用할 수 있는 작기는 서울 淸계천辺 鉄物商에는 無數히 많으며, 값도 淸히 비싸지 않고 더우기 빌려다 잠깐 쓸것 같으면 몇푼안주고 利用할 수가 있다. 오일작기는 小型은 自動車를 올리는 程度의 約 3 ton用 에서부터 10ton, 20ton, 50ton, 100ton等 여러種類가 있으며, 其中 100ton用은 尙自身도 個人用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것이 있지만 크기가 1立方尺程度의 쇠덩어리며, 手動으로 손잡이를 잠시 上下로 움직이면은 한가운데에서 約10cm直徑의 鉄門柱피스톤이 100ton의 힘으로서 徐徐히 約10cm程度 올라와서, 物体를 밀어올릴 수 있으며, 작기에 따라서는 피스톤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特別한 裝置를 하지않고 郎時 引張 壓縮을 兼할수 있는 便한것도 있다.

이러한 “작기”는 미러올리는 기리 “스트록”이 짧아서 10cm 程度밖에 끌어올릴수 없지마는 밑에 받침을 피여가며 “작기”를 위로 10cm마다 移動 식혀가며 物体를 올리면은 제아무리 높은 곳에라도 끌어 올릴수 있을 뿐 아니라, 작기 容量을 超過하는 重量物을 올릴경우에는 여러개의 작기를 同時에 使用하면은 상당히 큰 무게라도 쉽사리 이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다.

“리프트얏”工法으로 施工된 建物은 지금까지 各種 改良研究된 方法에 依하여 無數히 建築되었으며, 其中 생각나는대로 차례로 알아보기로한다.

(1) 기둥사이로 작기를 上部로 移動시키는 方式

이 方法은 筆者가 考案한 方式으로서, 가장 簡單 함으로 不遠實施해 보고저하는 方式이다. 短形 單層建物の 四隅에 베기둥이 있는 경우를 例로 說明하며는, 콘크리트기초위에 2개의 大型 “찬넬”을 둥이 마주보이게 하여 各各 柱材를][型으로 構成하되 各기둥의 찬넬사이에는 “작기”를 設置할 수 있을程度의 15~30cm의 간격으로하여 4개의 기둥을 設置한다. 地上에서 鉄骨造平지붕틀을 그位置에서 옮기지 않고 垂直으로 올릴수 있는 位置에 지붕組立을 完成하되 콘크리트 “스래브”일 경우에는 鋼材片을 콘크리트에 삽입하여 所定位置까지 引上이 完了하면은 熔接其地의 方式으로 기둥과 固定할 수 있도록 構成한다. 작기는][型柱의 두 “찬넬”사이를 順次로 上部로 移動시킬수 있는 걸침력을 가셋트 프레임 등으로 構成하여 기둥과 “하인텐손볼트”조임으로하고 기둥의 自由端의 變形을 적게하는 作用도 겸하게한다. 이같이하여 “작기”를 上部로 搬送 올려가며, “스래브”를 上部로 끌어 올리는 方式의 “리프트얏”工法을 채택하면은 “작기”外에는 特別한 器具 設備가 없이도 韓國實情으로 實施可能한 “리프트얏”工



推上工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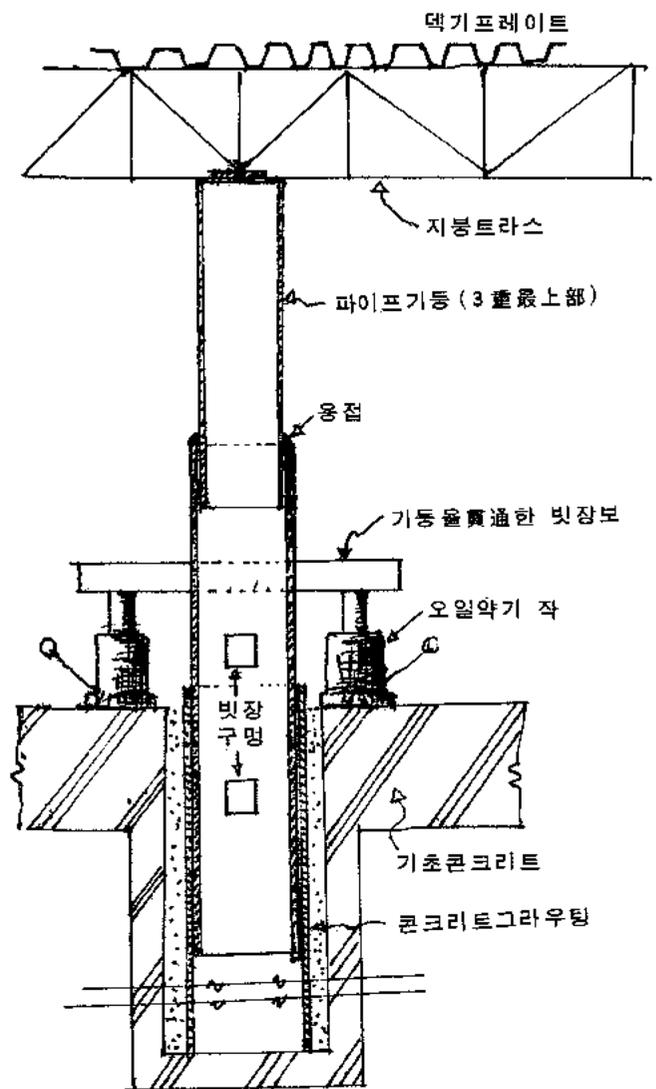
(第1圖)

法을 試圖해볼 수 있는 가장 容易한 方法이될 수 있을 것이다.

(2)推上工法

이 方法은 사진기계의 三脚발을 배내는 方式으로 미리 地中에 數等分하여 埋設한 기둥을 順次로 작기로 壓올리는 方式임으로 地面에서 組立한 지붕틀을 밀어 올리는 方式의 “리프트업” 工法이며, 아주 理解가 容易한 方法임으로 이 方式으로 最近 日本에서 實施된 實例를 參考로 알아보기로 한다.

日本에서 “푸트슈업”(Push Up) 工法이란 이름으로 日本 竹中工務店이란 都給會社에서 體育館工事に 實施한 이 方法은, 英國等에서도 過去實例를 볼수 있었던 方法이다. 지붕은 넓이가 2,430m² (45m×54m)의 鋼製平지붕이며, 트러스를 縱橫으로 均等히 設置한 “렉탱규라 스페이스 후레임” Rectangular Spase Frame이다. 기둥은 平지붕을 約4個로 支持하되, 各기둥은 그림(第1圖)와같이 3等分되어, 접어서 기초속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기초에는 구멍을 事前에 내두도록한다. 지붕全重量이 172.6ton임으로 기둥 하나에 20ton작기 4 台식을 設置한 것으로 認定하나, 複雜을 피하고 理解를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設明圖에서는 “작기” 2 台만 表示하기로 하였다. 第2圖參照 기둥에는 빗장구멍을 縱橫으로 十字로 段지게, “작기”의 “스트록”길이에 맞추어 段으로 엇갈리게 뚫고 한쪽구멍 빗장을 通하여 그림과 같이 設置한 작기로 올릴 수 있는만큼 올리고 나면은, 反對쪽구멍을 通한 빗장으로 기둥을 固定支持하고 잠기시린다를 내려서 빗장을 다음 아래구멍을 貫通시켜 同一한 方法으로 차례 차례로 기둥을 上部로 推上하도록하되 기둥이음은 용접으로 잇는다. 全長11 m의 所定높이까지 미러올린後, 기둥이 무뎠든 구멍은 콘크리트로 “그라우팅”을하여 채우도록 한다. 全体 지붕을 아주 느린 速度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同時에 끌어올리는데에 充分한 時日은 2日이지만 公



“推上工法說明圖”

(第2圖)

開를 爲하여 3日이 걸렸다고 한다. 一般적으로 이러한 場合 기둥이 自由端 固定기둥이 되는 關係로 變形에 아주 不利함으로 기둥이 흔들리는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을 精密히 加工토록하여 3mm로 하였다고 한다.

(3) 지붕을 올린後에 기둥을 追後 設置하는 方法

이 方法은 各기둥位置에 지붕을 支撐할 수 있을 程度의 큰 木束을 매 놓고 地面에서 製作한 平지붕을 木束을 利用하여 작기로 所定位置까지 끌어올리고난 後에 鐵材기둥을 밑으로 집어넣어 받치고 固定하는 方式이며 이 方法으로 建築된 實例로서는 西獨 백림에 “미스반델로에”가 1968年頃 設計한 美術館이 있다.



지붕 올린 上하여 完成된 建物
NERVI의 工場建築
(第3圖)

(4) 懸垂構造(Suspension Construction)의 케이블로 끌어올리는 方法

그림(第3圖)는 “이테리”의 有名한 建築家 넬비(NERVI)의 工場建築의 例이다.

현수교량(Suspension Bridge)의 構造方式으로 約30mm×280m의 넓은 平지붕을 케이블로 매단 構造인데 지붕은 地面에서 製作된 鐵筋콘크리트 構造이며, 이 巨大한 지붕을 사람이위로 받치고 서있는 모양으로 製作된 鐵筋콘크리트 기둥上端과 上端사이를 건너늘인 Cable을 끌어당겨서 全体지붕을 所定位置까지 끌어올린後, 壁體를 追後에 設置하였다. 勿論 壁體의 가는기둥들은 지붕荷重은 받지않으며 단지 風壓에만 견딜 수 있게 設計되어 있다.

(5) 엑스포(Expo)70의 日本館의 例

1970年 日本에서 開催된 Expo70의 상징으로서, 日本館의 지붕은 108m×291.6m의 大規模 鐵Pipe製로된 立体트리스 構造이며, 總重量이 4,800ton의 重量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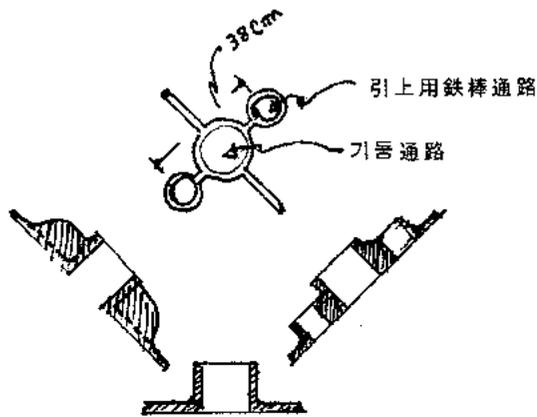
地上37.8m 높이의 이 大規模 平지붕은 地上에서 組立되어 所定位置까지 “작기”로 “리프트업” 工法에 依하여 끌어올려 設置하였다. 工法의 大要를 보면 Space Frame은 “한이텐 폰 볼트”로 조인 Pipe 構造이고 지붕을 받는 기둥은 約6本을 지붕端部에서 長邊端으로부터 37.8m 短邊지붕端部에서 16.2m 안으로 들이켜서 円形鋼材로 構成하였으며, 기둥하나에 처하여 450ton의 “작기” 各2臺를 設置하여 約12臺의 작기로 끌어 올렸는데, 작기는 “스릴 후움”에 쓰이는 “작기” 模樣으로 眞空圧으로 기둥을 물고 부착하여 올라가는 特殊작기가 使用되었으며, 지붕을 끌어올림에 따른 기둥의 變形을 막기 爲하여, 기둥周圍는 트러스型의 補強材를 붙여 가며 올림으로서, 기둥의 細長比不足에 依한 變形을

防止토록 되어 있고 다올린後 기둥과 지붕들은 여러개의 받침材로 四方으로 補強固定을 하고, 反對로 下部 固定端을 풀어서 “핀”으로 變更하였으며, 지붕을 올리기前 기둥이 下部 固定, 上部自由端으로 되어 있는것이 完成後에는 反對로 上部 固定 下部Pin으로 바뀌진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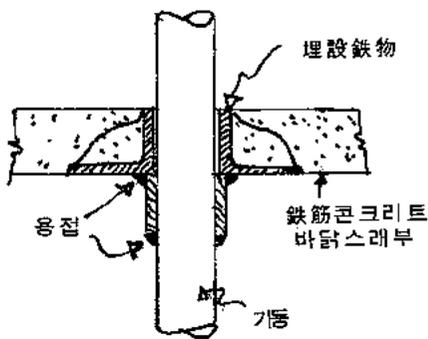
本工事は 1968年12月부터 着手하여 “리프트업” 準備에 6개월이 所要되었고 引上速度는 極히 완만이하여 1개월이 걸렸는데, 日本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難工事인만큼 끌어올리는 技術面에서는 美國의 원조도 있었다는 當事者의 說明이었다. 完成後 雨水를 막는 지붕材로서는 重疊과 耐候性, 溫度變化에 따른 伸縮 및 이에 作用되는 溫度正力 및 質減等을 考慮하여 포리에스탈 2重空氣膜구조로 되어 있다.

(6) 初期의 Lift Up 工法 Youtz-Slick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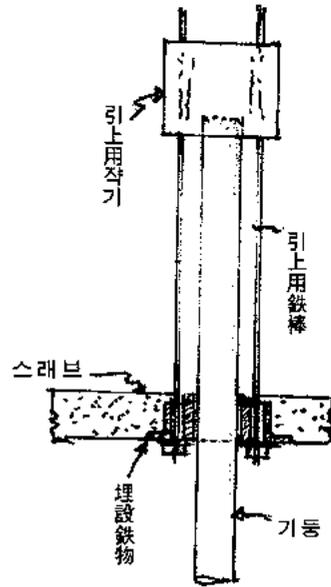
初期에 리프트업 工法을 South West Research Institute에서 開發할 當時는 그名稱을 Youtz-Slick Lift-Slab System이라 呼稱하였으며, 1,000坪 外規模의 15棟의 建物이 1950年代에 이工法으로 이미 完成을 보았으며, 그밖에도 當時 施工中의 建築物만 하여도 一萬餘坪에 達한다고 報導되어 있다. Lift-Up 工法은 高層建物에도 使用하여 많은 經濟性을 實證하고 있으며 이러한 高層建物의 境遇에는 여러층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地上에서 同一位置에 겹겹으로 쌓올려 製作하되, 슬래브各層사이 사이에는 防水紙를 2重으로 너서, 끌어올릴 때에 슬래브相互間의 附着을 막도록되어 있다. 그工法의 詳細를 볼것같은 各기둥은 大円形 파이프를 使用하였으며, 기둥을 貫通하는 슬래브 部分에는 “핀칭시어”를 防止하고, 所定位置에서, 용접 固定시킬 수 있는 埋設鐵物(一名 Steel Collars)를 使用하였는데 이러한 콘크리트 슬래브 固定用 埋設鐵物의 形態는 (第4도) 上部와 같으며, 中央에 기둥通路구멍外에 左右에 引上用 鐵棒通路구멍이 뚫린 것으로서 이러한 埋設鐵物을 各기둥位置마다 設置하고, 슬래브鐵筋이 그위를 通過하게 配筋하되, 그외에도 “핀칭시어”를 防止하는데에 充分한 補強鐵筋이 그주위에 配筋된다. 슬래브를 끌어올리는 “작기”는 既設된 各파이프 기둥最上



引上用鐵棒 - 埋設用鐵物



기둥과스래브의固定



기둥上部에設置한
引上用작기

(第 4 圖)

부에 그림(第4도)右便과 같이 設置하고, 引上用 鐵棒을 使用하여 스래브를 引上되되, “작기”의 容量은 大概10ton內至 20ton이 使用되고 있으며 各작기는 Oil Pipe Line을 相互連結하여 中央 Control Panel에서, 全体스래브 引上作業을 同時에 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람과 Control Panel이 Slab에 올라앉은 채, 다같이 同時에 上部로 移動시킬수 있는 方法을 쓰고 있다.

이러한 方式의 Lift-Up工法의 引揚速度는 1時間當 約 30cm이며, 때에 따라서는 2個層 以上の 스래브를 同時에 引揚도 可能하다.

“리프트 앞”工法은 그後 美國各處에서 單層뿐 아니라, 各種高層建物에도 많이 實施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Post Tension이 加해진 P.S. 왈플스래브(Waffle Slab)를 製作하여 引揚한 例도 있다.

高層建物의 경우에는 특히 기둥自由端部의 흔들림에 對한 注意가 特別 必要함으로 그 引揚順序를 잘 研究하여야하며, 그간 이에 對한 研究發表도 行해지고 있다.

(第4도 左下)는 스래브와 기둥의 固定方法을 補助 鐵物을 使用하여 용접하는 方法을 說明한 詳細이다.

最近 우리 나라 建築技術은 相當한 速度로 向上하고 있으며 建築物의 質도 先進國에 比하여 過히 損色이 없을 程度로 높아진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것은 오로지 建築士協會員인 우리 韓國建築士 여러분의 至大한 努力에 依하여 達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面에서, 그 工法 및 材料의 質等を 詳細히 살펴보면 아직도 미흡한 點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니, 例컨대, 철, 鋼 등의 薄版構造物에서 “스페이스 후레임”(Space Frame) 등의 “콤퓨터”를 利用한 構造設計方式等에 이르기 까지의 各種構造學分野에서 부터 經量骨材 등의 材料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研究를 必要로 한다고 보고 싶다. 이러한 時點에서 아직 시도 된 일이 없는 것으로보는 “리프트 앞”工法은 韓國 建築技術 向上에도 많은 功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으로 筆者로서는 하루속히 우리 建築上協會員中의 누군가가 이를 시도해주시기를 갈망하여 마지 않는다.

室內建築디자인의 概念과 그 어프로치우 方法 2

尹 道 根
弘益大 建築工學科 教授

目 次

1. 序 言

2. 建築的 背景

- 1) 建築의 歷史的 發展
- 2) 近代建築의 開拓
- 3) 現代建築의 發展

3. 室內建築 디자인의 基本條件

- 1) 形 態
- 2) 스케일

3) 텍스추어

4) 色과 照明

4. 室內建築의 空間把握

- 1) 作業空間
- 2) 生活空間
- 3) 公共空間
- 4) 特殊目的空間

5. 結 論

3) | 텍스추어

모든 物質에는 반드시 어떤 텍스추어가 있으며 質에 對해서는 스케일과의 連關性에 따라 판단된다. 室內에서 어떤 種類의 텍스추어를 使用한 配合는 一般的으로 한 눈에 理解되는 要素는 아니다. 가까이 接近하거나 直接만져 보므로써 비로소 感受되는 性質인 것이다.

이와 같이 텍스추어의 的確한 使用은 디자인 過程에서 매우 重要な 一面을 차지하고 있다. 큰 스케일의 石材는 外壁에 適切하고 아름다운 텍스추어가 될 수 있으나 극히 普通크기의 室內空間에 應用한다면 결코 스케일이 적합치 못한 것이다. 텍스추어는 스케일에 따라 많은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상 텍스추어를 選擇하는데는 ① 스케일 ② 反射와 吸收 ③ 感觸 等の 順位로서 考慮함이 重要하다. 各材料는 各々 다른 質感과 빛의 反射와 吸收때문에 약간의 다른 色調가 나타날 수 있으며 直接 손으로 만졌을 때의 感觸은, 우리의 肉眼은 五感을 통해 感觸의 質을 知覺할 수 있다. 特히 텍스타일 디자인(Textile design)의 領域에서는 織物의 「손의 感觸」은 質의 判定을 爲한 主要한 批評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스케일 面에서도 잘 均衡잡힌 適切한 素材感의 選擇, 텍스추어에 依한 效果를 創造하는 일은 디자이너에게는 挑戰할만한 目標인 것이다.

建築家 미스는 「보다 적은 것은 보다 풍부한 것(Less is more)」란 格言을 남겼다. 여기에서 暗示하고 있는 原則은 디자인의 여러 面에서 意味있는 뜻이지만 室內에서 텍스추어의 問題를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앞서 論한 미스의 씨그람빌딩에서 로비는 精巧한 比例로서 優雅한 家具와 美術品에 의존치 않고 室內로 案内하는 當당한 入口의 空間으로서 만들어져 있다. 이 로비全體에는 단지 3 種類의 基本的인 材料가 使用되었을 뿐 텍스추어의 變化도 극히 적다. 테라조의 바닥, 石灰華面板의 壁, 모자이크타일의 天井, 이밖에 텍스추어에는 유리도 포함하고 있으나 巨大한 유리면의 目的은 出入口部分을 外部空間의 프라자에 關連시킬 뿐 거의 텍스추어의 한 要素로서 對象은 되지 않고 있다.

典型的인 建物の 로비는 大部分 建築材의 展示場과도 같은 樣相이 많으며 또한 材料의 混合物에 天井이나 壁面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一連의 照明計劃等을 發見할 수 있다. 事務所關係以外的 室內디자인에서 범람하고 있는 不快한 텍스추어의 過剩部類들은 오히려 조잡한 室內를 초래할 뿐이다. 여기에서 強調하고 싶은 씨그람빌딩의 로비를 参照로 한 다른 標準的인 建物の 로비를 分析하는 일을 권하고 싶다.

텍스추어의 質이란 우선 材料의 솔직한 表現에 歸着한다. 다시 말하면 텍스추어에 關한 어느 程度의 판단은 그것이 어떤 다른 材料와의 混合使用이라든가,

或은 内外装材와는 關係없이 정해질 수 있다. 一般이나 디자이너의 大部分은 木材의 自然的인 素質 그 텍스처에 패턴을 좋아한다. 過去 大部分의 家具 및 木部는 有光沢 마무리를 통한 自然的인 나무결의 表面狀態에서 二重의 인상을 주는것 같은 效果를 考慮했다. 그러나 오늘에는 大部分이 無光沢에 依한 木材의 自然的인 質感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것은 一般材料의 正直한 使用에서 豊饒한 視覺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오늘날의 美意識으로 理解되고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르 꼬르뷔지에가 가끔 나무모양이 남은 콘크리트 텍스처의 作品을,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의 技術을 應用하고 있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디자인에서 텍스처가 成功한 使用方法이란 結局 디자이너가 얻으려는 零細氣나 用途가 무엇이든 간에 다른 텍스처와의 콤비네이션에 감추어져 있다. 以上과 같은 텍스처의 選擇에 있어서의 要点은 材料의 維持問題이다. 그 텍스처가 아무리 아름답고 正直한 表現이라도 簡單한 청소나 拭을 수 없는 性質을 갖고 있다면 實用的이 아니며 또한 不可能할 것이다.

事務所建物の 室内나 學校 그밖의 公共建築을 爲한 實際的인 디자인은 維持와 費用의 要素가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選擇의 幅을 制限하기도 한다. 훌륭한 效果로서 다른 텍스처의 콤비네이션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材料의 使用에 依해서도 創造될 수 있다는 디자인上的 側面을 念頭에 두면서도 實際的인 問題로는 디자이너에 依한 美的인 美의 이해 지네이션보다는 機能的인 考慮에 依한 制限이 앞서고 있다.

4) 色과 照明

디자인은 單純히 形態 스케일, 텍스처 등의 斷片的인 驅使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室内空間의 諸要素는 一聯의 關連性에 바탕을 두고 서로 긴밀한 關係에서 얽혀져 있다. 그 중에서도 色과 照明 以上으로 相互依存하고 있는 要素는 없다.

科學者들은 色彩에 關한 多様한 現象이나 分析의 인 側面에 對해 많은 貴重한 作業을 해 왔고 色彩가 人間의 感情에 作用하는 效果에 對해서는 心理學者의 研究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色彩分類나 名稱을 爲한 權威 있는 制度도 數種類로 整理되어 있다. 이들중 가장 廣範圍하게 알려져 있는 代表的인 것은 독일의 色彩學者 Oswald에 依해 發展된 制度와 美國의 Munsell에 依한 制度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色彩를 分析的인 方法으로 理解시키는 手段 및 染色, 프린트, 그밖에 塗料製造 등의 産業界를 爲한 도움은 되지만 全体的인 環境에 關係되는 디자인上的 問題解決에는 어떤 特別한 價值를 갖지 못한다.

여기에서 디자인의 한 要素로서 色素를 檢討할 때

獨立된 單一色彩에 關한 잘 잘못은 말하기 어렵다. 色彩의 性質과 그 效果는 使用되는 用途에 따라 決定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基本的인 事項은 모든 材料가 各各 다른 텍스처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石材, 벽돌, 스테이트, 木材 등의 基本的인 建築材도 固有的인 色彩를 지니고 있다. 하나 하나의 材料自体에서 多様な 色彩의 變化가 있는가 하면 自然스럽고 正直한 材料의 色彩를 그대로 率直한 表現을 살려 使用될 때 人工的으로 着色된 경우보다 아름다운 것이 普通이다.

라이트의 室内은 약간의 人工着色도 없이 놀라운 程度의 色感에 넘친 興味있는 空間을 創造하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의 代表的인 室内은 自然材本래의 色彩를 그대로 살린 극히 精巧한 作品들이 많다. 이러한 自然的인 취급方法은 人工的인 것을 積極的으로 받아들인 室内에 比해 보다 산뜻하고 분명한 生氣를 느끼게 한다. 一般的으로 單純히 色彩의 變化보다도 더욱 強하고 敏速하게 明暗의 相違二色彩의 콘트라스트 쪽을 感受하고 있다.

陰影의 強調은 空間의 壁이나 바닥의 表面에 對한 裝飾的인 選擇以上으로 建築的인 室内空間에서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室内은 爲한 基本的인 色彩는 白色이다. 白色은 大部分의 目的을 爲한 가장 優秀한 背景이 될 수 있고, 빛의 反射體로서 最高의 色彩인 것이다. 그러나 強調될 點은 한 色彩와 다른 色彩와의 關連性相互作用에서 이루어지는 콘트라스트 上에서 調節이 되어야 한다. 結局 空間全体디자인의 치밀한 檢討로서 整理되어야 하는 性質인 것이다. 여하간 色彩란 實際로 反射되므로 各室内空間의 狀況에 適應한 自然光과 人工照明의 效果를 통해 關連된 照明과 色彩의 影響은 觀察하여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均一한 照明으로 允滿된 空間은 뛰어난 作業環境을 만들 수 있으나 快適한 普遍的인 空間이 될 수는 없다.

即, 事務所에서의 作業이나 製圖用으로는 均一照明이 理想的인 일 수는 있으나, 食堂 居室과 같은 휴식 장소에서는 오히려 不適當한 方法이 된다. 따라서 큰 유리窓을 통한 日光이 비춰지는 空間은 充分한 自然光으로 가득차 있으나 메로는 不安하고 흥미없는 空間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는 適切한 方法으로 콘트럴 해야 하는데, 빛의 基本的인 調節의 하나는 直射光線을 除去하는 일이다. 太陽光이나 人工照明의 電源을 直接

받았을 때 눈이 부신 것을 누구나 經驗하고 있다. 窓의 크기나 位置, 巨大한 스케일의 유리窓, 높은 窓이나 스카이라이트等 室内空間의 機能, 家具配置의 計劃을 包含한 全体的인 關連性의 內側에서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外部的인 施設로서는 더우기 室内 디자인은 建築家와 密接한 協力에서 實現될 수 있다.

同一한 空間內에 光線이나 照明의 變化는 特殊한 作業目的을 갖는 以外에 매우 바람직하다. 自然光線이든 人工照明이든간에 均一한 빛만을 갖는 空間은 찬 느낌이나 싫증이 날 수 있는 平凡한 印象을 주기 쉽다. 이처럼 建物이나 그 室內의 形態에 屬하는 要素와는 달리 디자이너는 빛의 變化하는 狀況이나 必要性에 適應한 融通性을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4. 室內建築의 空間把握

本誌에서는 室內디자인에 對한 基本的인 어로프로우치에 關한 普遍의 一般的인 觀点에서 把握을 主로 한다. 디자인이란 무엇보다도 우선 問題의 解決 그 自体에 있다. 單純히 아름다운 形態나 텍스츄어, 色彩, 材料等을 結合시키는 作業만은 아니다. 各室內에 相應된 機能이나 目的이 있으며 要望되는 固有의 機能을 먼저 處理하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부과된 責任이다. 重要的 問題는 디자이너가 어떠한 形態로든 介入하여 모든 種類의 人工的인 室內을 爲해서 室內의 基準이나 計劃等을 配慮해야 할 것이다. 室內의 主要한 作業의 類型은 크게 4 種類의 범주에 包含되고 있다. 卽, ① 作業空間(Work Space), ② 生活空間(Living Space) ③ 公共空間(Public Space) ④ 特殊目的空間(Special-purpose Interior) 등, 勿論各基準의 重要度나 序列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어떠한 條件下에서든 關係없이 디자이너가 該當되는 空間에 따라 檢討하고 考慮해야 할 事項들이다.

- ① 當空間에서 主된 活動은 무엇인가?
- ② 그것은 同一建物內에서 다른 空間과 어떻게 關連되고 있는가?
- ③ 動線이나 循環의 패턴은 어떤가?
- ④ 當空間의 自然彩光 및 夜間에 人工照明의 必要性程度는?
- ⑤ 音樂效果 暖房空氣調節의 狀態는 어떠한가?
- ⑥ 維持를 爲해 어떠한 考慮가 주어지고 있는가?
- ⑦ 그 부드나 霧出氣는 適切한가?
- ⑧ 材料로서 適當한 것이 選擇되고 있는가?
그것들의 材料는 쉽게 人手되는가? 經濟的인가?
- ⑨ 그 空間은 가령 公共建築物의 室內로서 「이미지」에 適合하게 생각되고 있는가?
- ⑩ 予算의 制約은? 그것은 지켜지고 있는가?
- ⑪ 顧客의 特別한 希望이나 必要性은 무엇인가?
- ⑫ 그 作品이나 建築의 位置는 어떤 特別한 材料나 디자인의 特徵을 暗示하고 있는가? 氣候의 風土的 考慮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⑬ 디자인의 意圖는 무엇인가?

以上과 같은 質問은 最初에 생각해야 할 多樣한 事項들로서 항상 完成作의 理解와 評價가 있어야 할 것

이다. 室內空間은 感情이나 美學的 印象단으로는 判定될 수 없다.

1). 作業空間

우리의 周圍에는 디자이너의 意識의 努力없이 충분히 많은 工場이나 研究所, 倉庫, 作業場 등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種類의 空間은 純粹한 機能的 或은 問題를 解決하는 것만으로 率直하게 어로프로우치에 바탕을 두고 디자인되고 있다는 사실에 基因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無意識的인 方法에 依해 얻어진 디자인의 結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20世紀에 있어서 美의 技術的 達成中에서 最高의 合理的 機能的인 어로프로우치와 같은 資質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效率과 同等한 點를 創造하는 意圖로서 디자인되는 作業空間이란 大部分 事務室이다. 實業界와 産業界가 事務室環境에 對해 쏟는 配慮는 10여년전만해도 결코 생각지 못했던 정도였다.

그것은 現存하는 作業의 必要性에 근거를 둔 直接的인 結果이다. 이와같이 比較的 最近에와서 일어난 要求의 擴大에서 그 主要活動이 事務室의 平面計劃이 나 室內디자인을 出現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作業室內의 디자인을 依賴하는 크라이언트는 그의 空間的, 機能的 必要에 關해 提示되고 作業空間의 種類와 條件에 따라 디자이너의 表現과 意圖를 反映하는데서 連結되고 이루어진다. 一般적으로 現代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航空會社의 事務室이나 티케트 에이전시(Ticket agency)에는 매우 現代的 機能美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는 것을 期待하는 한편 아동들의 玩具店이나 화장품商은 보다 즐거운 인상과 가벼운 現代美의 이미지를 期待한다.

「社會的 慣習은 어딘지 태셨과 비슷한 時代에 따라 變化한다」 例를들면 過去만해도 銀行의 室內은 여러개의 圓柱와 大理石으로 充滿된 重厚한 空間性에서 1950年代 SOM設計에 依한 뉴욕의 매뉴팩츄어즈 하노바 트라스트 컴패니빌딩으로서 새로운 傳統이 創造되었다. 巨大한 유리壁面, 에어컨튼 방식의 出入門 植物을 심은 에리어와 같이 많은 外部空間과 關連性을 가졌은 特徵이 오늘에 와서 銀行의 理想的인 모델이 되었다.

作業空間에 關係하는 디자이너는 크라이언트에 對한 적지않은 서어비스를 통해 要求條件을 分析하고 將來의 擴張이나 變更의 可能性에 應할 수 있는 適切한 어드바이스에 依해 會社에 實質的인 節約의 必要性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室內의 바닥材나 壁面의 마감材의 指定에 이르기까지 各 要素가 美學的인 局面에서 뿐만 아니라 機能的 經濟的 考慮에 準하여 分析되고 解決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生活空間

生活空間이란 住宅을 말하며 매우 個人的인 環境이다. 디자인 批評의 基準은 매우 廣範圍하여 한마디로 一般論이라 해도 無妨할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各個人들은 때때로 理解하기 어려운 이상한 決斷을 보일 때가 많다. 即, 디자이너에게는 더없이 충격적이고 劣惡한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이상한 室內空間에서도 連 불편없이 滿足하며 生活하는 일이 많다. 實際적으로 이러한 住宅들이 서울에도 세워지고 있으며, 家主는 올바른 理解의 缺乏으로 上記와 같은 方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專門的 디자이너로서 그러한 偏心的 人들에게 그다지 關係하고 있을 餘裕는 없겠으나 批評의 基準은 어디까지나 健全한 原理에 準하여야 할 것이다. 實際問題로서 生活環境의 디자인은 原則을 지키는 唯一한 必要事項이라는 것이 좋을 것이다. 裝飾이나 家具備品의 選擇等은 各主婦의 責任에 맡겨지는 것이 理想的이며 현실적으로 마땅한 範圍의 일일 것이다.

色彩나 素材의 選擇도 또한 本來 드레스나 넥타이와 마찬가지로 個人的表現의 範圍에 들어야 한다. 실지로 有能한 디자이너는 建築의 流行이나 自身の 嗜好를 크라이언트에게 強要하지는 않으나, 公正한 計劃과 디자인의 原則을 크라이언트의 意見이나 趣味를 調整하여 받아들여도 될 이룰 것이다. 다만 앞에 밝힌 체크리스트에 하나 하나 適用하면서 여러 要素의 相互關連속에서 成立해가는 空間의 合理的인 計劃方法은 發展의 이다.

室內에 있어서는 快適한 家具配置, 門設置의 位置와 그 開閉方式에 對한 考慮 窓의 設定이 限定된 空間의 活用에 주는 影響等에 對한 追求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室內디자인의 質은 훌륭한 디자인의 家具나 備品에도 많은 依存이 되고 있다. 備品으로 平均的인 家族의 必要나 欲望의 對象은 普通 市場에 販賣하는 T·V 세트나 여러 種類의 音響裝置와 趣味道具, 娛樂設備 등 그밖에 많은 것이 包含된다.

現實의 生活環境에는 놀랄만큼 人工的인 量産物이 넘치고 있기는 하나 優秀한 디자인이 市場에 出現되기까지 專門的인 디자이너에 依한 適切한 啓蒙이 眞實로 要望되는 事項이다. 이러한 量産의 家庭備品도 室內디자인에 提案될 수 있는 要素들이며, 디자이너의 指導方向은 限定된 財力 限定된 空間을 갖인 家庭에 있어서 是特히 意義 깊은 일이며, 生活空間이나 生活像을 相當 程度로 改良할 수 있는 것은 明白하다.

其他 照明, 暖房, 에어컨디셔닝 등은 居住性, 機能性, 디자인面에서 매우 重要한 要素들이며, 材料의 耐久性, 安定性, 維持問題에 이르기까지 充分한 經驗과 檢討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生活空間은 居住者 自身の 特徵이나 意味를 反映하는 새 人的인 生活環境을 認識하는 것이다.

3). 公共空間

公共이란 單語의 概念에는 基本的으로 모든 人들에게 展開되는 空間이란 뜻이 있으며, 그중에서 予想되는 混雜을 統制하는 것도 內包하고 있다.

公共空間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 그루우프로서 ① 待合室, 駅이나 空港로비, 或은 홀과같이 여러 要素가 盾環하는 巨大한 空間이나 儀式的인 室內, ② 敎會, 市民會館等의 特殊한 空間의 定義는 比較的인 明確하나 호텔이나 百貨店等의 個人所有는 ①② 그루우프, 어느 쪽으로도 定義될 수 있는 空間이다.

以上 ①② 그루우프의 重要한 問題는 空間을 社會的인 經濟的인 側面에서 捕捉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큼 많은 一般大衆이 그것들을 스스로 利用하고 眞實한 必要에 바탕을 두고 通過하도록 運用되고 있는 點이다. 公共性을 갖는 空間은 시티 프랜너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를 비롯 비록한 모든 建築家들이 公同分配하고 있는 等等의 責任을 担当디자이너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即, 人工的인 環境의 創造와 調節, 더우기 그것들이 人間生活에 미치는 影響에 關連되는 責任이다.

住宅에 關해서 「住宅은 自己自身の 城」이란 意識을 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生活空間을 公的인 領域 밖으로 놓으려는 생각과 作業空間은 어느 面으로는 매우 個人的인 性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公共空間은 否応없이 많은 人들에게 影響을 주게 된다. 마치 道路나 隣近街區 都市全體가 갖는 것과 同等의 連帶에서 絶對必要한 空間이며 우리 環境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公共空間은 特別히 定해진 目的에 맞는 效果的인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人間의 要求를 眞實하게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單純히 한 사람의 크라이언트나 디자이너 個人的인 滿足을 넘어서 보다 많은 人에 對한 生活의 考慮에 依한 디자인이란 理解를 확고히 하고 空間內部에서의 實際的인 動線을 予見한 空間目的에 應해야 한다.

4) 特殊目的空間

室內建築의 空間에서 4 種類의 基本的인 範圍等의 마지막은 가장 複雜하여 一般的인 디자인 基準으로 모든 것을 추정하기란 困難한 空間이다. 特殊한 目的을 갖는 空間이라고 하면 劇場이나 스테이지 세트와 같은 種類에서 微妙하게 交錯한 細部에 걸친 規定이나 特別한 考慮를 必要로 하는 移動性을 갖인(비행기, 船舶, 自動車等) 內裝에 이르는 많은 여러 分野가 있는가 하면 室內디자인이 비교적 자주 關係하는 호텔도 해당된다.

호텔이 要求하는 室內의 特別한 條件이란 어찌면 一般家庭이 具備하고 있는 以上の 快適感이나 靜養에 適合한 配應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찌든 디자이너는 호텔의 고객은 하루에도 몇 명이란

사람의 수가 多彩롭게 利用한다는 事實을 基本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特殊目的의 空間의 여러 타입에 關한 問題는 必要條件과 解決策의 充分한 把握과 유일한 挑戰도해야 할 것이다. 室內 디자인이란 結局 多様な 問題에 對해 誠實한 解答을 發見하려는 試圖에 關連되어 있는 것이다.

5. 結 論

藝術의 한 分野로서 또한 한 職業으로서의 室內 디자인은 建築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本來 建築이란 한 領域의 一部라고 할 수 있다.

室內디자인은 構造上의 技術에도 建築家와 거의 同等한 程度의 充分한 理解가 될 수 있도록 教育을 받아야 함이 要求된다. 어떤 建물이 建築的으로 보아 優秀性이라고 할 때 室內디자인어는 미치는데의 能力을 發揮하여 建築家의 作業을 的確한 方法에 依해 支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建物の 制約內에 서는 既存建築의 造形的 技術的 弱點을 可能限 除去하여 室內空間을 最小限으로 調節或은 변경하는 方法을 充分히 시도할 수 있는 程度의 建築的 知識을 갖고 있어야 함은 不可避한 要件이다. 또한 建築家의 콘설턴트로서 活躍하는 獨立된 專門家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建築家와 室內디자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各자가 상대편의 目的을 理解하는 限 容易한 것이다.

建築家에 있어서도 室內디자인은 스스로가 디자인하려면 室內建築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理解하여야 함이 強調된다.

建築에 關해서는 古代 로마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尙大한 重要文獻이 남겨져 있어 室內建築디자인은 누구나 建築史, 建築理論에 通達해야 하며 綜合的인 建築속에서의 室內디자인어의 役割이 影響을 미치게 하는 現代建築의 實際的 問題에 對해서도 익혀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室內디자인은 建築家組織의 一部에서 或은 獨立된 組織의 專門家的 立場에서 一部나마 活躍하고 있으나 序言에 밝힌 바와 같이 建築物의 安全性에 直接作用하는 面을 다루는 立場에서 建築家와 같은 어떠한 法的 라이선스를 義務지워야 하는 問題點, 을 안고 있다.

- 끝 -

(參考文獻)

- ① Friedmann · Pile · Wilson: Interior Design,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interiors. (Elsevier, New York, 1973.)
- ② Diana Rowtree: Interior Design. (Penguin, 1964)
- ③ 藤原美代子著: インテリア デザイン (東京、彰國社1968).
- ④ Edgar Kaufman: Interior Designers.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57)
- ⑤ Walter Gropius: Scope of total architecture.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Inc, 1962. Paperback)
- ⑥ J. M. Richards: Modern Architecture, (an introduction to) (Pelican/Penguin 1940)
- ⑦ Peter Rlacker: 現代建築等 巨匠、田中正雄、奥平耕造訳 (東京、彰國社 1973) □ □ B
- ⑧ 鄭寅因著 現代建築論 (서울, 治遠文化社1970)

- 以上 -

人間과 建築環境

〈高層住居環境에 대한 社会心理学的 考察을 中心으로〉

工博 李 璟 齋

延世大学校 副教授

1. 序論

오늘날 人間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建築環境과의 相互作用에 關한 人間環境學에 關한 研究는 社会心理学的 接近方法에 依하여 활발하게 進行되고있다.

人間과 그의 環境사이에는 일련의 函數的 關係가 成立된다는 假說아래 兩者間에 体系的 連關性을 파악하고 環境이 人間에 미치는 逆으로 人間이 環境에 미치는 相互影響을 규명하므로써 建築環境創造에 質的 變革을 시도하고있다.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關係를 규명하는 때는 우선 人間の 本質을 理解하는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生物체로써 人間の 本質은 生存이다. 그러나 人間을 생각할때 비단 生物學的 側面에서 보다는 精神, 心理, 社会, 生態 經濟的 側面에서 人間の 個體나 그가 屬해 있는 組織과 關連시켜 理解하는것이 通例이다. 確實히 人間은 自身이나 그가 屬해있는 組織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부단히 그의 環境을 創造하고 變造하며, 保存 또는 파괴한다. 이러한 論理的 事實에서 본다면 人間은 모두가 하나의 建築家라고 볼수있다. 이때 問題가 되는것은 人間은 과연 그가 創造한 建築環境으로부터 어떠한 影響을 받느냐? 하는 問題이다.

世界2次大戰后 英國에서 戰亂으로 파괴된 国会議事堂 再建이 논의 되었을때, 처칠경이 基調演說에서 「우리가 建物を 形成하지만 建物は 우리를 形成한다」라고 언급한것은 人間이 建築環境으로부터 받는 影響을 매우 含蓄성있게 표현한 말로 해석된다. 20世紀初 英國의 都市計劃家들은 集合住宅團地의 基本單位 計劃(住宅規模나 街路網의 크기, 住宅의 方位등)이 장차 이곳에 살게될 入住者들의 社会的 行動패턴을 決定짓는 원인이 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소위 建築環境 決定論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都市社会科学者들에게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環境은 직접적으로 人間の 行動패턴을 결정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人間の 行動에 지대한 影響을 미친다는 때는 의견의 一致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先進諸國에서는 격증된 住宅수요문제의 해결책의 수단으로써 무수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층주거환경내의 人間生活은 많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초래하고있다. 고층아파트 생활공간의 부적합, 이웃간의 獨立性과 社会的 接觸의 결여 고층주거에 대한 불안감, 원인모를 병적증

세, 아동발육의 장애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파트노이로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파생하게되었다. 이와같은 인간과 그가 창조한 환경사이에서 야기되는 제반문제는 비단 建築家들 뿐만아니라 누구나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들이다.

2. 人間·環境關係에서 環境計劃

建築家가 新住居地域을 計劃하고 設計하는 것은 人間/環境關係(Man/Environment Relation)의 側面에서 보던 住居者들의 行爲와 이들 行爲間의 關係를 空間적으로 配置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換言하면 建築家가 장래 그 住居地域內에서 造成될 社会心理的 環境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人間の 各種行爲는 各種 物理的 因子(時間, 空間 거리)들에 의하여 많은 影響을 받게되므로 物理的 環境設計家(Physical Designer)들은 人間行爲의 패턴을 設計하는 結果가 된다.

一般的으로 建築雜誌에 게재되는 建物사진에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그러나 實際生活에서는 항상 建物の 内外部空間에 사람들이 行動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建築은 人間の 各種行爲(Activities)를 收容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建物이든 人間の 行爲를 유도하거나 함유하게된다. 따라서 建物内外部를 거니는 사람들은 그建物뿐만아니라 發生하고있는 人間の 各種行爲를 경험하게된다. 換言하면 人間과 그를 둘러싼 環境사이에는 끊임없는 相互作用(Interac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人間の 諸般要求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行爲를 遂行하는 것에 依하여 達成되거나 五管을 통해 어떤 자극을 받는것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要求達成의 基本的手段으로 行動(Actions)과 경험(Experiences)을 들 수 있다. 人間이 行動과 經驗을 하기 위한 接近은 人間の 存在를 確認하는 方法이되며 이러한 接近方法은 物理的 環境과 社会的 環境 두가지 要素로 構成되는 全体環境에 依하여 성취된다. 物理的 環境이란 個人에게 影響을 미치는 人間이 아닌 모든것으로, 社会的 環境은 人間關係로부터 人間에게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各各 定義될 수 있다. 以上關係는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다.

	物理的環境	社會的環境
經驗을 위한 接近	①物理的경험	③社會的경험
行動을 위한 接近	②物理的행동	④社會的행동

- ① 物理的經驗이란 自然과 物理的構造物을 經驗하는 것.
- ② 物理的行動이란 음주, 식사, 호흡, 취침등.
- ③ 社會的經驗이란 他人과의 接觸, 社會로부터 情報 入手等.
- ④ 社會的行動이란 他人과의 對話와 協力等을 말한 다.

歴史的으로 볼때 物理的環境計劃의 目的은 快適한 環境創造라 할 수 있다. 中世都市内에서 都市環境構造는 一般的으로 잘 조직되고 上記 네가지 人間/ 環境關係는 잘 이루어 질 수 있었다. 例를 들면 中世都市에서 廣場이나 歩道는 정보인수(社會的 經驗)의 중요한 장소였고 社會的 環境으로 연결되는 장소이었다. 오늘날 새로운 通信手段(TV, 라디오, 신문)을 통하여 社會的 經驗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은 一方의 接觸이라는 間接的 手段에 불과하다. 이러한 間接的 接觸方法(社會的 經驗)은 그 強度나 內容의 풍부함에 있어 傳統的으로 이루어졌던 直接的 通信手段(對話)과는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人間은 점차적으로 高립화되어가며 극단의 個人主義化하고 社會的 關係수립의 기회가 결여되고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交通機關(자동차)과 通信手段(전화)의 發達은 社會的 環境으로 연결시키는 자유를 제공하고있으나 그것은 人間의 社會階層에 均等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機能主義建築時代에 物理的 行動을 위한 計劃은 「健康建築」이라는 前提下에 發展되었으나 社會的 關係는 그 重要性이 認知되지 못한 채 발전되었다. 住居, 産業, 商業地域等 用途에 依한 機能的 分離는 物理的 計劃의 長點은 될지모르나, 近隣接觸에 依하여 유도되는 社會關係수립에는 부적당하다. 具體的 例로 安全을 위한 車道와 步行路와의 完全分離, 個人所有自動車를 위한 교통망계획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通行者 모두에게 社會的 經驗의 機會를 감소시키고 交通의 원활을 위한 광대한 地域計劃은 建物を 高립화시킬 뿐만아니라 또한 人間을 高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觀點에서 오늘날의 環境計劃은 人間의 社會的 環境計劃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社會的 次元을 도외시한 建築計劃은 不良한 環境과 各種 社會的 弊害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高層住居環境이 人間의 生活面 특히 人間의 精神健康과 兒童의 發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最近 歐美先進國에서 報告된 研究結果를 中心으로 살펴 보 고자 한다.

3. 高層住居와 人間生活

歐美各國에서 都市再開發이란 老朽住宅을 高層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住居도 高層化에 따른 社會的 問題나 居住者들의 滿足 不滿足에 대한 態度와 精神的, 社會的 健康問題에 대한 資料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아파트(특히 共同住居)는 임시주거지라 생각하며 單獨住宅이 안식처로서의 永久住宅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높다. 單獨住宅은 그 質에 따라서 그 所有者의 社會的 身分의 差異가 確然히 区分되므로 居住者들은 他人으로부터, 의식적으로 自身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를 현출하고자 하는 心理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高級住宅을 높이 評價하고 復雜하고 變化있는 住宅의 外觀과 獨立性을 強力히 追求하게 된다. 이러한 人間의 心理的인 要素가 共同住宅 보급에 하나의 重要한 間接的인 阻害요인 이 되고있다. 그러나 高層住居生活에 야기되는 보다 심각한 問題는 住居의 高層化에 따른 이웃간에 社會的 接觸의 결여인 것이다. 即 住居의 高層化는 自然히 建物과 建物間에 物理的距離(Physical Distance)를 擴大시키고 地上으로부터 수직동선이 延長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物理的距離關係는 住居地域内에서 社會心理環境造成에 가장 重要한 因子가 된다. (Hall 1966, 113 ~129) 사람들간의 “近接性”(Proximity)은 人間의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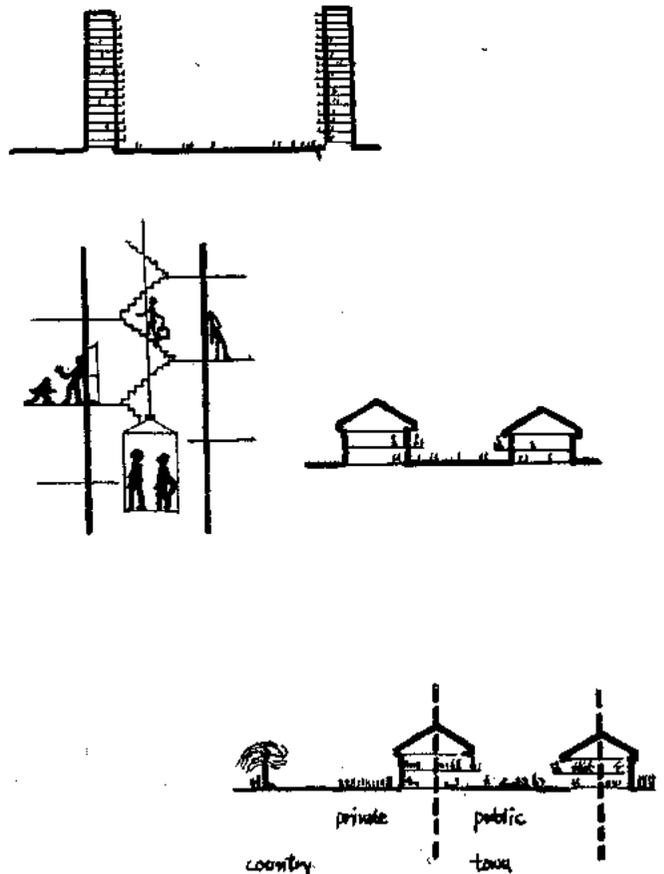


FIG. 1 AFTER J. Olivegren. 1970

会的 經驗이나 行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까운 距離(Short Distance)는 사람들간에 빈번한 接觸과 社会活動의 機會를 增大시키는 반면 遠距離(Large Distance)는 減少시키게 된다. 實際로 高層住居들 間에는 低層住居에 比하여 이웃간의 對話나 社会的 親交의 機會는 월등히 적다. 더욱이 高層아파트의 의 관은 同一한 形式의 窓門과 발코니를 갖게되며 많은 사람을 收容하게 되므로 單調롭고 個性이 결여된다. 地上에 面한 住戶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는 이웃사람들과 안면은 많으나 匿名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이결과 社会的인 行事참여나 他人으로부터 초대나 社会的 接觸의 機會는 오히려 감소된다. 심지어 계단이나 에레베타, 또는 복도에서의 社会的接觸의 機會도 예상의 外로 적다. 애나하면 이러한 공유부분(エレ: 계단, 복도)은 심리적으로 一種의 「침묵의 공간」 「침묵의 공간」이 되며 좀처럼 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高層아파트에서는 이웃간 자연스러운 접촉이나 社会的 親交의 機會가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므로 사람들은 연령, 社会的身分, 職業, 健康狀態, 精神的인 態度等에 따라서 정도의 差異는 있어도 共通의 匿名, 疏外, 隔離感을 느끼게 된다. 한편 低層集合住宅에서는 建物과 建物間의 建物的인 거리가 짧으며, 창넘어 다니는 이웃사람들 쉽게 익힐 수 있고 바로 이웃집간에 親交도 相對的으로 쉽게 이루어지며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居住者들은 이웃간에 社会的經驗과 接觸을 할수 있는 機會를 많이 갖게된다. 建物內에서도 社会的接觸은 가까이 이웃한 계단이나 발코니에서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高層住居와 低層住居를 比較하여 볼 때 社会的 親交와 活動의 機會는 低層住居形式에서 보다 圓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高層아파트住居에서 수직동선의 影響은 居住者들의 外部活動을 저해하며 성인들은 單獨住居의 사람보다 무리한 생활을 보낸다. T.V시청時間은 單獨住宅보다 길며 이것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운동부족 현상을 초래하며 이러한 非活動은 交通事故의 위험은 없다하더라도 그들의 生命을 短縮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유예되다시피한 空間內에서 住生活은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居住者들의 行動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男女成人들은 男性의 人들은 成的인 活動의 阻害를 받게된다. 獨立住宅이나 低層住居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담장이나 창문에 케인트질하는 일과는 달리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가, 집사를 닦는다든가, 우유를 먹이는 일등 家事를 돕도록 強要되게 한 高層住居內 兒童의 精神的·身體的 發育問題는 매우 심각하다. 最近의 調查研究에 依하면 高層住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같은 연령의 低層住居어린이들에 比하여 宅內에서 노는 時間이 約 半밖에 되지 않으며 그

들은 좀처럼 밖에서 혼자 노는 예가 극히 드물다.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주위를 기울이게된다. 가령 부엌 창넘어 아래 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지 않으면 心理的 불안감을 갖게되며 파잉보호를 하게된다. 이동진로소에서 근무하는 한 정신건강의사는 5년간의 관찰결과 高層住居에 사는 많은 兒童들의 運動不足증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발육기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이웃집이나 집주인에 신경이쓰여 室內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것이 부모에 依하여 금지되었고 침실에 유예되다시피해서 양육되어온 증거라 할 수 있다. 發育期에 있는 兒童의 運動不足과 社会的 親交의 단절은 精神的 發育에 많은지장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非人間化, 認識發達의 阻害, 非社会的 行動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들 어린이들은 社会化的인 過程에서 不完全하며 너무나 어른들과 밀접히 생활하게되므로 결과적으로 긴장과 과민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高層住居形態의 單調롭고 同一한 外觀에 대한 心理的 反發心은 單獨住宅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單調로운 高層住居 Block의 非人間的인 尺度는 感情發育과 자아인식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居住者들은 그들 자신 난쟁이가 된 듯한 不健全한 이미지를 느끼게된다. 청소년들은 가장 이같은 問題로 고민하게되며 환경에 대한 強한 反發意識을 느껴 급기야는 파괴주의(Vandalism)로 發展하게된다. 특히 最近歐美에서 새로 開發된 高層住居地域內에서 벽에 낙서를 한다던가 公共器物을 파괴하는 行爲의 發生率이 증가하고있다.

高層住居環境의 單調로움은 직장인들의 감각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事務所建築이나 아파트의 外形이나 内部環境은 별로 다를바 없으며 이러한 環境속에서 單調로운 生活의 연속은 心理的으로 마치 감옥生活같은 느낌을 주게되며 地上에서 격리되어 높은 곳에 있다는 高層에 대한 심리적 不安感과 외로움을 느끼게된다. 이결과 高層住居者들은 都心地에 나간다면가 교외로 나가느 도피성벽이 농후하다. 以上 高層住居環境에서 야기되는 ① 격리감과 소외감의 문제 ② 이동발육의 저해 ③ 社会的活動과 近隣親交 기회의 결여等 제반 社会的, 精神的, 物質的인 문제는 숙고되어야 하며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問題는 美學者, 建築家, 社会學者, 都市計劃家, 行政家 무엇보다도 居住者들에 依하여 各己 다른 角度에서 달리 해석되고있다. 再開發地域에 高層建築의 고귀한 모습이나 경쾌한 모습은 都市美構成에 좋은 手段이 될지모르나, 問題의 당사자는 바로 그속에 거주하고 있는 男女老少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 住居環境設計因子

上記한 社会心理的 環境造成을 위하여 住居環境設計에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基本因子(Olivergen 1970) 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步行路의 配置: 가장 重要한 因子로서 步行路를 通하여 大部分의 人間의 活動이 行하여지므로 步行路는 可能한 住居地域內 모든사람들이 모두가 利用할 수 있도록 配置할 것이며 通行者는 가장 짧고 가장 편리한 길을 즐겨 選擇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 棟의 配置: 住居地域內 建物들은 그地上의 機能이 變化있게 分化될 수 있도록 配置되고 建物自体 外觀에 變化가 있어야 한다.

各棟은 主步行路를 따라 密集하게 配置하되 곳곳에 適當한 開放空間을 두어 各種社会的行爲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可能限 自然環境을 조망할 수 있는 配置이어야 한다.

(3) 外部環境造成: 歩道와 廣場은 外部空間이라기 보다 建物로 둘러쌓여진 内部空間이라는 기분이 들도록 特性있는 空間計劃이 필요하다. 특히 外部空間配置와 여기에 面한 建物外觀은 친밀감과 개방감을 줄수있는 材料와 尺度로 構成되어야한다. 步行者의 키와 関連해서 친밀감과 人間味가 도는 크기이어야 한다.

(4) 方向標識施設物(Orientation Facilities): 이것은 居住者들의 精神的인 安息과 通行者의 位置를 쉽게 確認하는데 매우 重要한 역할을 한다. 可能한 친절과 방향 표지판의 施設이 要求된다.

(5) 安全施設: 주야간 步行者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施設物(난간, 계단, 가로등)을 充分히 만족할수 있도록 설치하므로써 心理的 安全感를 주어야 한다.

(6) 公共施設: 可能한 建物과 가까이 配置하므로써 自然스럽게 接近할수 있고 이웃사람들과 接觸할수 있는 場所가 되도록, 뿐만아니라 居住者들로 하여금 選擇의 自由를 고려하여 配置할것.

(7) 獨立性과 安溫性(Privacy and Peace) 특히 이러한 心理的 要素는 公的空間計劃上 重要하다. 獨立性은 内外部空間에 모두 確保되어야 한다.

(8) 人間의 親近尺度(Human Proximity Scale)

細部の 尺度計劃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人体에 알맞게 構成되어야 하며 通行路의 幅, 길이의 尺度는 建物 크기와 調和시켜야 되며 하늘같이 높은 壁體는 피하는 것이 좋다.

(9) 室의 配置: 展望을 고려한 各室의 配置는 精神的인 安全과 心理的 機能上 매우 重要하다. 특히 人間環境計劃에 매우 기본이 되는 要素이다.

(10) 建物外觀의 調和: 一住居團地內 建物의 外觀은 各己 個性을 지닌 變化있는 外樣과 視覺的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11) 家族型과 社会階層: 各種家族型과 社会階層이 可能한 混合되도록 各棟의 융통성 있는 平面計劃과 配置計劃이 重要하다.

5. 맺는말

過去의 建築家들은 高層住居環境에서 야기되는 제반 社会的, 心理的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建築家는 傳統的으로 個人의 經驗과 直觀에 의존하여 왔던 환경 설계에 再檢討를 必要로 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物理的 環境 設計家라기 보다는 社会開發, 人間開發, 人間性의 回復, 환경보존 문제와 관련시켜 폭넓게 建築環境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建築學 教育에 多學問的인 接近方法과 統合的이고 体系的인 人間 環境教育이 절실히 요청되며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評價研究와 環境 設計에 관련된 他分野 專門家들 과 의 積極적인 協同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Bitter, C. et al,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Little Children in Modern Flats; CIB Commission W 45 Symposium, Stockholm, Oct. 1967.
2. Cappon, D., Mental health in the hi-rise; Ekistics 196, Mar. 1972.
3. Donning, G. L. A. and Calway, J. P. T., O Living in High Flats; Proc. Royal Society for Promotion of Health, 1963.
4. Gehl, J., A Social Dimension of Architecture; 1970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Psychology Conference at Kingston Polytechnic, (ed) by Basil Honikman
5. Hall, et., The Hidden Dimension; 1969. Doubleday Anchor Book.
6. NSPCC, Children in Flats: A Family Study. 1970.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1 Riding House St. London W1P 8AA.
7. Olivegren, J., A Better Socio psychological Climate in Our Housing Estates;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Psychology Conference at Kingston Polytechnic, (ed) by Basil Honikman
8. Wekerle, G and Hall, E., High rise living: Can the same design serve young and old? ; Ekistics 196, Mar. 1972.

韓國 學校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要因分析과 方向에 關한 研究

(韓國學校建築의 史的 整理를 통한 近代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2

劉 香 山

誠信女師大 副教授

3. 韓國學校建築의 哲學的背景

1. 近世以前의 哲學的 背景

1) 教育思想面에서

- ① 外來思想이 들어오기 以前
- ② 外來思想이 들어온 以後

2) 建築文化面에서

- ① 韓國固有의 建築文化

가. 家屋形態의 校舍

- ㉠ 韓國의 自然環境
- ㉡ 韓國의 建築藝術의 特性

나. 韓屋의 特性

- ㉢ 第1期
- ㉣ 第2期
- ㉤ 第3期
- ㉥ 第4期

2. 韓國學校建築의 實例

3. 韓國學校建築의 哲學的背景

梨花學堂 初代 堂長이신 Scranton夫人이 우리 韓國 女性들에게 宣敎事業을 目的으로 行한 女性教育事業을 實施할때 그는 말씀하시길 “우리의 目標은 이 女兒들 로 하여금 우리 外國사람의 生活, 衣服 및 環境에 맞 도록 變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韓國人을 보다 나은 韓國人으로 만들므로서 만족한다. 우리는 韓國人이 韓國의인 것에 對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希望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敎訓을 通하여 完全무결한 韓國人을 만들고자 希望한다”고^① 하였 으며 또한 2代 堂長인 로드 와일러도 “그들이 장차 學 校를 떠난 뒤에도 만족시킬수 없는 要求를 가지지 않 게 하는 程度안에서 改良할 수 있는 點을 改良하면서 韓國實情에 맞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보다 나은 韓國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요, 外國人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②라고 하였듯이 그들은 眞心으로 韓國人을 爲 한 宣敎事業이요, 教育事業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後述하겠지만 韓屋을 헐고 洋屋을 지 어 우리나라 女性들을 안방에서 끌어내어 여기에다 寄 宿을 시키고 함께 共同生活을 하게하였고 더욱이 放學 이 없이 完全히 女性들만의 共同 家庭살림을 위한 장 스톨 마련 하였든 것이다.

이와 같은 歷史的 事實은 다음 두가지 面에서 오늘 에 이르러서 크게 問題의 始發點을 가졌다고 본다. 첫 째는 우리나라 自然環境 및 社會環境에서 오는 韓國民 의 國民性을 물렸다는 事實이며, 두째는 學習을 위한 物理的 環境에서 學校校舍가 敎授方法에 커다란 影響 을 주는것을 認識하기에는 너무 이른時代였다는 事實 이다.

自然環境의(地理的 條件 포함), 그리고 社會環境의 條件에서 오는 韓國國民性은 “밖으로 떨어나갈 여유도 없거니와 뜻도없고, 있는 상황이나 유지하고 防禦하 는 데 만도 힘이 겹다 보니 平和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中國을 大國으로보고, 我國을 小國으로 보는 소위 事大 思想”^③이 크게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 하였으니 아무리 “秀麗한 文化의 力量과 藝術性이 있다해도 그것을 밖 에 알리지도 않고 그것을 밖으로 크게 빛을 내지 못하 는” 國民性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面에서 西歐文化를 받아들이기에는 國民自身의 마음의 準備가 없었고 특히 女性에게 있어서 教育의 機會均等이 처음 행하였던 그 當時의 女性들에게 있어서는 「내것위에 남의것을 소화 하는」 힘이란 어려웠다. 그러므로, 「學校建築의 韓國 化」라는 門題에다 초점을 맞추어 볼때, 그때 韓國民은

西洋建築에 차하여 우리에게 당장 편리하였고 새로운 것이었으므로 學校 建築에서는 韓屋을 外面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하여 一般建築은 學校建築에 教育的 觀點없이 위와같은 洋式建築을 지금까지 세워온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거나 지금생각해 보거나 洋式建築의 哲學的 背景과 韓式建築의 哲學的 背景은(後術하겠으나)영연히 出發點과 方向이 다르며 地域的인 自然의 特殊性이 다르며, 더욱이 國民教育思想이 다른데 여기서 國際的인 面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다. 國際的인 것은 自己것이 있는 다음에 必要한 것이다) 「우리의 것」을 찾자고 하는데 있어서 讀者들은 異見이 없을줄 안다. 다만 「우리의 것」을 어떻게 찾느냐가 問題이고 여기서 이것을 研究하고자 하는 意圖가 있기에 먼저 洋式建築이 도입된 前後를 中心해서 韓國 學校建築의 哲學的 背景을 教育思想面, 自然環境面, 建築文化面, 社會環境面, 그리고 生活環境面을 中心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1 近世以前の 哲學的 背景

1) 教育思想面에서

① 外來思想이 들어오기 以前

우리나라 “上古時代 固有思想期”④가 있었다. 이것은 外國思想이 미치지 않고 文字와 學校를 가지지 않고 教育을 行하던 時期이다. 그런데 지금에 教育法中 教育目的을 「弘益人間」으로 본것은 사실은 이 時代의 教育思想이었다.

弘益人間을 좀더 說明하기로 한다.

이땅에 사람들은 이 世上을 三層으로 区分하여 그중 윗층에는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중간층에는 一般사람들이 살고 아랫층에는 惡한 귀신들이 있어, 이들의 장난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안되면 윗층의 하나님께 바는것이 일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하느님의 여러 아드님 가운데 桓雄이라는 이가 弘益人間하실 생각으로 特히 아버님의 허락을 얻어 部下 삼천을 거느리시고 太白山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다 神市를 펴시고 風伯으로 하여금 바람을, 雨師로 하여금 비를, 雲師로 하여금 구름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음에 主穀에게는 食糧을 主命에게는 生命을, 主病刑에게는 疾病과 刑罰을 맡아보게 하시어 무릇 人間에 關한 360여 가지의 일을 살피시게되니 이때부터 어지럽던 世上은 바로 잡히게 되었다 한다. 桓雄한배님의 아드님이신 단군 한배님은 아버님의 거룩한 뜻을한층 더 널리 펴시기 위하여 山水 좋고 물맑은 平壤에다 큰터를 잡으시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各部族을 한데 모아 한 큰나라를 이룩하시니 이것이 곧 韓國이 생긴 始初라고 한다. 이때부터 여러 사람들은 농사짓기에 재

미를 붙여 지금까지 하여온 原始生活을 모조리 걷어치우고 집도 짓고 女子는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입으니 그 살림은 하루 하루 向上되어 世上은 크게 啓明하였다한다.

이때부터 弘益人間 思想은 이나라 사람들의 크나큰 精神의 기둥이 되어 윗사람이 行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본받아 감히 어기지 못하는 國民의 大道가 어느덧 이루어졌다. 이를 사람들은 「부루」(神敎, 또는 天道)의 가르침이라하여 지켜나갔고 그리고 그時代에 있어 이 가르침을 맡으신이가 그대로 世上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으니 國祖 단군님이 이미 「부루의 가르침」에서 힘쓰실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었다. 그러므로 더러움은 곧 罪惡이요, 흑시라도 몸이나 집안에 더러움이 붙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을 떨어 버려서 天罰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가심」「풀이」를 하여야 했다. 옛날부터 옷을 회개 입는것은 깨끗함에서 나온 말이요, 또 해마다 유월 유두에는 온집안 사람들이 東流水에 나가서 목욕을 하는 風習이 있는 것은 몸의 더러움을 떨어 버리기 위함이요, 설날 그믐에 무서운 탈을 쓰고 집안을 두루 뒤져서 「덧보기놀이」를 하였음은 一年동안 집에 붙어있는 더러움을 가셔내고자 하는데서 행해진 일이었다.

다음에 사람의 倫氣로 힘쓰게 한것은 父母를 위함과 나랏일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과 옳은일에 용감하고 악한일에 가까이 하지 아니함과 이론을 깨지않고 實行을 함과 團體行事로는 歌舞와 音樂을 숭상하여 利同精神을 길렀으며, 때로는 이름난 옛자취를 두루 찾게하며, 애국심 배양에 힘을 썼든 思想이 바로 弘益人間 思想이다.

② 外來思想이 들어온 以後

그러나 三國時代부터는 生活이 安定되고 사치에 호르자 民心이 방탕한됨을 타서 中間을 通하여 儒敎思想, 佛敎思想이 들어왔다. 이때에 “高句麗의 小獸林王 2年(372)은 儒敎思想, 佛敎思想을 받아들였던 임금”⑤이다. 그는 未婚의 子弟들을 선발하여 글을 읽고 화살을 쓰는 공부를 하도록 하였고 地方에는 私塾을 열어 庠堂이라 하였다.

儒敎思想은 “孔子的 가르치심”인 「仁의道」에 처한 思想이다. 즉 「仁의道」란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과 친히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사람이나, 없는이에게 동정을 하고 으뜸가는 사람은 덕을 가추어 아랫사람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烈女傳에서 「夫入이 아이를 배었을때 옆으로 잠지지 말지며, 한쪽에 앉지 말지며 서매를 치들지 말지며, 텅텅한 음식을 입에 하지 말지며, 바르게 끓은것이 아

니면 먹지 말지며, 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지 말지며 눈으로 읊지 않은 빛을 보지 말지며 귀로는 읊란한 소리를 듣지 말지며, 밤이면 소경으로 하여금 詩를 외우게 하여 이것을 듣고 항상 바른일을 말할 지니라.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으며 얼굴과 모양이 단정하고 재조가 사람에게 뛰어나리라」한것을 보면 女性道도 포함하고 있다.

新羅의 国学에서도 儒敎思想을 中心으로 教育이 行하여졌다. “新羅統一 以後 20年뒤 이로부터 32年前 眞德王五年(2984年)에 博士, 助教, 약간명의 大舍(敎育을 맡은 管理) 2人을 두어 敎育을 行하게 했다.”^⑦

學語에 「예로부터 사람을 가르친 곳으로 家에 塾이 있었고 黨에는 痒이 있었고, 術에는 序가 있었고, 國에는 學이 있었다」하였으니 이것이 學校였다.

儒敎思想 敎育은 春秋, 禮記, 詩經, 書經, 易經 등을 通해서 했고 이 외에도 樂經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후 高麗時代에 와서 韓國은 完全히 儒敎思想의 依存期였다.

太祖 王建이 이나라를 세우고 13年후에 學校를 지었으니 高麗史에서 보면 「太祖 13年(3263年)에 西京에 거동하여 學校를 새로 짓고 이름난 선비 정악(廷鶚)을 命하여 書學博士를 삼고 學院을 따로 두어 六部 生도로 모아서 가르치며, 아울러 醫學, 卜術 두가지의 과정을 두었다」고 한다.

成宗11年(3325)에 國子監을 세우고 叡宗 4年(3442)에는 그內容을 크게 넓혀 麗澤待聘, 經德, 求仁, 服膺, 養正, 講芸의 七齋를 두어 文武敎育을 장려하고, 仁宗 때에 비로서 學制가 마련되었다. 國子監은 禮部에 屬하며 여기에 博士, 助敎授(經學에 밝고 學術이 높은 사람), 를 두었고, 學生은 文武官 三品以上의 高官의 아들 30名을 두었다. 敎育內容을 주역, 상서, 주례, 예가, 毛詩, 춘추, 좌씨전, 공양전, 곡량전, 효경, 논어, 율학, 서학, 산학, 등을 9년 수업하여 儒敎思想을 注入시켰다.

이 외에도 “大學과 四門學이 있다.”^⑧이는 國子監과 비슷하고 文武官 5品以上의 관리子弟를 가르쳤고, 四門學은 七品以上의 管理子弟를 가르쳤으며, 敎育內容은 律學, 書學, 敎學, 그외는 國子監과 비슷하다. 또한 高麗史 學校考에 보면 「仁宗 5年(3460年)에 여러 고을에 詔書를 내려 學校를 세우게하여 敎道를 넓힌다」고 하였으며, 「成宗11年(3325)에 勝地를 가리어 書齋를 널리 지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地方선비를 위하여 세운 鄉校이다. 여기에는 孔子를 위하는 文宣王廟를 中心으로 明倫堂이라는 곧 敎育을 베푸는 道場이 있었다.”

그리고 “高麗史 學校考에서 보듯이 高麗 元宗 2年(3594)에 東西學堂을 두고 別監을 두어 가르치게 했으

며 또 五部學堂을 세워 儒學을 떨치게 했다.”^⑨ 이와에 地方鄉校에 向한 敎育으로 12徒가 있었다. 이는 高麗의 「敎育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私立學校이다.

書堂은 一般民衆의 敎育機關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局堂이고 三國時代는 물론 統一新羅時代를 거쳐 高麗에 이르는 동안에 그 敎育的 質, 量과 그 수요에 있어서 大衆敎育機關의 地位를 꾸준히 유지해 왔음은 송나라 徐兢이 지은 高麗圖經에 「마을거리마다 經館과 書社(書堂)가 두셋씩 바라보이며 士家들기전에 一般民 門下子弟들이 여기에 모여 스승에게 經을 배우며 좀 장성하면 저희들끼리 동무를 가려서 절간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卒兵이나 아주 어린애까지도 역시 鄉先生에게 나아가서 배운다.”^⑩ 고 하였고, 書堂은 역시 李朝時代에 들어가서 더욱 빛을 내었다.

朝鮮王朝은 儒學을 바탕으로 하여 建國한다고 표방하고 高麗까지의 佛敎로 인한 퇴폐풍조를 改革한다고 公約하였다.

나라수립을 공포함과 同時에 새나라 첫임금 太祖는 成均館을 세웠다. 이는 孔子등 聖賢을 모시는 聖殿(大成殿)을 校庭의 前域에 建立하고 그 뒷편에 校舍 明倫堂을 造營하였다. 太祖가 서울로 수도를 옮기면서 옮겨진 成均館이 오늘에 이르는데 이는 “高麗朝의 모방된 敎育制度를 그대로 인계 답습한 면이 많았다. 儒敎道德에 젖은 양반관료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敎育도 주로 양반자제를 대상으로하여 관리양성에 주목적이 있었고 학교는 과거시험을 위한 기관에 불과하였다.

成均館은 大學의 機能을 가진 最高學部로서 임금이 스스로 관여하여 國費로서 國家의 人材養成을 目的으로 한 敎育機關이었다. 따라서 成均館 儒生들에게는 文科를 비롯하여 各種 試驗에 應試할 機會를 많이 주는 特典이 부여되었다.

成均館의 入學資格은 進士와 生員의 資格을 가진 儒生들이었고 缺員이 있을때는 四學의 學生중에서 선발하였다. 學科는 역시 中國古典으로 構成되었고 敎授方法은 個別指導에 치중하였다. 學生生活는 禮法과 規律과 自治精神을 지닌 선비의 道를 닦는데 힘썼다.

四學도 역시 田費로 運營되었고 成均館에 豫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規模는 적었으나 그 敎育方針에는 差異點이 별로 없었다. 四學은 中等敎育程度의 敎育機關으로서 서울에 設立되었고, 그 位置에 따라 각기 東學, 西學, 南學, 中學이라 하였다. 學生의 자격은 양반자제와 민간인중 수재를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했다. 이 四學은 廢度을 보지 못하고 李朝末葉에 와서는 學生定員 미달로 부진한 상태였다.

書院은 私立의 中等敎育機關이다. 私學機關인 書院도 國王의 큰 關心事가 되어 장려되었다는 사실은 注目할만 하다.

「先賢傳敬과 後進獎學」을 目的으로한 書院은 官學에서 받는 規制없이 自由스러운 風土에서 名儒功臣의 有德을 추모하는 同時에 靑年子弟들에게 學門과 德을 담게하는 修道場의 機能을 가진 點에서 官學보다는 도리어 우월한 點이 있다. 그러나 書院의 積弊와 派閥對立은 非難의 對象이 되어 마침내 代院군에 의하여 폐 쇄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書堂은 初等敎育程度의 私塾이었다. 書堂의 敎育的 意味는 特히 庶民子弟들에게 敎育의 機會를 주었다는 點에 있다. 一般庶民에게 널리 敎育機會를 준점은 國民敎育의 重要한 役割을 맡고 있음을 말해준다. 書堂은 學校라고 부르기에는 미약한 存在이었으나 그만큼 設立이 용이하였고 자유자재로 운영할수 있었다. 운영을 위한 基本財産이나 훈장의 一定基準이 없었으므로 漢文을 解得하는 사람이면 訓長에 任할수 있었고 누구나 뜻을 가진 사람이면 방 한칸의 준비로서 書堂이 開設되었고, 이같이 庶民敎育機關으로서의 書堂은 순수 民間人에 의해서 設立 운영되어 그 보급이 村落까지 미치게 되었다. 書堂은 네 종류가 있었는데 “訓長 自身이 生計를 위해서나 또는 취미로 自營하는 書堂, 또는 洞內 有志가 訓長의 給料를 自撥하여 自己子弟와 親知의 子弟를 敎育하는 獨自으로 運營하는 書堂, 또는 有志들이 組合을 이루어 訓長을 초빙하여 그들이 子弟를 敎育하는 書堂, 村組合書堂으로서 마을전체가 組合하여 一般子弟를 敎育하는 書堂등이 있다.”^⑩

書堂敎育의 目的은 鄉校나 四學堂 上級學校에 進學할수있는 준비敎育을 시키는 點이었고 실제로도 지방에 거주하는 靑少年들에게 儒學入門을 위한 效果를 많이 보았다. “學科目으로는 千字文으로 시작하여 童蒙先習, 通鑑, 小學, 四書, 三經, 등으로 나아갔고, 敎育方法으로는 注入式을 버리고 연구력을 배양하며, 엄격한 規程을 지켜 끈기있는 노력을 하고 心身을 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⑪

2) 建築文化面에서

① 韓國固有의 建築文化

가 家屋形態의 校舍

「學校」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塾」(지금의 校舍)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固有한 韓屋이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廟堂, 書堂, 書院, 鄉校 등이 그러한 韓屋이었다.

이러한 固有한 韓屋은 韓國의 固有한 自然環境 및 國民의 特殊한 建築藝術性에 依해서 形成되었다.

(7. 韓國의 自然環境

우리나라는 數理的 位置에서 보면 동경 124° ~ 132° 사이와 북위 33° 와 43° 사이에 있다. 地理的 位置에서 보면 亞世亞大陸 東部에서 東海와 황해사이에 南北으로 길게 뻗은 半島國이다.

우리나라는 서북쪽으로는 中國이 있고 東南쪽으로는 日本이 있다.

주요산맥과 하천 그리고 하천연안의 평지들이 대개 北東~南西方向, 東西方向 혹은 이에 가까운 方向으로 뻗고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北東~南西方向과 北西~南東方向의 두方向 이들各各 中國方向, 韓國方向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地形에는 이러한 特殊한 方向의 절리 단층성 내지 구조선이 發達하여 하천의 연장이나 평지의 발달을 유도했고 따라서 산지도 그런식으로 발달된 곳이 많다.

韓半島의 서안과 남안에는 경동지역의 완사면 발달을 따라 구릉성의 침식평지들이 비교적 넓게 發達하였다. 동해안에는 평지발달이 미약하다. 그런데 침식평지가 내륙으로 들어감에 따라 규모가 작아지고 극단적으로는 산록완사면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런 지형이 풍화가 잘되는 화강암 지역에서 발달된 경우에는 내륙지방에도 비교적 넓은 평지가 형성된다.

그런 침식평지등의 고도가 내륙으로 들어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점이다. (강원도에는 그 고도가 400 ~ 500m에서 600~700m 까지 나타나 있는 곳도 있다.

내륙에 발달된 침식평지가 하천방향을 따라 연속 혹은 단속되면서 이어져 있고 그것은 지질구조상의 반도 지대에서 특히 현저하게 모든 침식평지는 중국방향으로 發達 연장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평지는 거의가 침식으로된 침식평지이며 퇴적으로된 선상지나 삼각주의 발달은 미약한점이 특색이다.

한반도 서안과 남안에는 경동지형 완사면의 산형과 곡지들이 물에 잠겨 형성된 갭갭 만입 도서들이 발달하여 종래는 침강해안으로 불리워왔다. 그리고 삼남 이북과 삼남 이남을 비교하면 삼남 이남의 해안선에 그런 특색이 잘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에는 종래 용기해안, 소규모의 해안선 출입, 북부해안의 석호는 갭갭에서 뻗은 사취가 바다를 둘러싸서 형성된 것이 강원도 남부해안에서 보는 절벽모양의 암석해안과 낮은분지 모양으로된 낮은지역의 해안이 교대되면서 나타나는 것등을 보아 동해안에도 원래에는 조그만 포만들이 있었음을 알수있다.

수심으로 볼때 황해와 남해는 깊이가 거의 80m 이내의 천해로써 깊은 곳이라야 겨우 100m 정도이다. 그러나 東海는 깊이가 거의 1000m 이상이고 북쪽깊은 곳의 평균 수심은 3500m에 달하였다.

황해와 남해는 전형적인 대륙풍을 이루어 육지편에서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 함몰된 분상 분지모양의 바다인 東海는 해안근방에서 2000m 内外의 수심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한편 황해와 南海는 바다가 얕아서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그리고 황해안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여 인천 앞바다에서는 그차가 보통 9m에 달한다. 이와같이 심한 조석 간만의 차로 조류도 급하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대부분에서는 시속 10km를 넘는다. 그리고 황해에는 육지에서 운반된 많은 진흙때문에 바닷물이 몹시 흐르고 썰물 때에는 대부분의 해안이 수 km에 걸쳐 진흙으로 덮인 갯벌을 이룬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이러한 特色은 양식업이나 염전 축조 간척사업 등에 유리하다. 그러나 항구나 수상교통의 발달에는 불리하다. 한편 조석간만의 차가없는 바다로 알려진 東海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0.3m 정도에 불과하고 조류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흰모래가 아름답게 깔려 있어 황해안과 남해안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바닷물도 맑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색은 겨울에 심한 저온과 삼한사온이 있다. 제주도의 1월 평균기온차는 동일위도 지역의 1월 평균기온치보다 10.2℃ 낮고, 또 신의주의 1월 평균기온치도 동일위도 지역의 1월 평균기온치보다 10℃ 이상이 낮다. 겨울의 평안도 함경도 북부간의 최저기온은 -30℃ 에서 -40℃ 내외에 달하고 서울 부산의 연간 최저 기온도 각각 -15℃, -5℃ 이하로 내려가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 주변의 1월 기압배치를 보면 서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뻗어와 있고 太平洋쪽으로는 저압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日本 北部에는 저기압도 발달하고 있다. 몽고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가장 성할 무렵에는 1060~1080mb 에 달하여 저기압과의 사이에 심한 기압경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동반부를 이루고 있는 大氣는 極地方의 한랭大氣가 南下한 것으로서 極度로 냉각되어 있으므로 우심한 기압경도를 나타내는 原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몹시 더워 7월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평균기온이 25℃ 내외를 나타내고, 또 함경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걸쳐 30℃ 내외의 高温이 여러날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年平均 강수량 분포를 보면 함경도 일대와 같이 500~600mm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강수량은 1000mm 이상이다.

봄이 되면 약화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여 동진하다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한랭한 오호츠크해상에서 정지되어 중위도 고기압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이 고온이고 겨울이 저온인 만큼 자연 기온의 연교차가 현저하여 연기온교차가 20℃ 이상되는곳이 우리나라에서는 허다하다 고로 대륙성기

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온대에 속하며 사철의 계절변화가 뚜렷하지만 해양적이기 보다는 대륙적인 性質을 띄어 봄, 가을은 짧고, 여름과 겨울이 무척 길다. 南쪽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기간이 각각 10월말에서 3월말, 11월말에서 3월 상순이다. 북쪽에서는 더욱 길어 각각 9월말에서 4월말, 10월초에서 4월말에 걸쳐 얼음이 언다. 中部 以北에서는 겨울에는 강도언다. 한강의 동결기간은 12월하순에서 2월하순, 압록강, 두만강의 동결 기간은 12월상순에서 3월하순에 걸친다.

봄과 가을은 몬순이 교대하는 時期이기 때문에 기압의 變遷이 일정치 않아 풍향에 變化가 많다. 또한 봄에 볼수있는 황사현상은 몽고지방에서 한랭전선의 통과에서 불려 올려진 대단히 작은 모래들이 상공의 편서풍에 날려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토양은 갈색 삼림토와 적색토가 그 특징이고 유기성분이 적은 산성 토양이며 주요한 광물로는 금, 철, 석탄, 중석, 흑연, 물리보덴, 마그네사이트, 구리, 아연, 운모, 형석, 석회석, 고령토등이다.

㉑ 韓國의 建築藝術의 特性

우리나라는 開國을 하는때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나 「山」을 中心으로 이루어 졌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런산을 위하는 생각이 더 적극적이어서 한마을의 뒷산, 한고을의 큰산, 한나라의 중심되는 산을 鎮山으로 받드는 制度가 一般化 되었다.”^㉑ 그리고 “이들 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받들려 하였다.”^㉒ 큰산 그중에도 白頭山, 金剛山, 智異山, 漢拏山등의 명산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영험이 서리어 있고 하느님의 섭리가 神에게 접근 할수있는 道場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가령 가름에 비를 빌기 위하여 산에가고 아들을 낳고 싶어도 산에가고 임금이 되고 싶어도 산에가서 빌었다.^㉓

精神的으로는 산과 가까이 있고 (하느님) 實際로 建築藝術에서 보면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순수한 人間性 특히 平等性에 根據한다. (초가집의 경우).

原始時代를 보면 東西洋이 비슷한 建築構造를 가진 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당시 서로 交通하여 文化傳播에서 온것은 아니다. 이는 人間순수성과 自然에서부터 保護하고자 하는 人間의 共通性임을 알수있다. 따라서 그후에 (東西洋마찬가지) 나타난 宗教的, 政治的인 社會上的 絶對性으로 建築된 그文化는 韓國的이 아닌 것이다. 申榮勳에 의하다면 순수한 한국건축문화를 지금 찾을수는 없으나 한옥은 분명히 中國式의 建築物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㉔

우리나라는 嶺넘어 한마을, 굽이진 개울따라 감돌아 들면 또 한마을 개울 건너 개를 넘으면 또 한마을이 있는 그런 山川에 나라로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들

은 비옥하고 기름지며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의 나라이다. 삼면이 바다이어서 섬나라와 다르고 대륙만이 아니어서 오밀조밀 할수있는 그런 律動을 지닌 고장이다. 이 律動은 韓族의 特性을 함양하였고 그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基調가 되었다.”^⑩ 또한 “간결하고 質朴한 것을 으뜸으로 치던 山谷間人의 性品은 建築에 平靜하고 온화한 氣品이 서리기를 요구하게 되어 이것이 역대 건축의 근본이 되었다.”^⑪

“같은 여건의 自然과 人文에서 함양된 人格에는 共通性이 존재하며 이 共通性에서 지질로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 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건축의 法式, 樣式技法이라고 부른다.”^⑫

그리고 집은 形成되는 空間에서 부터 비롯된다. 空間形成의 方式은 달려도 똑같은 意味를 갖는 空間이 南쪽이나 北쪽의 전혀 交流가 없는 民族間에 생길수있음은 人間의 순수한 五官과 表現이 同一하기 때문이다.

나. 韓國의 特性

(가) 第1期

韓屋의 第1期는 有史以來부터 新羅 武烈王때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原始建築이 社會發展에 따라 國內外的 여건에 자극되어서 文化建築으로써 발돋움하고 그것이 기틀을 잡아 한옥의 형상을 결정하는 진동기를 지나던 때이다.

그리고 韓半島와 滿洲地方에 걸쳐 영토를 가졌던 高句麗와 百濟 新羅의 세 나라가 鼎立하던 時期이고 黑海地方과의 연락, 中國을 거쳐 들어오는 文化가 建築技術을 광복하게 發展시킨 時期이며 佛敎라는 새로운 宗敎를 포용하기에 필요한 집이 활발하게 지어져 建築經濟社會를 크게 振作시킨 時代이다. 그리고 建築構成에 必要한 數學이 中國에서 도입된 時期이기도 하다. 周髀算經이라는 漢나라의 數學冊에 開平3分敎, 重差, 圓周率3 등을 計算하는 公式이 실렸고 「九章算術」에서는 面積, 分敎, 公約數, 步合, 比例, 開法, 聯立方程式, 商工, 均輪등이 정리되었다. 이런 數理는 일찍부터 채택되양 建築造營의 基本으로 삼아졌다. 집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尺度로 정리되어 高麗尺이라고 불리우는 尺(자)이 大小로 마련되어 집짓는 마름질에 쓰였다.

이 時期에는 自然에서 얻어지는 材料 말고 사람들이 加工한 材料가 채용되게 되었고 그 加工의 技術이 發達되어 多量生産이 可能하게 되었다. 特히 기와를 만들고 전돌굽고 큰돌을 깨뜨리고 운반하여 다듬는 기술이 능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自然에서 얻어지는 1次 材料 自然物을 加工하는 2次 材料, 自然物로 助成하는 3次 材料가 모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美觀에 따른 다듬는 솜씨도

發達하였고 각기의 치장에 概念을 부여할줄 알게되었다. 이로써 건축의 모든 基盤이 구축되었고 人知發達에 따른 훈련된 有能한 建築家들이 충분히 輩出되어 모든 建築物을 다룰수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時代의 公共建築物은 宮殿을 中心으로 하여 展開된다. 조가의 君主는 司祭를 겸하였으므로 宮殿과 寺社는 동시에 발전하였다. 이들 宮殿은 初期의 段階를 벗어나며 벌써 제법 격식을 갖추는 가와집으로 지어졌다.

이時期의 建築樣式은 “공포의 모양”이다.

공포는 기둥위에 놓여 지붕을 바치는 모든것을 떠받들도록 만들어진 組織을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기둥이 바로 대들보를 떠받치도록 집에는 공포가 있을수 없다. 이는 공포가 없는 집으로 無拱牙系라고 부른다. 拱牙는 공포라는 말이다.

(나) 第2期

이때는 新羅 文武王에서 부터 高麗元宗까지의 時期이다.

이때에 百濟式 建築의 法式과 技法을 익힌 阿非知 등이 新羅와 日本에 파견되어 百濟式의 집을 서슴없이 지었다는 事實에서 첫째 百濟式建築이 新羅나 倭國에 받아들일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값을 지니고 있었다. 두째 阿非知等 建築家에 依하여 設計된 巨大한 建築들이 無難히 세워질수 있을만한 建築社會가 新羅에 形成되어 있었다는 事實이다.

新羅는 阿非知 한 사람의 設計만이 所用되었다. 나머지 小匠 200여명이 處理할 能力을 가졌다. 倭는 그 령지 못하여 寺博士, 瓦博士등이 가서 法隆寺의 경우 네사람의 大木이 合心하여 겨우 집을 이룰수 있었을 정도이다. 이미 倭에는 百濟의 留民들이 많아서 雜役 이외의 役事엔 百濟人들이 대거 참여 하였을 可能性이 있고 百濟에서 실고간 物資가 많은 量에 憵망되었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직 建築社會가 發達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할수 있다.

特히 注目되는 것은 第2期는 完塾期라는 點에 있다. 同時에 政情의 不安으로 야기된 後三國, 高麗의 統一 등 격변하는 社會, 權臣들의 난무로 어지럽혀진 社會로 인하여 차분한 建築社會가 이룩되지 못하였고 建築經濟社會 역시 좋지 못하여 建築活動이 위축되고만 쇠퇴이거기도 하다.

(다) 第3期

이때는 高麗 忠烈王에서 부터 朝鮮朝壬辰倭亂때 까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第2期까지 공포樣式에 主流를 이루어 오던 拱牙系가 중대한 挑戰을 받게되고 마침내 새로운 공포

포의 構成法이 完成되어 처음엔 第2期까지의 拱牙系와 並存하는 듯 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새로운 공포양식이 建築의 과반수를 占有하게 되고 마침내 主流를 차지하고 가는 격동기가 이 才3期の 前半을 차지한다. 공포가 많이 놓이게 되는데는 그만큼 까닭이 있었을 것 같다. 極히 推論的이나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기둥위에만 공포를 구성하는 것이 위태롭게 보이게 되었고, 사람이 많아지고 建築의 절대량이 증가하였으므로 良材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다. 사람의 생각이 번다스러워져 화려하게 꾸미려는

기후에 맞지 않는 지역에서 그것에 적용되도록 변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공포의 구성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발생적인 양식이 아니고 다분히 北邊계통에서 도입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高而 權臣들의 建築活動 및 朝鮮王朝의 山間建築의 조장은 두가지 큰 特徵을 지니게 되었다. 우선 權臣들은 大部分 武人들이 中心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建築柱가 갖추어야 할 民識을 충분히 갖고있지 못하였으므로 寺僧에게 그일을 위촉하는 경향이 짙게 되었다. 둘째로 抑佛政策이라는 표방 아래 절을 지어야 하였으므로 自然 王室이 表面에 나서서 知識人을 총동원하여 절 짓는 일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 寺僧에게 鳩財를 회사하여 절을 이룩하도록 일임하는데 고작이었다. 세계로 스님중 큰 스님들은 海外留學 등으로 國際的인 흐름에 민감하였다. 法紋 등의 細帶로 계속 국제적인 交流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여서 절에 여러가지 그런 요소들을 지닌 文物이 머물게 되었다. 비해서 護國頤利的인 態度는 계속 堅持되었다.

第3期는 建築思想 가장 격동기에 屬하고 建築家들의 최대의 노력이 허용되었던 기간으로 특징지어진다. 第2期까지의 선명하던 흐름이 多岐化되고 끊임없는 試驗이 여기 저기에서 試圖되어 建築活動의 內容이 풍부하여졌다. 그러나 定型이 확립되지 못하여 비록 多包系가 主流를 이루긴 하였어도 꾸준히 挑戰을 받았고 여러 무책임한 시도로 혼란이 생겨 마침내 第4期에서 일어나게 되는 退調의 함정이 여기서 마련되게 되었다.

② 第4期

이때는 朝鮮 宣祖25年(1592)에 始作된 7年間の 壬辰倭辭은 建築社會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酷毒한 戰爭이었다. 都城을 비롯한 全國의 重要建物들이 무너지거나 깨어졌고 建築造營을 뒷받침하던 經濟社會가 붕괴되고 말았다. 戰爭物資의 조달, 후원 외국군의 조달 등으로 經濟는 最惡의 상태에 이르렀고, 막대한 人力의 손실, 기능자의 死傷, 혹은 납치 등으로 建築社會는 前代未聞의 궁지에 몰렸다. 따라서 第4期 初半까

지만 해도 堅持되던 建築의 法式이 재멋대로되어 意匠이나 比例, 架構에 헛점이 많게 되고 공포구성에서도 소화시킬수 없는 高等數理의 應用部分에서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번잡하게 龍頭鳳頭를 조각하여 끼우는 살짝꿈의 재주를 부렸다. 그결과로 第3期에서 생긴 공포구성의 혼란이 한층더 복잡하여져 이집이 多包系인지 拱牙系인지 翼工系인지 또는 절당면 어떤 式인지를 단군에 구별할수 없도록 되고 말았다.

2. 韓國 學校建築의 實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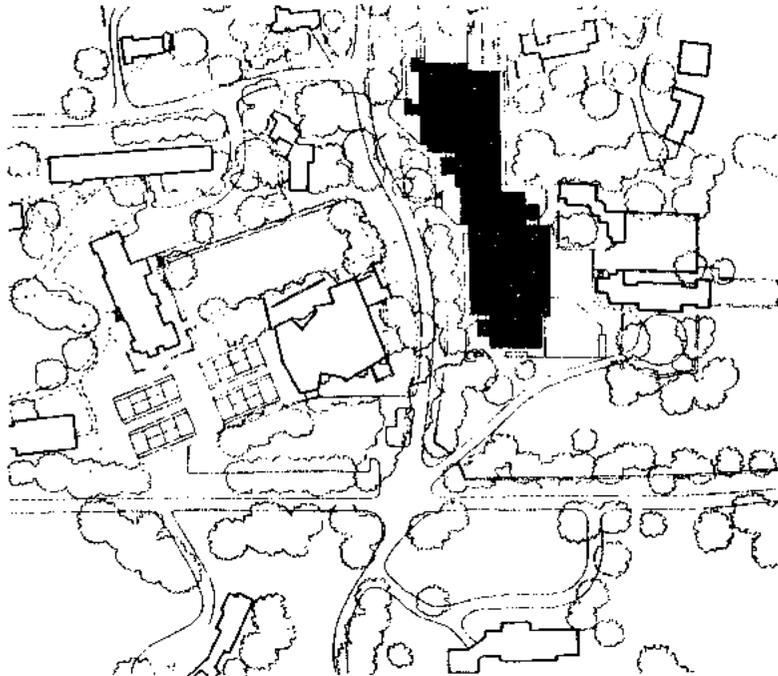
앞에서 보아왔듯이 순수한 民間人에 依하여 設立한 大衆教育機關인 局堂, 鄉校, 書院, 書堂 등은 순수한 韓屋이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官學의 경우에는 그 設立目的이 教育內容에서 보듯이 中國(唐)에서부터 儒敎, 佛敎思想을 注入시키고자 그리고 孔子 및 十哲과 72第丁像을 모시기 위한 建物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특히 韓屋史에서 보았듯이 建築文化가 中國樣式을 닮았는 것이다.

그래서 新羅時代 神文王이 國學을 열어 그러한 '사람'들을 모실수있는 집을 지었던 것이고 동시에 高而에서는 國子監이라하여 會賓門內에 敎舍를 마련하고 構內에 學生들의 寄宿舍를 마련하여 공부를 하게하였고 孔子의 安置場인 宣聖殿을 지었던 것이다.

그후 朝鮮朝에 와서 儒學을 建國의 바탕으로 하였을 때 成均館은 東崇敎場에다 國初에 高麗때의 方式에 따라 지었다. 이러한 중국 사신 金龜이 잡았는데 그는 風水의 지식이 깊어 날로 학문이 번창할 자리를 골랐다 한다.

- Erika Brodner, Immanuel Kroeker. Schulbauten. München; Verlag Hermann Rinn, 1971. P~11
- Malcolm Seabome. Primary School Desig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1
- ①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P~373
- ② The Korean Repository. Vol. 1. No. 3. 1882. P89~93
- ③ 朴俊熙, 韓國人の 教育觀. 서울; 實學社, 1975. 54~68面
- ④ 朴相萬, 韓國教育思想史(上).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4291~23面
- ⑤ 上揭書, 27~28面
- ⑥ 海東雜史. 卷18. 學禮中
- ⑦ 三國史記 學記中
- ⑧ 朴相萬 76面
- ⑨ 上揭書 117面
- ⑩ 上揭書 118面
- ⑪ 上揭書 121面
- ⑫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서울; 現代교육총서출판사, 1964. 23面
- ⑬ 上揭書
- ⑭ 李萬桂, 朝鮮教育史(上). 서울; 을유문화사, 1947. 256~258面
- ⑮ 崔南善(申榮勳 國諱). 不成文化論. 民學 第2輯에 실림.
- ⑯ 三國征記 卷32 雜志工. 史
- ⑰ 申榮勳, 韓屋과 그歷史. 서울; 東美文化社, 1975. 14面
- ⑱ 上揭書 17面
- ⑲ 上揭書 124面
- ⑳ 上揭書
- ㉑ 上揭書
- ㉒ 上揭書. 141~181面

集積된 空間의 解決과 MODULAR計劃에의 接近



李 鶴 榮
成均館 大學校

大學의 建物이 永久的인 長期計劃에 依하여 設立된 다면, 各 空間의 構成方法 및 環境施設이 甚 艱難으로 計劃 되어야 하며, 이러한 空間은 大學外의 日常生活에 比하여 좀더 價値가 있는 場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空間計劃은 教科課程이 提示하는 要求의 充足과 大學內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간의 解決 및 傳統의 反映과 未來의 發展性을 暗示하는 곳이다.

주어진 自然條件과 現存의 環境이 어떻게 하여 物理的 要素들에게 接近되며 解決될 수 있는가?

위의 질문과 解答에 對한 定立을 위하여 S. Lawrence 大學의 Library-Instruction Center의 Projector 가 유도하는 計劃過程을 紹介합니다.

Sarah Lawrence 大學은 뉴욕 北方의 15마일에 位置한 寄宿制度의 女子單科大學인데, 1968年 登錄當時 學生數가 約 260名에 달했다.

앤듀류 事務所는 1967年 9월에 本 大學의 圖書館 및 教育센터를 設計 하도록 위탁받았다.

本 計劃案이 敷地條件에 對한 研究와 實施設計를 通하여 進展되었지만, 最近에 大學當局으로 부터 設計와 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中斷된바 있다.

* CAMPUS PLANNING AND DESIGN P. 63~P. 64
(Edited by Mildred F. schmertz, A. I. A.)

다음 事項은 本 計劃을 發展시켜 나간 앤듀류 事務所에 依하여 論理的인 說明을 記述하고있다.

提示된 資料는 250,000권의 장서를 收容하는 圖書館, 小規模의 教育用 教室, 教學實驗室, 畫室 및 175 석을 갖는 小講堂을 包含하는 3層 程度의 建物로서 總面積 140,000平方英尺 규모인데, Project Group는 Robert Anderson과 Tony Parson이다.

■ SITE의 條件

S. Lawrence 大學은 大部分의 主要建物이 規模가 작은 石造 및 벽돌조로 되었으며 住居地域에 位置하고 있다.

新築 예정지는 限定된 地域으로서 樹木이 울창하고, 만한한 경사지이다.

周圍의 景觀을 維持하기 위하여 不能한限 規模를 작게하는것이 有利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構造를 解決하는데 主要 影響을 미친것은 平均 地盤 높이에서 35英尺 程度의 限定된 높이였으며, Setback의 要求, Program의 要求事項들은 本 建物이 3層으로 設立될 計劃으로 예상되었고, 建物의 어느層은 前

面道路에서 부터 후면으로 進入하도록 되어야만 했다. 또한 地形的 變化에 따라서 외부의 마감재로는 벽돌 및 유리製品이 使用되었다.

이 建物은 變化와 調和가 있고, 諸搬要求事項, 個人의 Privacy, 採光의 調整등 各種 條件을 解決하기 위하여 Glass Block가 要素에 必要하게 되었다.



■ PROGRAM의 要求事項

大學當局으로 부터 發表된 基本條件은 일련의 伸縮性과 무리없이 연결된 教育場所를 要求했다.

各 空間은 個人의 成長, 學科內의 變動事項, 合班의 可能性, 相異한 科目사이의 밀접한 關聯性, 장래에 開發될 可能이 있는 새로운 分野등을 위한 考慮가 必要했다.

根本的으로 大學當局은 一般의인 教育場에 있어서 伸縮性이 必要함을 強調했으며, Program에 있어서 長期間 必要로 하는 것과 大學, 敎職員, 學生의 三者間에 直接的인 必要性을 수행하는데 要求되는 空間의 범주를 규명하는 것이 絶對적으로 필요함을 申明했다.

1. 一般空間: Program에 의한 융통성 있는 教育場所의 提供
2. 特別空間: 圖書館, 敎務室 및 特別한 使用이 예측되는 小規模의 特殊한 用途의 諸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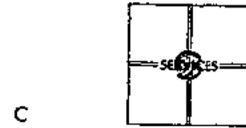
■ 計劃上的 論理: 基本CELL**

平面上의 初期着想은 일반적이고 可變性있는 일단의 면적을 갖는 것이며, 그것은 基本的이고 伸縮性 있는 Cell 「A」와 같은 未分割된 正方形의 SPACE에서 始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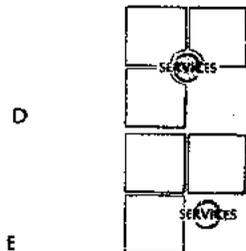
이러한 SPACE 機械設備, 階段室, 實驗室과 같은 共用面積을 必要로 하며, 中央에 이러한 共用施設을 놓으므로써 機械設備의 運行 및 순환로를 줄일수 있었다.



構造的으로는 그러한 SPACE를 形成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方法으로 「C」와 같이 四個의 Bay로 分割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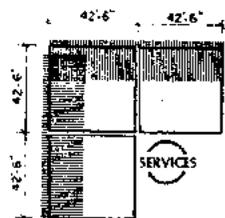
中央의 코아로 부터 共用部分을 擴張할수 있는 可能性을 提供하고, 直通步行路를 만들기 위하여 「C」에서 1個의 Bay가 떨어져 나왔으며, Service Space 「E」와 같이 떨어져 나왔다.



Cell의 單位와 Cell內에 포함된 Bay는 다음과 같은 여러 要因에 依하여 決定되었다.

1. 非常通路의 最大길이는 地方消防法에 따랐음.
2. 가장 經濟的이고 便利한 構造計剛 45휘트의 Bay에 있어서 Span의 크기는 단면의 보와 高價인 장변의 보를 利用하는데 있어서 經濟的으로 有利한 方向으로 接近됨.
3. 規格화된 間壁의 寸수와 家具類는 實驗設備에도 적용시킴.

以上과 같은 要因에 따라서, 機械室 Duct나 照明計剛 및 칸막이를 設計하나 基本 Module로서 2.5平方인치를 使用하고 基本 Cell은 42.5平方휘트內에서 3個의 Bay를 한 區劃으로 決定했다.



높이의 制限은 강제-즉 鐵骨에 있어서 보(梁) 種類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構造의 集合과 設備施設을 決定하는 일이 最終 課題였다.

** 組織을 形成하는 基本單位인 세포, shell과 發音上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CEU를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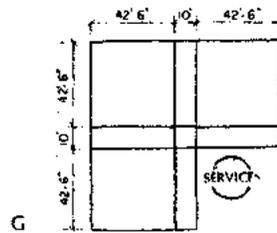
*** 隔間으로 解析되나 원음과 廣意를 살리기 위하여 BAY로 使用함.

장선들 사이에 있어서 빈 공간은 各種設備가 아무 장애 없이 Bay를 통하여 들어오고 보에 대하여 直角으로 굽혀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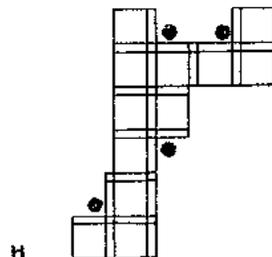
Cell사이에 機械設備의 稼動을 調節하고 共用面積에서 各 1x1의 Bay까지 10회트中的 公用통로가 各 Bay사이에 「G」와 같이 追加되었다.

共用通路는 構造報酬이나 設備計劃에 있어서 有用할 뿐만아니라, 兩面의 各層에 適用된다. 平

한 1x1內에서 3個의 Bay는 基本單位의 面積이며, 共用面積은 伸縮性이 있고 必要에 따라서 分割할수 있게했다.



3個의 Bay와 共用通路 및 Service Core를 갖는 基本 Cell은 또 다른 Cell에 接合되어 「H」와 같이 組合될 수 있다.



Bay에 따라서는 2個의 Open Side를 가지며, 그것은 特別한 空間을 提供할 뿐만아니라 屋内外의 通路는 다른 Cell의 Bay와 連結을 不能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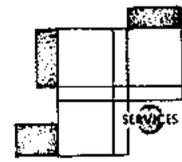
各 Cell의 Bay는 同時擴張과 使用者의 增加를 考慮했다

이러한 論理가 S. Lawrence大學에서 일반적이며, 또한 伸縮性있는 Space를 提供하기 위하여 基本的인 發展段階로 利用된 것이다.

Space에 對한 두번째 카테고리인 特別空間은 一般空間中的 한쪽이 열려진쪽에서 接近시켜 갈수 있다.

特別 空間이란 實驗을 위한 확장이 子想되는 房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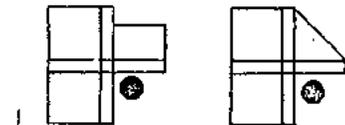
大型의 조각품을 작업 하기위한 永久的인 칸막이 들로서 작은 Space가 「I」와 같이 접촉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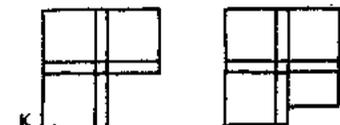
작은 特別空間들은 基本 Cell의 一般空間으로 充足될수 없는 特殊한 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施設후에 몇년내에 다시 옮겨가는 것이 예측되는 장소인 것이다.

永久的인 特別空間이란 特別한 要求條件이나 伸縮性이 必要없는 構造이나 보이러室과 같은 용도에 쓰이는 것이다.

만일 敷地內에 있는 壙地 및 境界上의 여건때문에 Module Scale을 적용하는 것이 不可能하면 基本Cell은 修正되던가, 아니면 몇개 혹은 모든 Bay가 보 Span에 對하여 水平으로 줄어진 Module의 分割에 따라 隔間이 「J」와 같이 줄어들어야만 했다.



한개의 Cell이 共用이나 設備部分이 必要하지 않던가 극히 使用빈도가 적을 경우에는 그러한 공용시설은 무시할 수 있었다.



基本Cell은 共用部分에 있어서 添加, 分割, 혹은 變形되며, 伸縮性있는 空間을 提供하는데 있어서는 넓은 意味로 變化와 擴張을 內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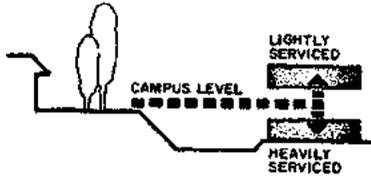
CELL의 配置

北쪽으로 向한 大學建物の 높이는 地形의 變化에 따라 성지한 平均地盤 보다 約12회트 높은 位置에 있다.

新築에 정지는 大部分이 頂上의 몇 인치가 硬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土木工事費가 극히 비싸게 소요된다는 結論이 내려졌다.

이러한 高低差異로 因하여 大學의 動線이 멀어지거나, Level差에 依한 建築이 不可避했다.

實驗室에 들어가는 施設인 機械, 電氣, 配管連結等 重量을 要하는 시설은 平均 Level보다 아래쪽에 計劃된바, 즉 1층에 生物學, 醫學 및 化學實驗室 등으로 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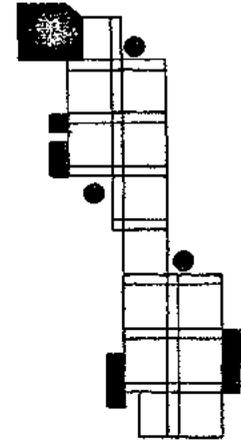
用되도록 하였다.

中央의 準備室과 動物격리실이 보이랴실이나 전기실과 마찬가지로 特殊한 方法으로 計劃되었다.

垜地의 西쪽에 있는 경암으로 한개의 Bay가 줄어들어 있었으며, 줄어진 Bay는 주변의 陵線과 自然에 對하여 더욱 調和를 이루었다.

가벼운 設備과 暖房, 照明을 恒常 必要로 하는 空間 순수회화나 심리학 실험을 提供하는 場所는 上部層에 設置되었다. 이러한 配置計劃은 自然的인 採光이 兩室에 利用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考慮된 것이다.

Library-Instruction Center인 本計劃은 各室에 對하여 共用面積이 包含된 小規模의 特殊空間과 연결되어 「M」과 같이 서로 接속된 可變性있는 3 個의 Cell을 한 區劃으로 하여 構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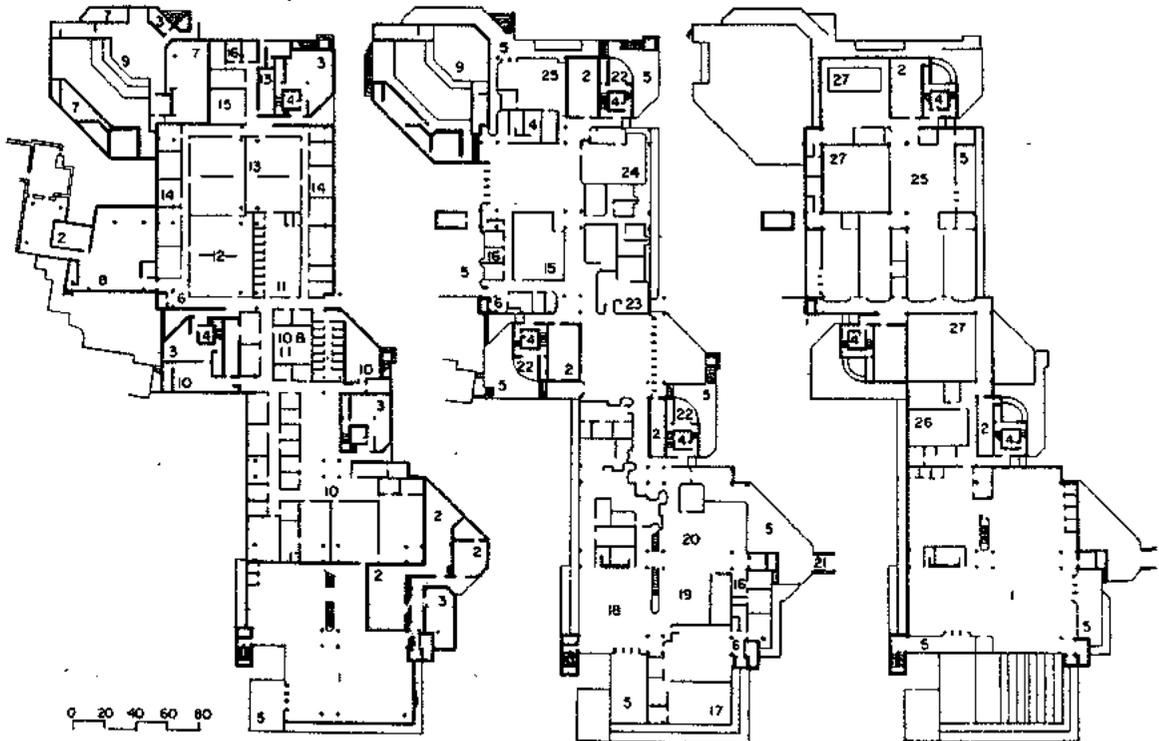
M

講堂과 같은 큰 규모의 特殊한 場所나 科學準備室과 같은 小規模의 特別室은 機能에 따라서 Cell에 添加되어 왔으며 이러한 特別室들은 장차 迫加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共用設備를 갖지 않고 3 個의 Bay를 갖는 Cell은 圖書館과 書庫에 적합하도록 連結되었으며, 共用部分을 包含하여 4 個의 Bay로 構成되었다.

새로운 建物を 計劃하는데 있어서 Cell의 特殊한 構成Cell의 數量, Cell의 變形들이 動線, 垜地, Program 및 地方法이 要求하는 바에 따라서 變形되고 發展되어 가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 1 Library
- 2 Mechanical
- 3 Storage
- 4 Washrooms
- 5 Terrace
- 6 Elevator
- 7 Unexcavated
- 8 Shops
- 9 Auditorium
- 10 Biology
- 11 Psychology
- 12 Chemistry
- 13 Physics
- 14 Research
- 15 Classroom
- 16 Faculty
- 17 Tech. services
- 18 Periodicals
- 19 Catalogue
- 20 Reference
- 21 Bridge
- 22 Lounge
- 23 Teaching Museum
- 24 Exhibition
- 25 Visual Arts
- 26 Psychology
- 27 Open to below



HEAVILY SERVICED LEVEL (LOWER FLOOR)

CAMPUS LEVEL (MIDDLE FLOOR)

LIGHTLY SERVICED LEVEL (UPPER FLOOR)

協會와會員

金 枝 泰
(三亞建築研究所 代表)

몇일전 郵送된 두툼한봉투를 열어보니 士協會의 年間行事인 臨時總會開催에 따른 油印物이었다. 그內容을 一覽한뒤 個体の 集合體인 協會라는것과 그組織의 構成分子인 會員과의 關係를 생각할때 協會는 會員에게, 會員은 協會에 얼마만큼이나 最善을 다하였는지 그濃度는 알길이 없다. 換言하면 協會라는것이없어도 될것을 存在하니깐 마지못해 끌려가는것인지? 아니면 會員이므로 當然히 權利義務을 다하기위하여 맡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어느쪽인가를 論할때 后者일은 自明한 일이지만 이따금 무언가 생각하게하는 경우가 있음을 어찌 나 혼자만의생각일지... 우리 士協會도 創設된지어언간 波瀾曲折의 10余年을 해아릴수있게되었다. 마치 코흘리기의 철없던幼年期를 벗어나 成長期에 접어든 知覺있는 靑少年처럼 오늘의 우리協會도 過去에 比하여 驚嘆할만큼 會員의 數나 그規模는 肥大하여졌고 또한 여러면으로 誇示할만큼 발전적으로 달라진것도 事實이지만 이런것으로 자기도취는 될수없는것이다.

오늘의 現實을 直視하고 未來를 내다보는 眼目에서 素日을 設計하여야할 우리 會員의 權益이 어느程度나 保障받고 있는지 線을 긋기엔 힘이 든다고보아야하겠다. 過去에 筆者自身도 協會任員으로 있을때 흔히들 協會를「잘못하는일도 문제지만 재대로 잘하는일도없다고」 評價하는 말을 많이들었었다. 이는 다분히 야유적인 말이라고 否定하기전에 會員들이 協會에 對하여 期待를 걸어바도 成果는 神通치못하니까 端的으로 이렇게 評價하는것이 오히려 適切한 表現이였는지모른다. 左右間 評價의 規準을 어디에 두었든간에 듣는立場에서는 괴물기작이없는 노릇이 아닐수없는것이다. 도리켜보건 團體라는것 즉 協會는 會員의 손발이될뿐더러 權益과 福利增進을 위하여 會員은 協會의 育成發展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줄아는 슬기로움과 基本姿勢確立이 優先되어야 함은 再言할 必要도 없지만 實際는 距離가 있어 내 나름대로 그原因을 集的하여본다면 첫째는 會員들의 協會에대한 無關心 둘째는 協會任員들의 指導의 使命感의 未洽내지 資質에서오는 相互不信, 셋째는 會員의 本末使命및 權益保障을 저버리는 團結力 缺如등이 協會의 健全한 發展을 空轉케하는 要因이 많인가본다. 士協會는 다른 團體에 比하여 創作과 技術을 通하여 國家와 社會에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그 寄與度가 높다고 自負하는, 建築設計를 業으로하는 會員을 母體로하여 構成된 知性있는 團體라하여도 過言은 아닌것인 만큼 얼마든지 堅實하게 成長할수있다고본다. 그러나 過去 어느때와같이 不條理에따른 惡循環은 되풀이되지않도록 會員들의 積極的인 參與度가 이를 調整할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換言하면 對岸의 불來景하는듯이 座視하지만 말고 우리의 協會를 堅實하게 育成하기위해서도 또한 우리 會員의 權利義務를 다하기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어 주어야 되겠다는것이다. 특히 士協會의 設立目的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會員을 위하여 存在하고있는것인만큼 이에 違背됨이없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 團體만큼은 堅實하고도, 一致團結된 모임이라고 自他가 評價를 내릴때 그 設立意義가 있다고 본다. 가령 우리 會員들이 著作한 設計圖書를 登錄받고 이를 確認하는 一連의 要式行爲의 補助機關과 같은 役割만을하는 協會가 되어서도 안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役割도 會員의 權益을 應호하는데 口實은 되겠지만 이보다 眞實로 會員을 위하여 일하는 協會로서의 Image을 심어주어야 할것이다. 날로 會員은 增加하고 規模에따른 年間予算도 過去보다 比較가 안될 정도로 방대하여져가는 반면에 우리 會員들에게 얼마만큼 權益을 圖謀하여 주었는지 反問하고싶은것이다.

이따금 이런 경우도있다. 筆者뿐만아니라 다른 會員들도 會費(月定, 實積)을 納付할때마다 한번쯤 생각했을것이라고보는데 會費의 多少도 論難의 對象이 되겠지만 問題는 會費의 性格인것이다. 이 會費야말로 會員들의 땅과 피가메친 高貴한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精誠어린 會費는 論할 여지도없이 協會運營의 原動力이 될뿐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協會發展과 會員의 權益및 福利增進을 가져오기위한 밑거름으로 有効하게 사용하므로써 會費納付의 意義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말이다. 그런데 遺憾스럽게도 高貴한 會費의 性格을 잊은채 浪費한 경우도 過去에 있었음을 이어져 이룰수 있겠는가 앞으로 어느 會員이 協會任員이 되더라도 이점 銘心하여 予算 編成을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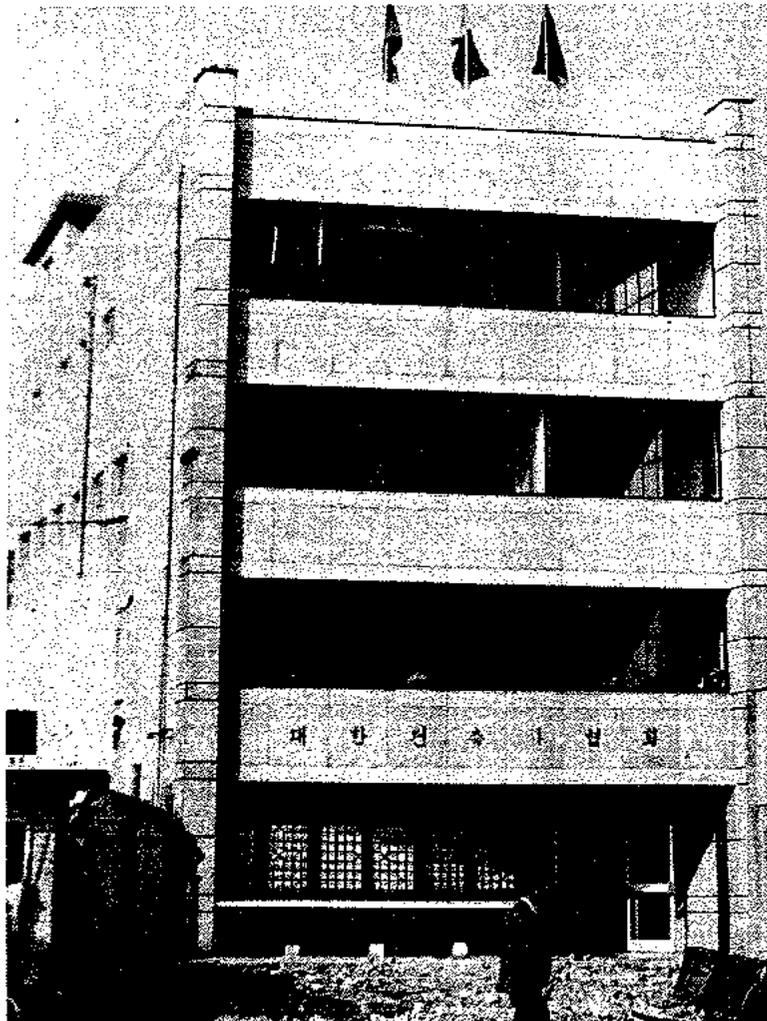
協會가 健全하게 運營되고 會員이 굳건히 團結되었음을 보일때 이 會費도 有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証左라고 하겠다. 따지고보면 會員들의 會費로서 運營되는 團體도 많겠지만 士協會만은 그 規模로보아 한푼의 國庫보조없이 自力으로 오늘날만큼이나 成長되어온것을 볼때 동경하여야 할일이지만 實은 會員들의 誠意있는 協助(會費納付)가 밑거름이되었음을 배놓을수 없으며 이런 추세로 미루어 머지않아 士協會 會員으로서의 名譽와 긍지를 갖고 建築士의 負荷된 使命을 더욱 착실이 이행하는 이른바 社會에 봉사하는 水準높은 일꾼의 모임(團體)으로서의 面目을 刷新하는 날이 닥아서고있는 한편 會費의 母體格인 設計報酬料率도 많은 모순과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차에 年初에 協會로부터 會員에게 一大郎報라 할수있는 改正된 料率表를 받아들고, 會員들의 所得增大를 위해 手苦한 協會任員들게 謝意를

表하는바이지만 기왕 手苦할바에 協會나름대로, 一般國民에게 建築士에 對한 認識度도 높이고 아울러 今般 改正된 設計料率內容을 理解하도록 說明 또는 協助을 부탁하는말을 新聞廣告정도에라도 내어주었던들 어떠했을까? 아쉬움이 있는것이다. 어떤 制度는 改正時에는 多少의 錯誤 및 物議를 빚게 마련이지만 改正料率表대로 보수를 받자면 建築主의 協助없이는 많은 難點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물론 어느 時限이 經過하면 自然히 解決되리라보지만 그런 安逸한 方式으로 対処하기에는 周邊事項이 그렇지 못함을 보게된다. 예를들어 어느 會員이 改正된 料率로서는 도저히 受註할수없어 旧料率로 せ비스한다고 할 경우 A라는 會員이 어떤 일에 對하여 建築主에게 改定된 料率로서 設計비가 얼마라고한결과 같은 會員인 B가 旧料率로서 얼마로 해주겠다는데 당신은 비싸니 依賴할수없다고 拒絕될때 日本位보다 淸本位로 處理되니 이를 不當하다고 制裁할만한 方法은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會員들의 所得과 直結되는 改正된 料率表가 제대로 施行되기 위해서는 會員의 團結만이 이를 지킬수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受註慾心에서 必要以上の 出血競争을 止揚하도록 努力할때 우리의 資質과 品位도 向上되리라 본다. 한간에 나도는 일부 會員들의 墮落行爲가 浪說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왜 우리 建築士만이 이런 問題에 神經을 썩어야하는지? 다같이 國家考試를 치러 免許를 얻어 開業하고 있는 醫師, 辯護士, 計理士 또는 藥師들도 우리와 같은 地地라 볼 수있겠는가! 그사람들은 우리보다 越等한 대우와 尊敬을 받으면서 自己所信것 業務에 充實하고있지 않은가 말이다. 즉 患者를 다루는 醫師, 法律事件을 다루는 辯護士, 社會의 經理事項을 診斷하는 計理士등이 自己勞苦의 代價로 받는 報酬를 墮落했다는말은 오늘날까지 들어본적이없는데 유독 우리 建築士만이 이런 不名譽스런말을 들어야할 處理까지 하라하였는지 도시 理解가 안가는 것이다. 물론 去來先인 建築主의 實情을 감안하고, 誠意에 報答하고자 Service하는 뜻에서 若干의 Discount는 생각할수 있는것이지만 그以上の 것은 許容될수 없다고 본다. 墮落 아닌 正常的인 報酬를 받어서 誠實하고 充實한 設計를해서 建築主로부터 權威와 信任과 尊敬을 받도록 會員 스스로가 만들어야될것이라보다.

아직도 一部大家들은 건축사들이 하는일을 옳게 把握하지 못하고 建築許可 수속이나 해주는것으로 밖에 認識이 되어있지않아 그들과 對話를 나누다보면 어떤 煩悶을 느끼는 경우가 尙왕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認識밖에 못갔는 그들을 탓하기전에 우리 建築士에게도 그 責任의 一部가 없지않을가 생각되는것이 建築士로서의 本來業務를 벗어난 건축허가위주의 業務로 因하여 그릇된 認識을 주게된것이 아닌가 自省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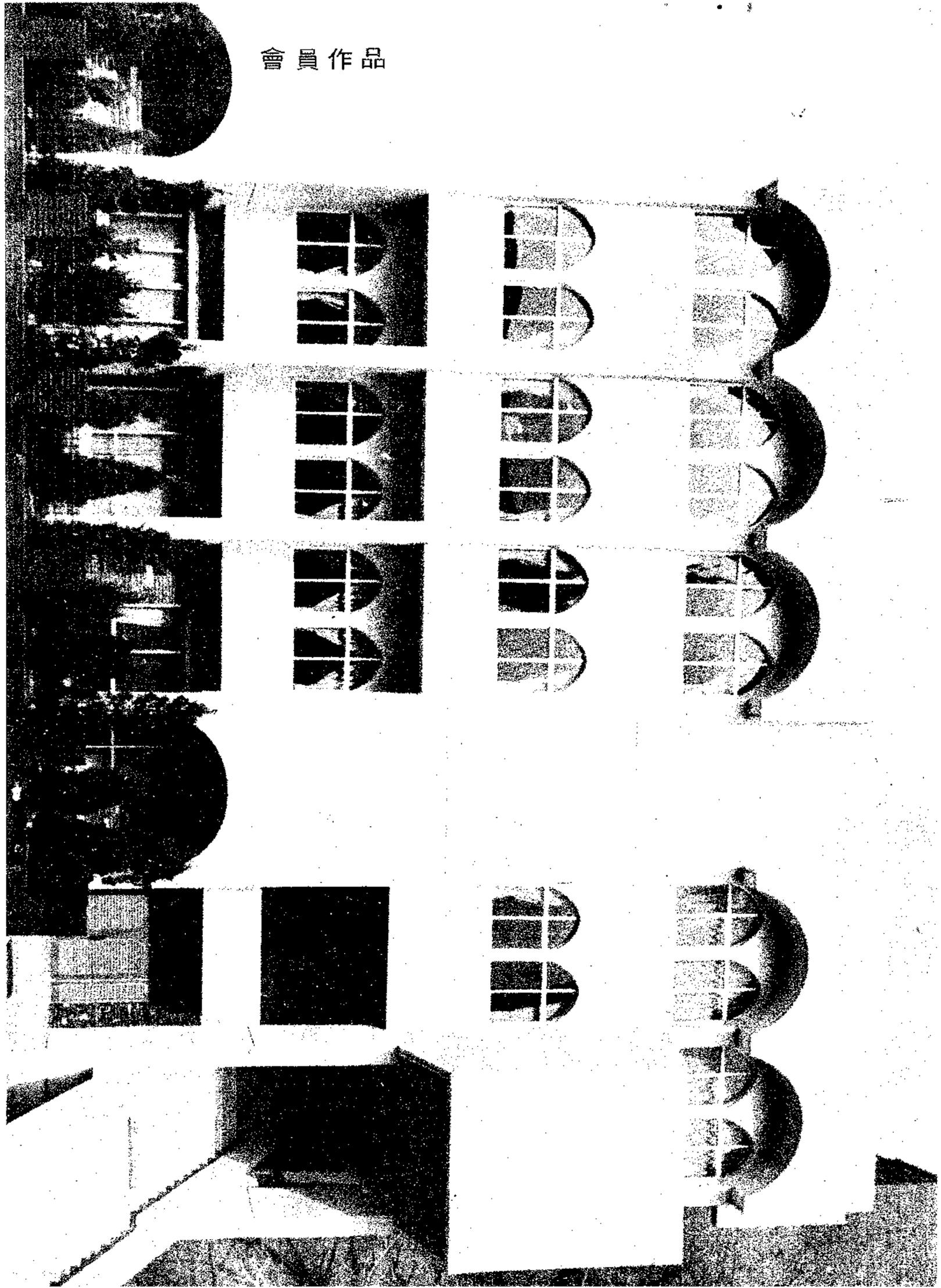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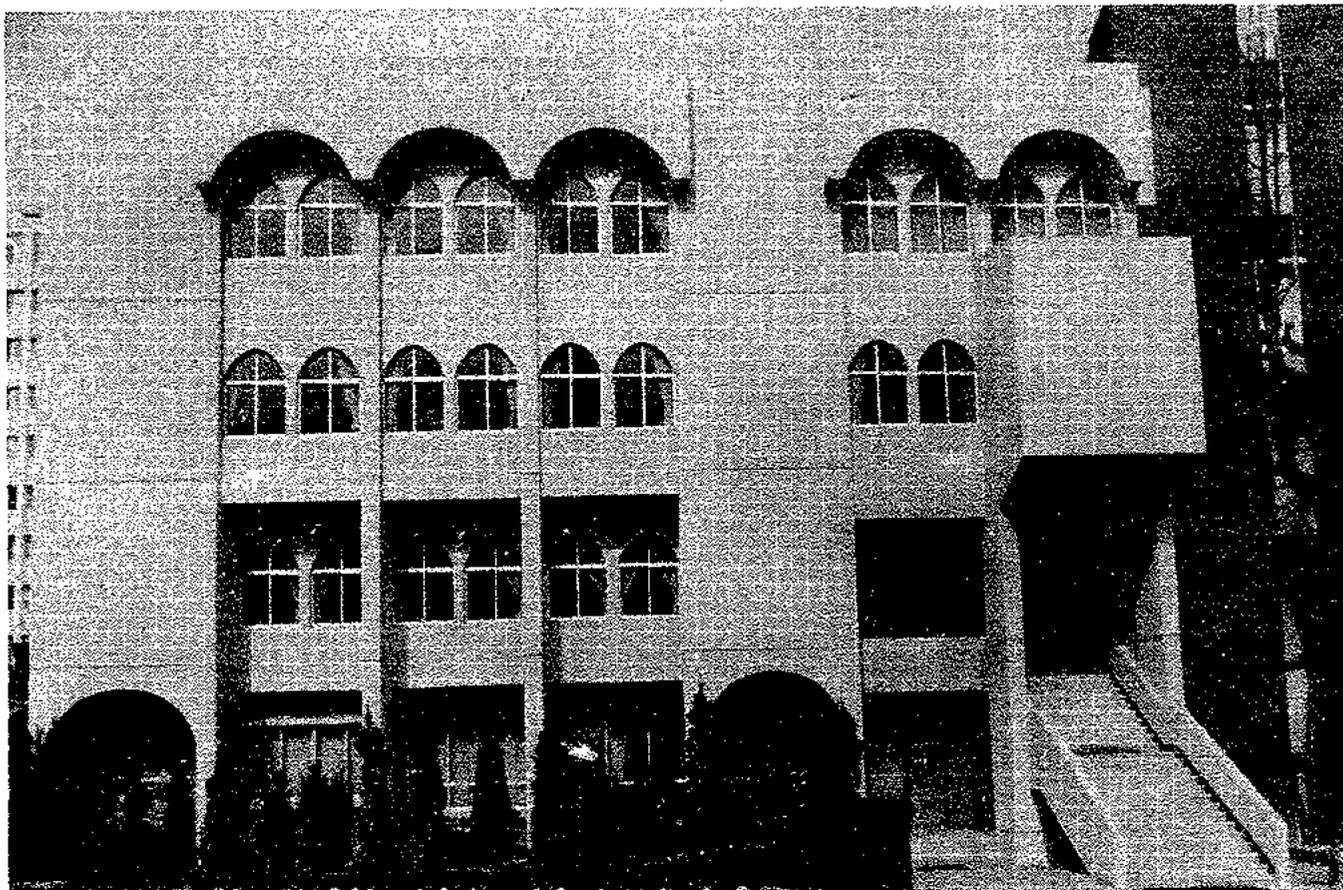
以上과 같이 몇 가지 小考를 頭書없이 적어보았지만 要는 協會는 協會대로 會員은 會員대로 따로히 存在할 수 없는 宿命的인 관계에 있기때문에 過去를 뒤돌아보고 착실한 來日을 갖기위하여 彼此 最善을 기울여보자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肥大해진 協會는 會員의 所望은 아랑곳없이 協會爲主의 獨善的機構가 될 憂慮도 있다고 본다. 때문에 會員은 協會를 定款에 明示 된대로 本然의 業務에 忠實하도록 育成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予算만을 浪費하는 無能한 團體가 되지않도록 지켜보는일도 맡겨진 義務인 反面에 協會는 會員들의 所望의 所在를 빨리 포착하여 會員을 위한 協會임을 自負할 수 있도록 全力投球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다. 요즘 政府에서 強力히 推進하고있는 庶政刷新과 不條理除去의 精神革命事業에 呼応하기위해 協會도 次際에 果敢하게 이事業을 밀고나가 會員의 權益에 무라스가되도록 手苦가 있어야 되겠다고 기대를 걸어본다



모습을 드러낸 協會館의 全景

會員作品





한경직 목사 기념관

설계개요

설 계 : 김만성 (연합건축)

위 치 : 서울중구저동

건축연면적 : 지 층 261.3m²

1 층 259.6

2 층 248.4

3 층 272.0

4 층 26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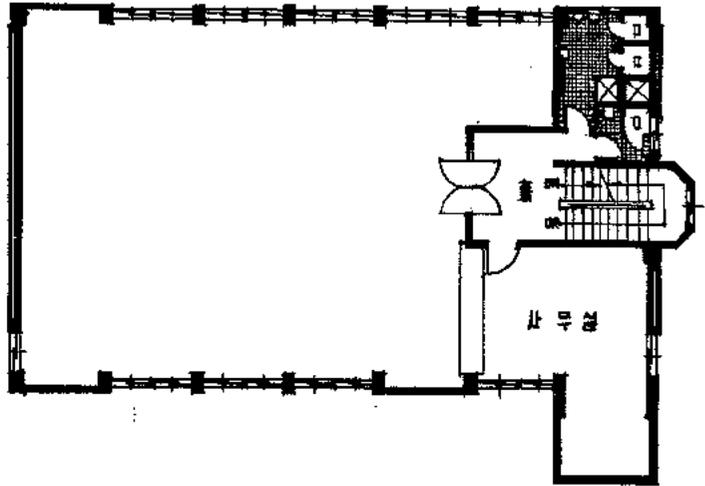
옥상층 32.1

계 1336.7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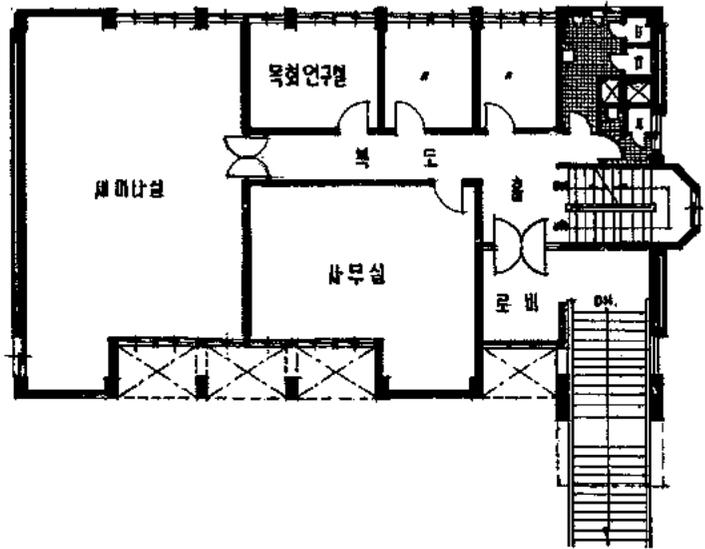
착공년월일 : 1975. 3. 25

준공년월일 : 75.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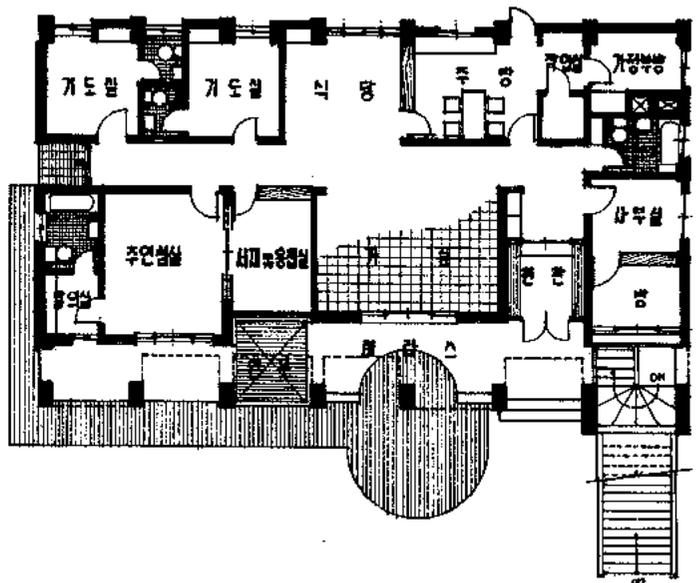
구 조 : 라 벤 조



3·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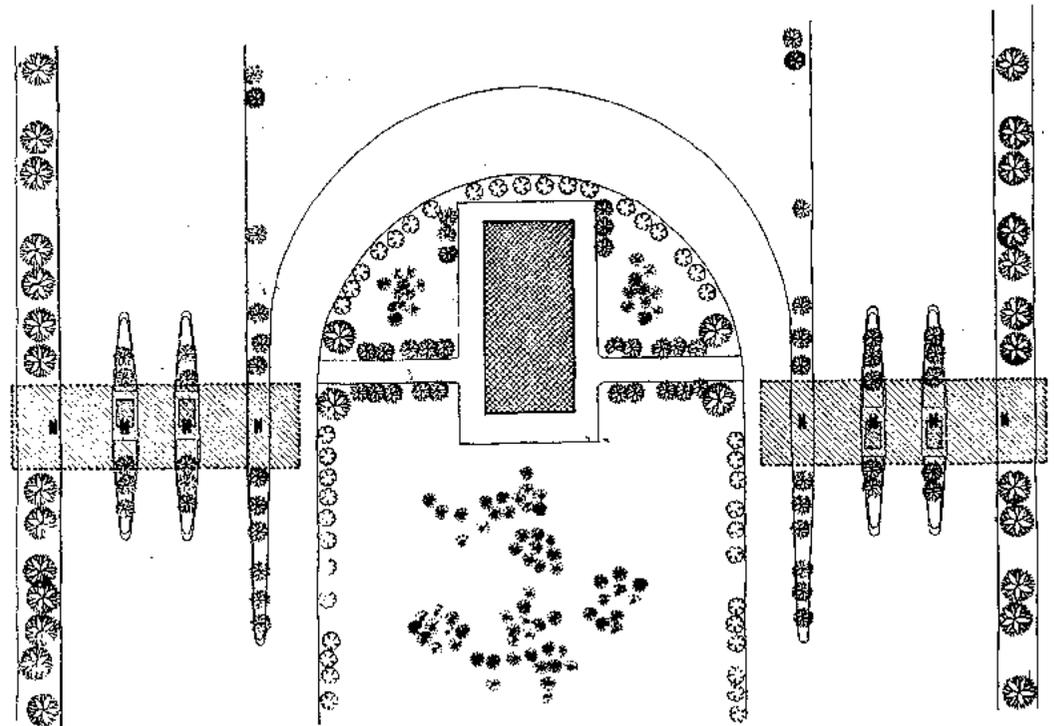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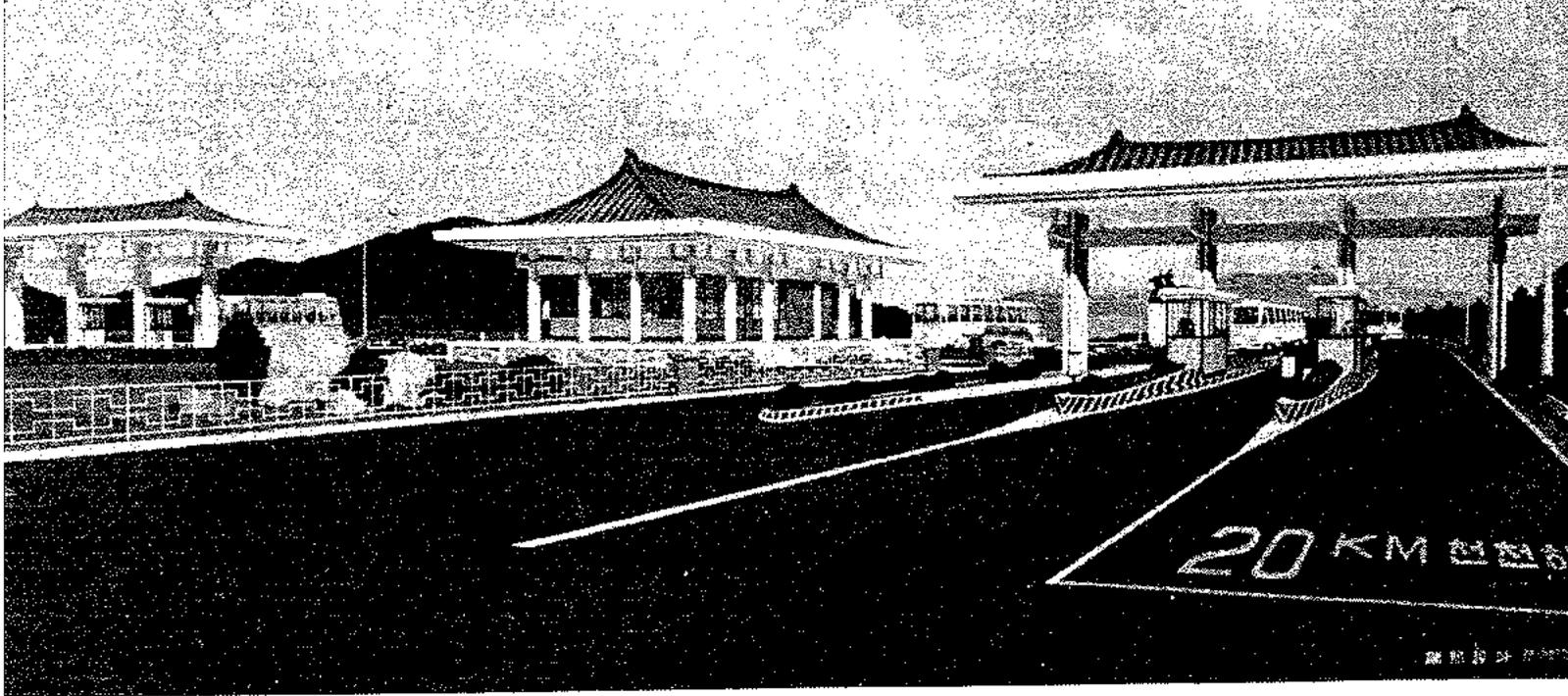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경포 별개이트 개호공사 투시도



배치도

伝統과 創作

韓國의 建築은 自然을 닮았다. 多様하고 無秩序해 보이나 숲처럼 森嚴하고, 生命처럼 毅然하고 現在처럼 場所의 同時性을 지닌다.

우리는 現在만을 所有한다. 그러나 그안에서 過去가 回生되고 未來가 創造 된다.

韓國의 建築은 그形式에 있어서 一貫된 法則性을 가진다. 許多한 他文化와의 混融, 儒敎, 道敎思想의 作用, 政治體制의 變化등의 經驗속에서도 形式上에서나 表象意志에는 分명한 特性을 지녀왔다. 單數變化 속에 一貫하여 볼 수 있는 韓國建築의 藝術意思를 나는 讚美한다.

材料, 目的, 技術에 副應하는 數量的, 物理的 處理인 形式이 거의 共通되었고 恰似한듯한 外樣을 가진 中國, 日本의 建築과 比較하여 判然히 相異한 韓國建築의 美를 나는 讚嘆한다.

그것을 이루게 한 自然的, 人文的條件을 眞心으로 多幸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維持해 내려온 韓國의 思惟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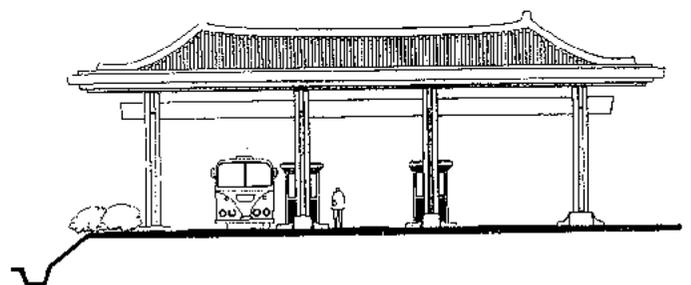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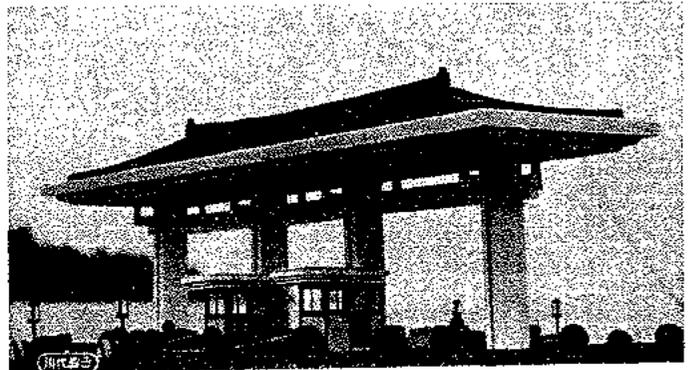
그리고 生命처럼 驚異로운 視覺的 均齊性의 秘密을 發見할 수 있을 때 나는 놀라움과 喜悅을 벅차게 갖게 된다.

統一新羅時代의 周髀算經이란 天文을 적은 冊에 pythagoras의 定理의 證明을 실었다. 그 定理가 證明될 수 있다함은 黃金分割比의 解法이 可能함을 立證하는 것이다. 나는 古人의 智慧와 그것으로 가늠하여 建造되었을 建築物의 美를 享有할 수 있는 處地에 感謝의 情을 느낀다.

韓國建築은 自然의 線과 自然의 格調와 自然의 重量을 갖췄다. 우리는 처마의 線을 사랑한다. 우람찬 모와 상쾌한 도리, 다만 지붕을 떠받들기 위한 架構가 그토록 多様하고 그토록 멋있는 作匠새를 가진것을 사랑한다.

자귀날의 痕跡이 寶玉처럼 反射되는 거친 기둥에 均衡있게 나뉜 拱包를 박는 그런 솜씨를 기꺼워 한다. 자귀는 옛부터 배의 龍骨이나 배바닥의 曲線을 깎아 내었다. 큰 役事에서 자귀질을 하는 이를 船匠이라 했다. 그래서 큰집은 큰 배의 모습을 담는다. Ronchamp 寺院의 黃金分割比에 의지했을 彫塑같은 지붕의 形態는 水原城廓, 長安門의 拱包部分의 船腹같은 mass의 美에 오히려 比較할바 못된다 본다.

우리는 우리의 傳統을 가졌다. 그러나 偉大한 過去의 優雅한 建築物은 이미 지금에와서는 本來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의 時代는 갔다. 造跡의 復元이나 破損된 過去의 建築物의 改修는 당연히 藝術이 아니다. 古建



정면도

築物에 極彩色으로 原狀復歸된 丹青은 嫌惡感을 준다.

우리의 現在는 古建築을, 그리고 그것의 時代를 想像하지 못한다. 그리고 現在의 生活樣式은 그것을 拒否하면서, 또한 새로운 建築을 創造하지도 못한다.

75년 8월 나는 慶州인터첸지의 틀게이트 改築設計를 함에 즈음하여 新鮮한 意慾을 느꼈다. 新羅古都 慶州의 閼門은 찬연한 精神의 開花의 予告이다.

그것은 韓國建築의 底辺에 있는 民族의 生命의 大河에 根據하는 現代의 한 monument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高速道路의 生動하는듯한 線의 위에 놓여진 點. 線이 머물고, 線이 貫通하는 點인 틀게이트는 視線이나 動線이 湛流하지 않을 簡潔성과 機能美가 要請되는 對象으로 判斷 되었다.

네개의 기둥이 지붕을 支持하는 一柱門의 형태, 그것으로 下部의 번거로움을 除去하고 개와지붕을 없애 밑에 塔婆의 屋蓋石반이形의 板을 두고 기둥에 直結하여 單純化한 拱包와 보(樑) 이외의 복잡한 架構구조를 省略하여 直裁의이고 強韌한 構造의 明快性을 表現했다.

意圖했던것은 아니었으나 結果적으로 이 建造物의 正面은 慶會樓의 側面圖의 比例關係에서 感知되는 性格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簡略한 樣式은 콘크리트구조 시공에도 適合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이 設計는 平素 韓國建築의 傳統에 關해 내가 갖고 있는 所見과 體化되 있는 民族의 藝術意思를 表現하려 한 하나의 素朴한 試圖였다 하겠다. 現代의 韓國建築家는 韓國의 建築이 지닌 美에 대하여 더욱 關心하였으면 하는것이 그들에 대한 바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선 數千年을 所持할 수 있으며 우리의 뒤의 數千年의 生命에 한 部分으로 남겨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韓國의 建築은 韓民族의 情趣이다. 그것은 樣式的인 傳統의 形態의 反復속에선 開展될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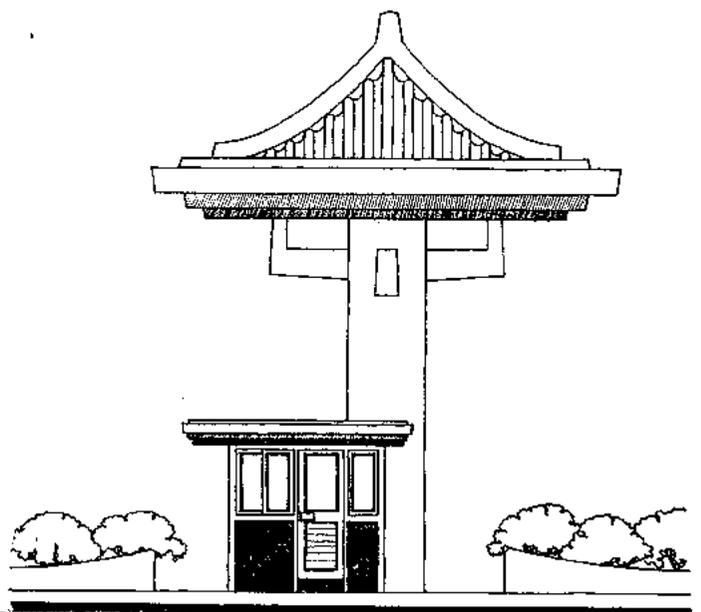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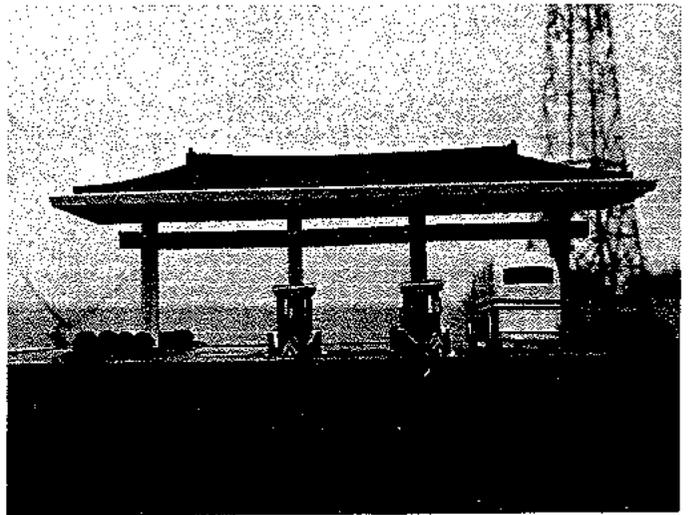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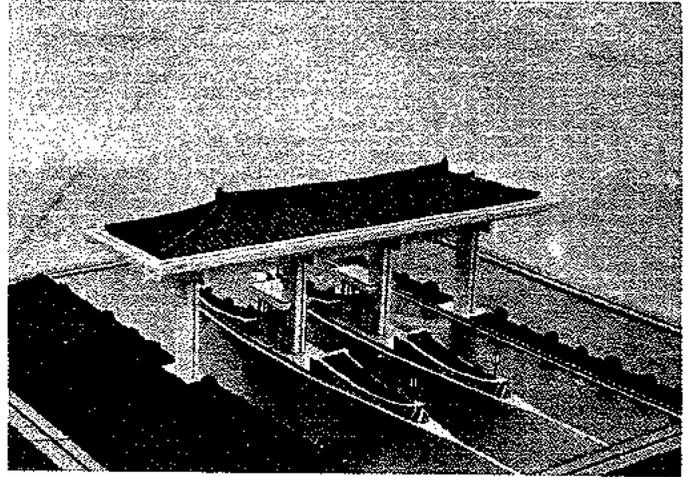
그것은 許多한 變遷을 거치면서도 建築物들에게 맥맥히 이어져오는 韓民族의 想像力과 진정한 創造力에서 불수있는 불꽃이다.

모든 建築物 建造物이 그러한 創造的인 힘에 대한 敬慕라는 先人의 德性 하나의 樣式으로 建造될수 있을 것을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努力해 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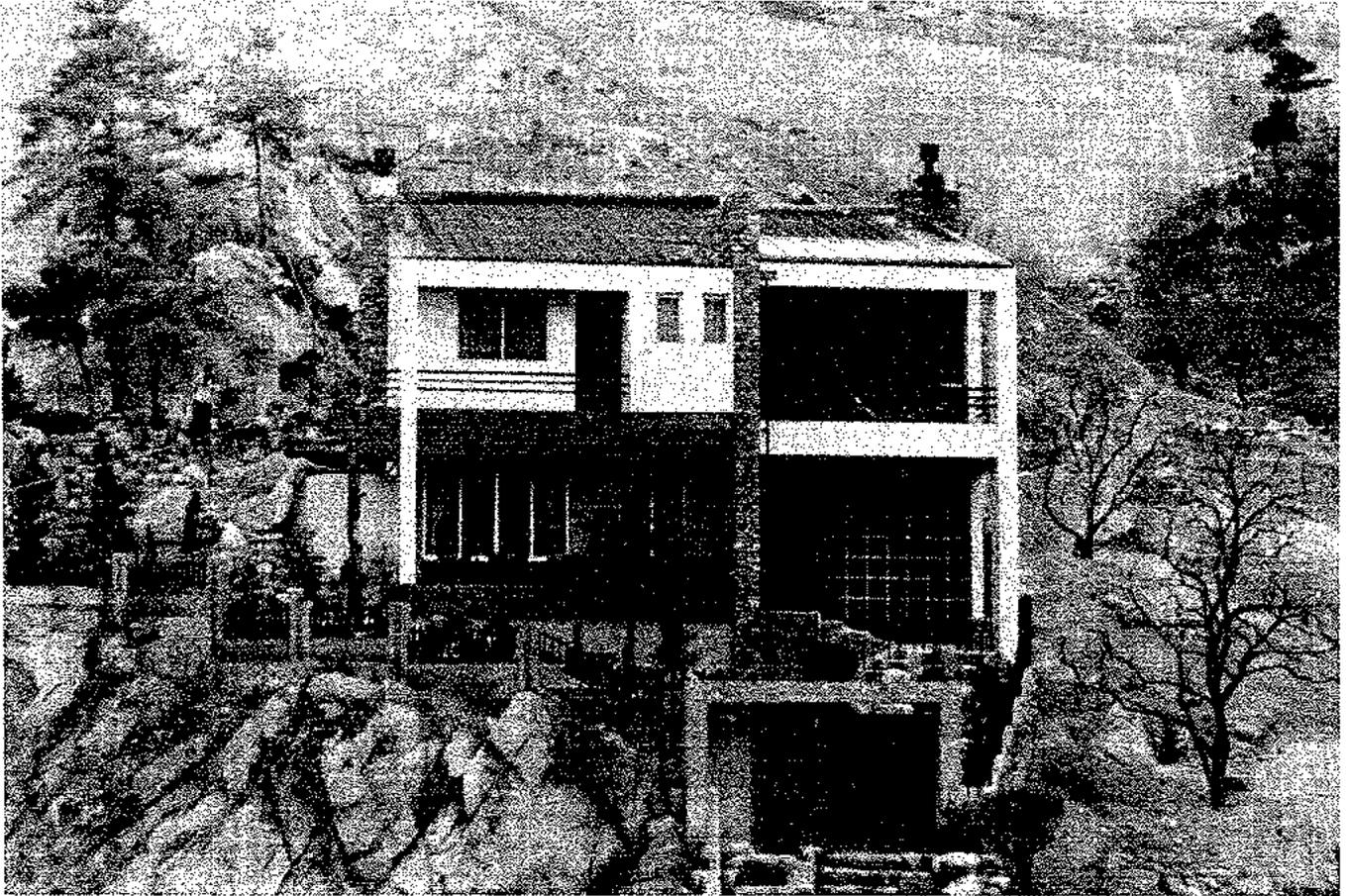
1976. 3월 16일

강희설계사무소

강 인 배



측면도



K 씨 주택

설계개요 : 설계 : 김남기 (고미건축연구소)

위치 : 종로구 평창동 547 - 4

대지면적 : 489.725 m²

건축면적 : 134.58 m² m²

연면적 : 1층 65.31 m²

2층 123.58 m²

구조 : 조적조

외부마감 : 본타일코팅

(일부치장벽돌)

내부마감 : 벽지, 미송판부치기

본타일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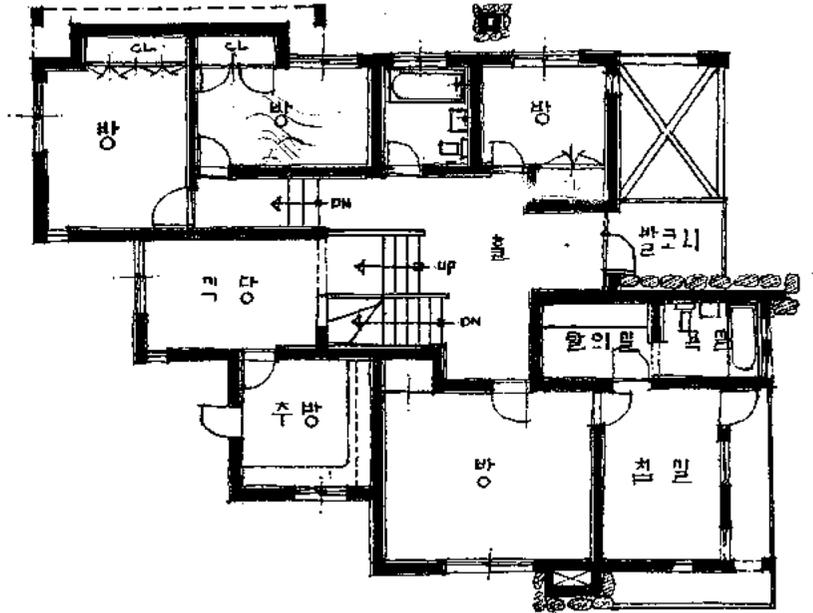
난방 : 경유 보일러

공사비 : 평당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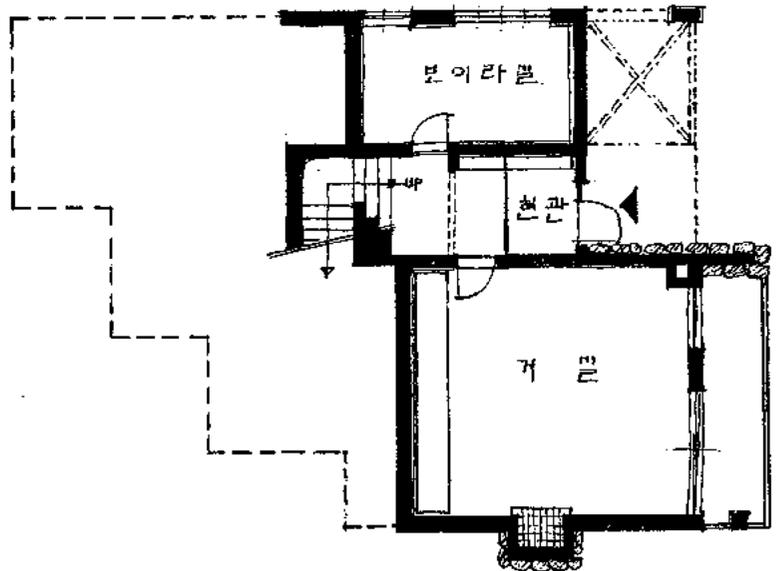


개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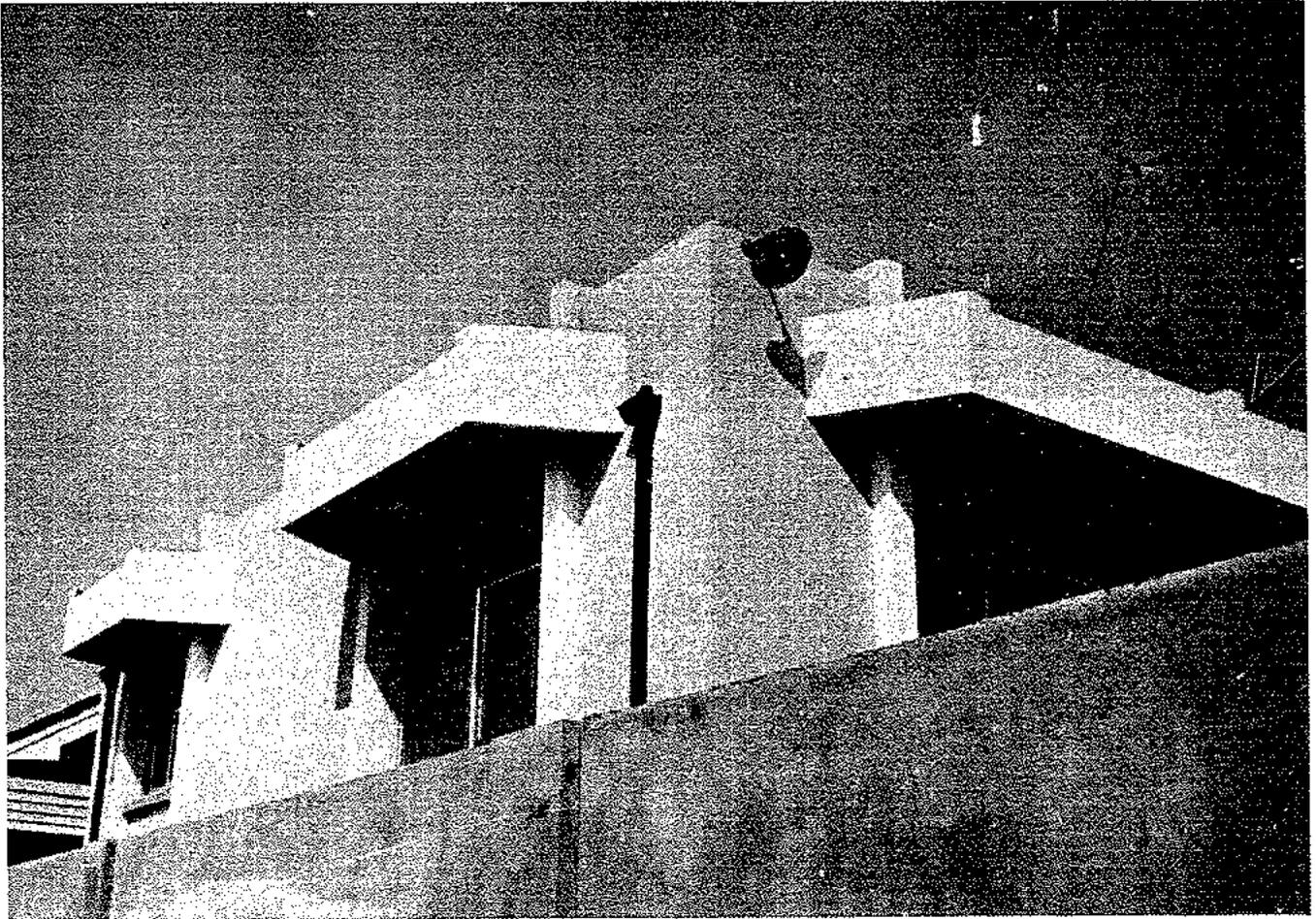
특지조건이 평지와 달리 압석 경사지로서 원만한 동선과 주인의 스포츠 형의 성격에 입면을 압축하려고 노력했다. 중앙에 계단, 식당을 두어 주인의 공간과 아동의공간을 분리했으며 1층에 거실을 두어 주인과 손님의 공간을 분리했다. 외관은 백색 분타일이 추가되어 주위 녹색 나무와 조화되게 했고 단조로운 치장벽돌, 미송판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임변호사의집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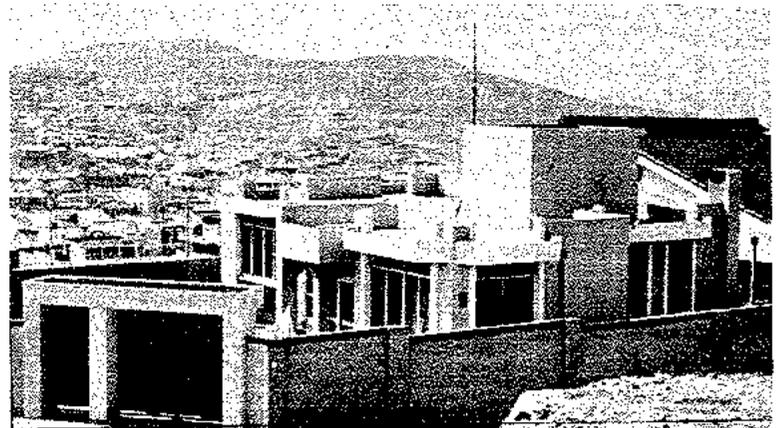
설 계 : 홍 철 수 (한국건축 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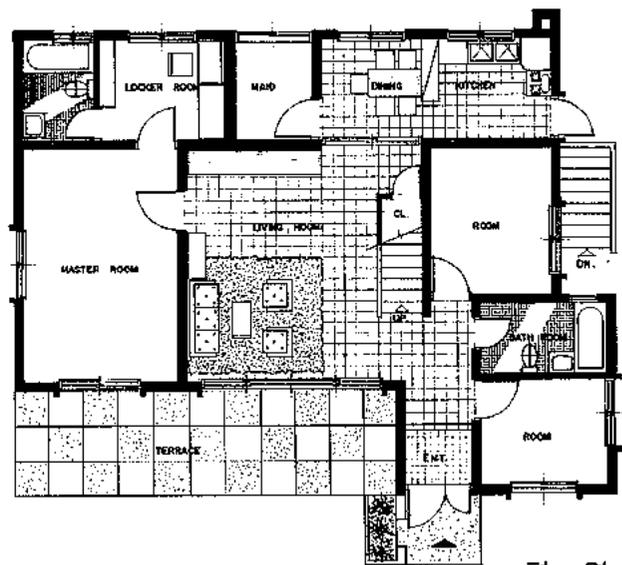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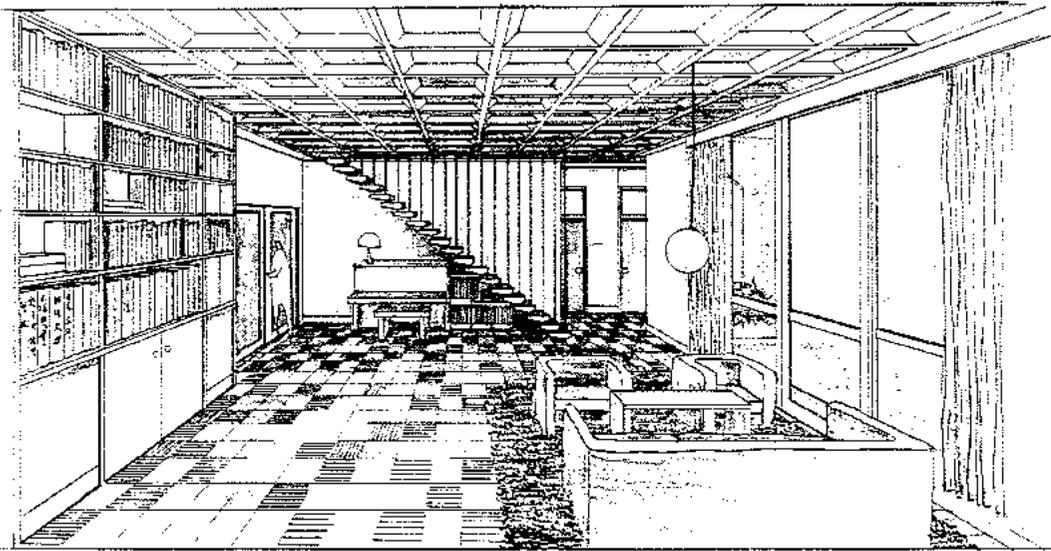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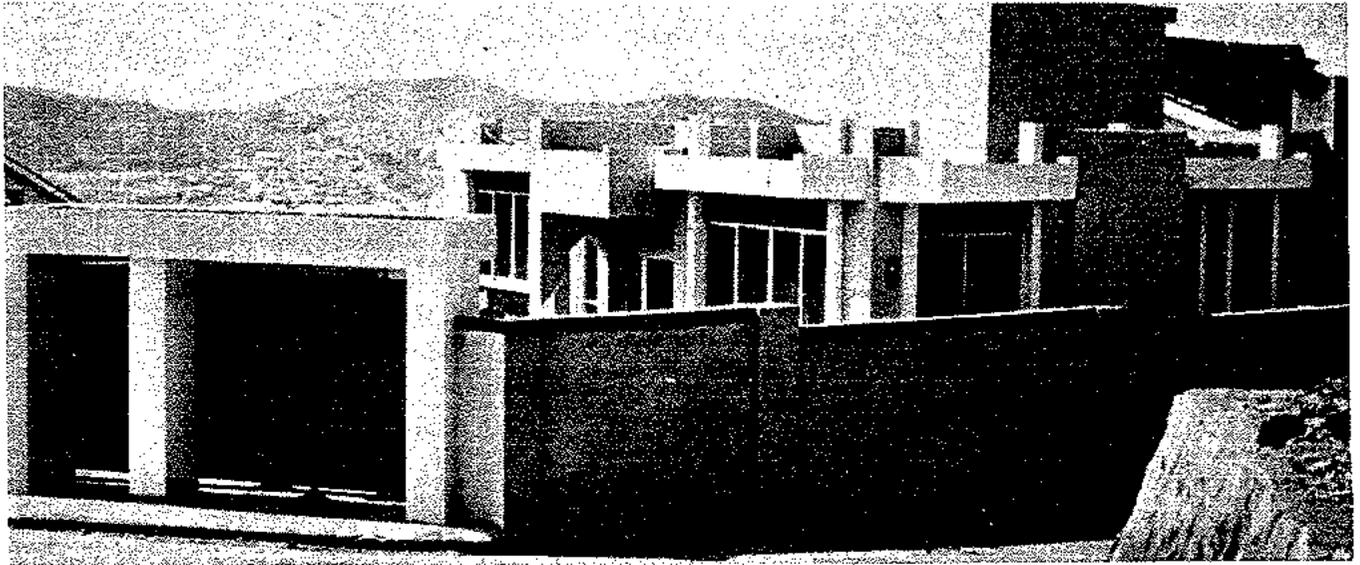
위 치 : 서울관악구신림동 법원단지내

대지면적 : 99평 (327m²)

건축면적 : 1층 : 106m² (3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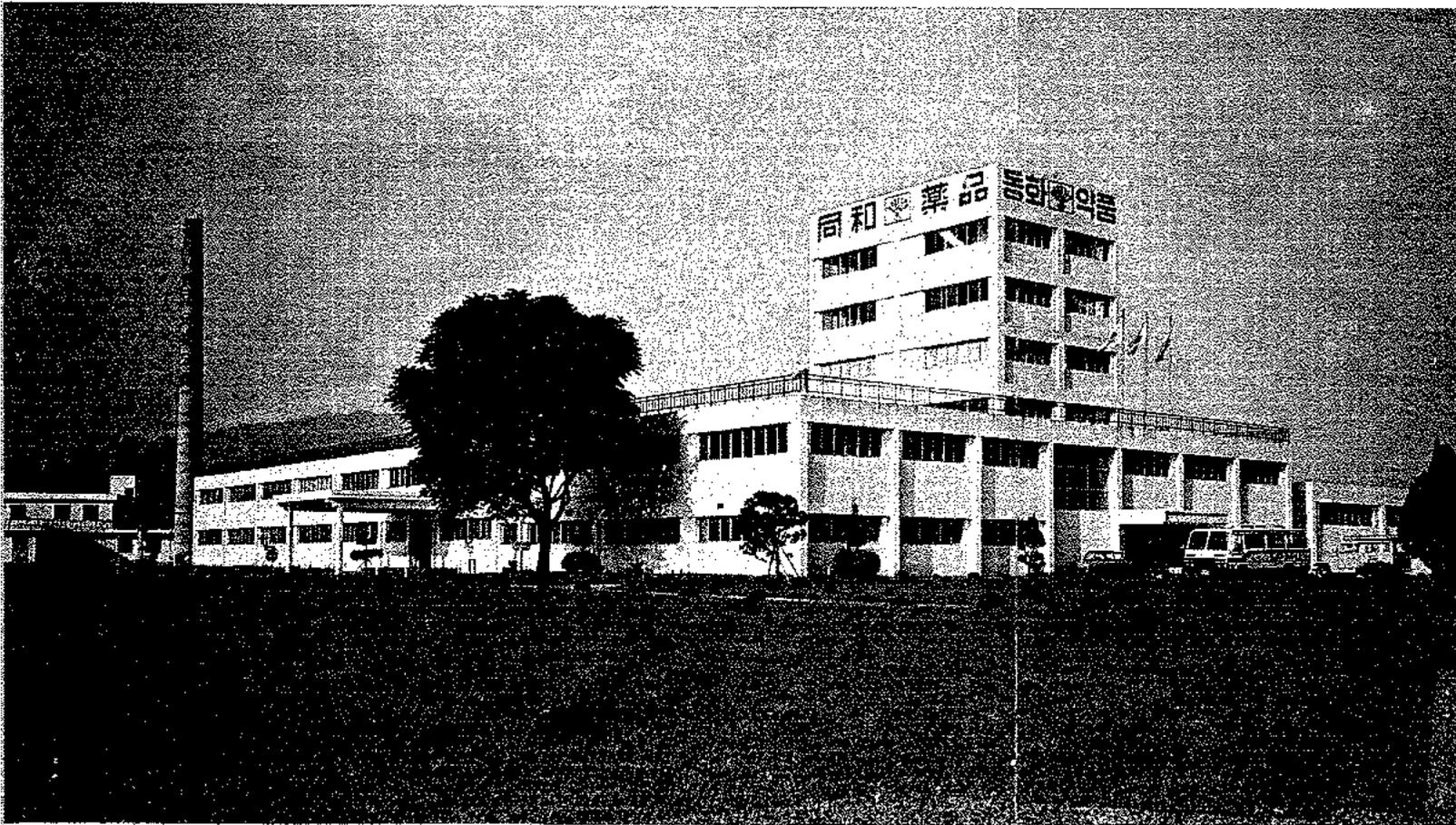
지층 : 13.2m² (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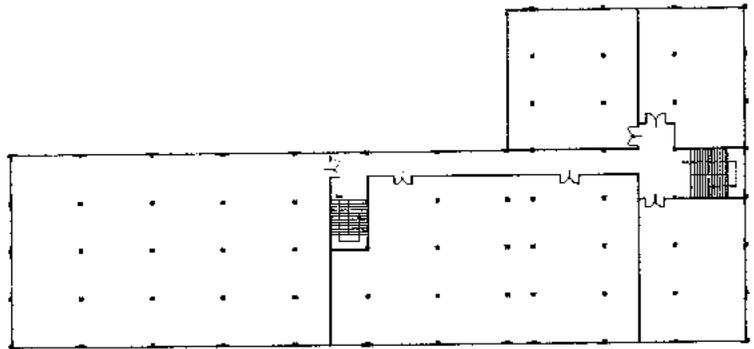
1 2 3

제 목 : 동화약품 주식회사 안양공장
설 계 : 조 명 호 조 건설 사무소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68 - 4
대 지 면 적 : 34,772M²
건물연면적 : 13,865M²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조
준공 일자 : 1974.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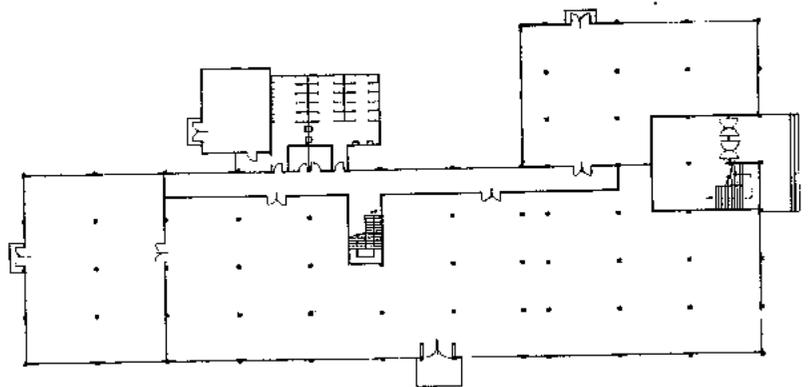




전경사진



2층평면



1층평면



李元相氏宅

설계 창일사 건축연구소 대표 유영봉

위치 관악구 상도동 436.

대지 225.78m²

건물 1. 91.26m²

2. 50.4m²

지. 21.4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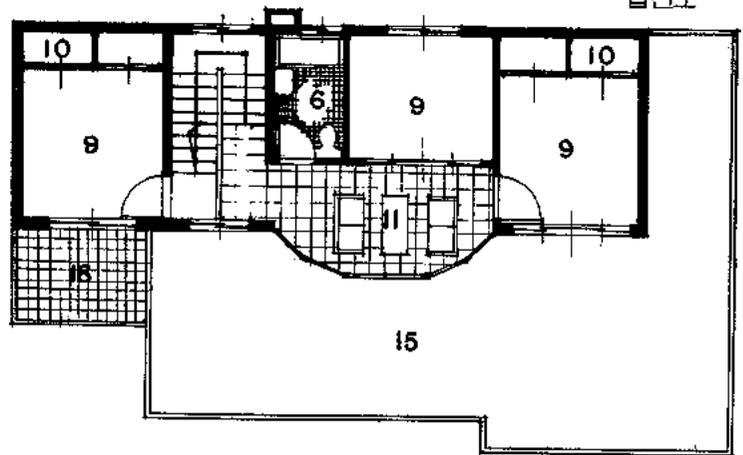
합계 : 163.11m²

구조 벽돌조

준공 197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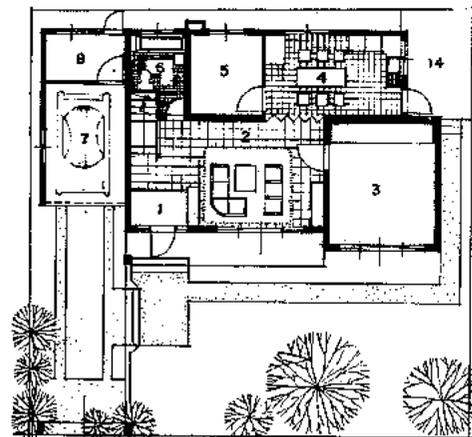
용도 주택

입면도



2층평면

- | | |
|----------|-----|
| 1. 현 | 관 |
| 2. 거 | 실 |
| 3. 주 | 인 실 |
| 4. 부엌 및 | 식당 |
| 5. 가 정 부 | 실 |
| 6. 욕 | 실 |
| 7. 차 | 고 |
| 8. 운 전 수 | 실 |
| 9. 아 | 동 실 |
| 10. 반 | 침 실 |
| 11. 오 | 락 실 |
| 12. 지 | 하 실 |
| 13. 다 | 락 실 |
| 14. 장 | 독 대 |
| 15. 욕 | 상 |
| 16. 발 | 코 |



1층평면

東南亞 視察團 紀行文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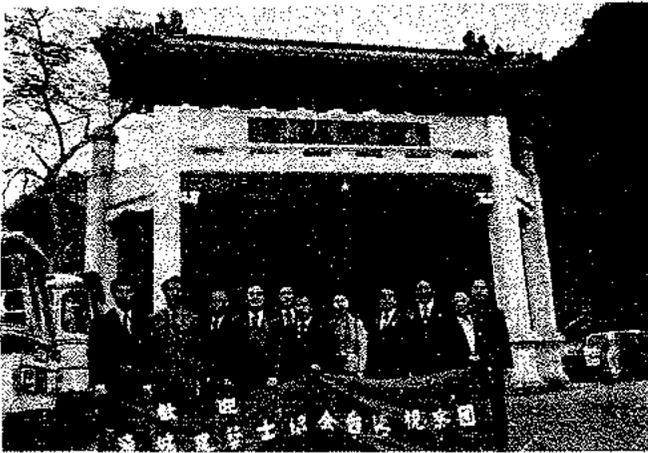


사진 1. 台灣 우리이(烏來)에서의 團員一同

朴 榮 大 (蔚山 麗都建築 設計社代表)

2月 8日(日) 午後 2時 大韓建築士協會 理事 成一永氏를 團長으로한 協會會員 11名(서울 3명, 충남 1명, 경남 2명 釜山 4명, 제주 1명)과 案内를 担当한 서울交通 觀光 Co의 業務理事 李鎬凡氏를 포함 12名은 協會 會議室에서 東南亞 視察團 結團式을 갖었다.

이 자리에는 日曜日인데도 李圭福會長을 비롯하여 여러 理事와 任職員과 내빈들이 參席하였다.

會長에 對한 出國申告가 있었고 이어서 會長님의 歡送辭를 들었다. 民間外交의 一員임을 自覺하고 좋은 成果를 期待한다는 말씀이다.

아울러 꽃다발 贈呈과 페난트 授受가 끝나고 會員 互間의 人事를 끝으로 結團式을 맞았다.

6時에 金浦空港國際線 待合室에 再集結하여 出國에 따른 여러가지 수속을 끝내고 會長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CX, 411機에 몸을 실고 어두운 上空을 난다. 高度 10,060m의 높은 空間에서, 많은 業務整理와 바쁜 수속 등 번거롭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一路 異國땅 台北市를 向하고 날고 있다.

옆자리에 앉은 60代 會員 두 분의 건강이 걱정스러웠다. 未暍의 南國을 찾는 나그네의 흥분과 不安, 그리고 많은 課題를 놓고 計劃을 짜보기도 하면서 想念에 젖고 있었다.

機內에서 주는 가벼운 저녁밥을 마치고 西南쪽을 向한 夜間飛行을 계속하였다. 몸도 마음도 뚱뚱 떠가는 雲上 고고를 맛본 것이라 할까?

〈台灣〉

2月 8日 20時 30分 어둠이 짙은 타이베이(台北) 郊外에 있는 松山 國際空港에 着陸하였다.

現地時間은 우리 나라와의 時差가 1時間 늦었다. 우리는 時針을 1시간 당겨서 現地時間에 맞추었다.

간단한 入國手續을 마쳤다. 무척 많은 旅客들이 붐비고 있다. 우리는 짐을 찾아 空港待合室에 나가니 “大韓民國 建築士 視察團 歡迎”이라 쓴 피켓을 든 키가 큰 中國人 아가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대뜸 우리를 알아 보고 微笑지으며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勞苦가 많으셨습니다”라고 유창한 우리 말로 상냥스레 人事를 건넨다. 우리는 몹시 놀라고 무척 반갑기도 했다. 후에 알았지만 그 아가씨는 서울에서 數年間 留學한 미쓰 藤이라는 處女로 現在 이곳 大學生이었다. 더욱이 서울交通 觀光社의 台灣支店에 勤務하고 있다 한다.

날씨는 機體에서 내릴 때 혹!하고 熱氣를 느낄 程度였다. 平均24℃ 였으니 한국의 5·6月과 비슷한 날씨였다.

서울交通에서 나온 버스에 案内되어 車에 올랐다. 車內는 에어컨이 稼動되어 冬服을 입고 온 우리에게 한층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 뒤 12層 現代式 빌딩 앞에 도착하여 下車하였는데 “六福客機”(Leo Foo-Hotel)라는 看板이 붙어 있다. 나는 慎重廣會員과 Room Made가 되어 628號에 入室한 후 若干의 換錢을 호텔 후론트에서 할 수 있었다.

旅裝을 풀고 칼라 TV를 보면서 잠시 休息을 취한 後 1層 후론트에 내려가 보았다. 많은 中國人·美國人·日本人들이 저마다 固有의 衣裳으로 서성대고 있었다.

異國에서의 첫날 밤을 中國 호텔에서 쉬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1시가 넘도록 잠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얽은 輿論이 나를 잠싸고 있는 탓일까?

2月9日(月) 晴 새벽 6時頃 일어났다. 아직도 뉘둥은 뜨지 않았다. 8時頃 1層 食堂 洋食部에서 빵과 애플파이를 들면서, 아침 식사를 끝냈다.

台灣은 南國 情緒가 깃든 아름다운 숲으로 덮인 꿈의 섬나라라고 하는데 섬은 3분의 2가 山으로 덮여 있고 地形은 고구마 形態로 北에서 南으로 산맥이 떨어 내렸다. 首都 타이베이에는 有名한 貿易港 基隆市와 近接한 內陸 쪽에 位置하였고 대만 전체 總面積은 35,911km² 이고 人口1,600만 가량이며 通用語는 中國語다. 기후는 亞熱帶性으로 常夏의 나라이다.

淸日 戰爭後 日本 植民地가 되었다가 2次大戰後 中國에 復歸되었다. 이는 分斷된 우리 母國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國民政府가 遷都하면서 內陸에서 200만 大人口가 集團移住해 왔다.

自由中國은 現在도 複雜한 各樣의 文化를 形成해 가고 있다.

立憲共和國으로 農産物과 輕工業에 依存하고 있으나 主要 産物로는 감자, 바나나, 쌀, 꿀등과 製糖 林業등이 活潑하며 漁業도 盛況을 이루고 鉅産物로는 石炭, 鉄鉍, 銅이 出産되며 全人口의 約10%는 原住民인 카오사오족(高砂族)이고 約78%는 후젠 出身의 漢民族이다.

其他는 大戰後 本土에서 渡來한 漢民族이다. 一般 大衆은 후젠 語를 쓰고 있다.

通貨는 通貨單位 一元(一元은 10角) 美貨 1달러는 約40元 그러니 一元은 우리 돈으로 約12원 程度다.

타이베이(台北)는 自由中國의 首都이며 또한 가장 큰 都市이며 重要 觀光都市이며 經濟, 教育, 文化, 宗教, 産業, 交通의 中心地이며 人口 250萬을 收容한 大都市의 면모를 구비하고 있으며 지금도 建設에 拍車를 加하고 있으며 路幅30~40m의 幹線道路가 시원스럽게 떨어 있고 高層建物과 Hotel, 近代式 住居건축 등이 都市를 形成하고 있을 뿐더러 市内 到處에 大規模 工事現場을 볼 수 있으며 街路에 넘치는 車輛과 人道の 行人들은 모두가 活氣에 넘쳐 보였다. 市街는 整然하였고 깨끗하고 고무나무의 大街路樹가 더한層 南國의 情緒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Hotel앞에 待機한 마이크로 버스에 올라 台北에서 東南쪽으로 約27km 떨어진 산골에 위치한 우라이(烏來)로 가는 길에 時間이 아침 7시 아워 때인지라 車들이 무척 붐비고 혼잡하다. 이 나라 交通警官은 20歲 前後의 靑少年들로서 가만 制服을 端正하게 입고 있다. 交通學校를 修了한 사람이라야 된다고 한다. 交

通違反은 罰金1,000元이라는 표지가 군데군데 붙어 있다.

中心地 中山路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니 郊外로 나선다. 田園風景은 아주 아름답다. 常綠樹의 푸르름과 푸른 江물이 눈에 들어 온다. 온갖 亞熱帶 奇花 瑤草가 우거져 自然의 풍요함이 이루 形言하기 어렵다. 어제 밤 松山飛行場에서 만난 미스 藤의 淸楚한 모습이 오늘도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를 案内하여 준다.

언덕 밑으로 흐르는 江물을 끼고 돌며 산중턱을 달린지 1時間쯤 후에 下車하였다. 다시 2人乘 작은 動車를 바꾸어 타고 山頂으로 向했다. 그곳은 原住民 高砂族이 살고 있는 泰那樓 文化村이었다. 原色 찬란한 무늬의 固有衣裳을 입고 얼굴에는 文身을 새겨 있었다. 그곳 조그마한 半圓型劇場에서 高砂族 特有의 民俗춤 風俗등을 求景할 수 있었다. 구경이 끝나고 下山할 무렵, 우리 모습을 스냅으로 사진을 찍어 그것을 다시 접시에 옮겨 넣어 가지고 와서 250元인데 200元만 내고 記念으로 사 가라는 것이다.

一行은 걸걸 너털웃음만 웃고 말았다. 下山 길에 山門 앞 廣場에서 記念 촬영을 하였다.

우리들은 市内에 도착하여 中國式 징기스칸 料理를 먹었다. 이것은 各者가 먹고싶은 고기와 야채와 양념들을 쟁반에 담아 들고 廚房으로 갖어 가면 料理士 2名이 즉석에서 料理하여 준다.

내 제간것 잘 골라 料理士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는 고개를 가우뚱 한다.

첫 번째 失敗作이다. 再次 또 “에라! 모르겠다” 하며 음식물을 골라 가져다 맡겼더니 그들도 어이 없이 웃고 만다.

우리는 모두가 얼굴을 맛대고 하! 하! 허! 허! 하고 破顔大笑하고 말았다.

中國 어디를 가나 商品을 팔려는 強한 그들의 執念에는 사뭇 놀라움을 禁할 수 없었다.

忠烈祠(우리나라 國立墓地)를 둘러서. 景觀 좋은 숲속 길을 달려 陽明山 孔子廟를 갔다. 中國人은 빨간 色彩과 黃金 빛을 좋아 하나보다 도처에 그 빛깔을 즐겨 쓴다. 미스 藤에게 물어 보았더니 中國人은 平和와 共存을 사랑해온 中國民族 本然의 色彩라고 傳한다. 보통 家庭집 大門에도 빨간 빛으로 되어 있다.

“本土收復”이라는 표어가 많이 눈에 띈다. 우리와같은 피땀진 民族의 念願을 읽을 수 있었고 또한 그 筆致가 感嘆할 程度이다. 書體는 거의가 顏真卿楷書體이다. 國立故宮 博物館에 이르렀다. 넓은 앞뜰에 들어서니 石造의 계단이 높이 쌓여 있고 거길 오르니 中央에 中國古代建物 樣式인 博物館 本建物이 우뚝 솟아 그 違容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若干의 現代式 建築美를 加美하여 산뜻하고 淸雅한 感도 것들이고 있었다. 蔣總統의 銅像이 入口 前面에서 있다.

하며 今年 6月頃 再次 訪問할 計劃이라 했다. 그때 連絡을 取해 달라는 當부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은 9時가 훨씬 넘어서 아쉬운 作別을 하였다.

우리는 다음 目的地 배이 투(北投)를 向해 約 40分間 市外로 달려 이름난 温泉 休養地에 닿았다.

우리는 巨大하고 웅장한 華南大飯店(Insular Hotel) 別館에 다시 짐을 풀었다. 日本 歌謡曲과 外國人 분위는 소음에 섞여 흥청거리는 거리, 술렁이는 酒店, 大部分이 日本人이었다이곳을 일러 “泉之郷”이라고 한다. 冷房施設도 잘 되었다. 나는 南쪽 窓너머로 멀리 숲사이에 보이는 크고 작은 네온과 전등불을 보며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整理하며 生賞했다. 그리고 故國의 家族에게 이곳 消息을 傳하는 葉書를 썼다.

2月 10日(火) 晴

8時 起床, 30分後 日本定食이 房으로 配達된다. 故國을 떠나 처음 쌀밥을 먹어 본다. 몽글하고 鄉愁에 젖는다. 나는 冷水에 밥을 말고 집에서 가져온 양념 계 소금을 반찬 삼아 먹었다.

어제 밤 酒席에서 매만 建築師 葉氏와 吳氏 그리고 康氏가 謝意를 表하는 거북선 담배와 패난트를 各各 書類 봉투에 넣어 서울 交通 職員便에 보냈다. 버스를 타고 出發하였다. “泉都” 北投여 잘 있거라.

松山國際空港으로 가는 길에 中國에서 이름난 大理石 加工 工場을 見學하고 工藝品 몇 점을 購入했다.

1時 25分 台灣發 CX. 551機를 탔다. 우리가 탄 飛行機는 점점 높이 날라 2日間 머물렀던 寶島를 뒤에 두고 쓴살같이 날고 있다. 情다운 建築同好人들 그리고 고마웠던 案内人들을 두고 멀리 멀리 사라져 간다.

下午 3時 自由貿易港 香港에 無事히 安着했다. 1時間 남짓 空港에서 머문 뒤 CX701機를 갈아타고 泰國 曼谷으로 가는 旅程에 올랐다. 中食과 夕食은 機內에서 간단히 들었다.

스튜어데스는 다행이 韓國 아가씨였다. 반가웠다. 機內에서 그림 葉書를 얻어 故國 親友에게 消息을 보냈다. 물론 機內에서 發送하는 葉書는 航空社 부담의 無料 서비스이다.

機內 放送은 到着 予定地 曼谷의 氣溫은 28℃, 日氣는 清明, 7時 10分 正確히 到着될 것이라 伝한다. 時差는 韓國과 2時間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空港에 내려 서는 순간 확! 하고 뜨거운 熱氣가 느껴진다. 참으로 멀리 南圀에 왔구나 하고 實感하게 된다. 入國手續은 꽤 늦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니 “Well Come Korea Architects”라고 쓴 피켓을 든 40代 단정한 모습의 婦人이 우리를 맞이한다. 現地 旅行社에서 나온 가이드인 것이다.

그 女人의 눈매는 異國人답게 생겼으며 아주 神秘한 눈매를 한 湖水처럼 반짝이는 고운 눈동자였으며 부드러운 微笑가 흘러 넘친다.

버스에 실려 約35분간 달리니 市內에 다달은다. 女人은 대략적인 曼谷의 名物들을 소개하여 준다. 英語는 우리 一行中 李錫凡氏가 맡아서 해준다. 이윽고 車는 “Montien Hotel”이라 쓴 옥중한 건물앞에 정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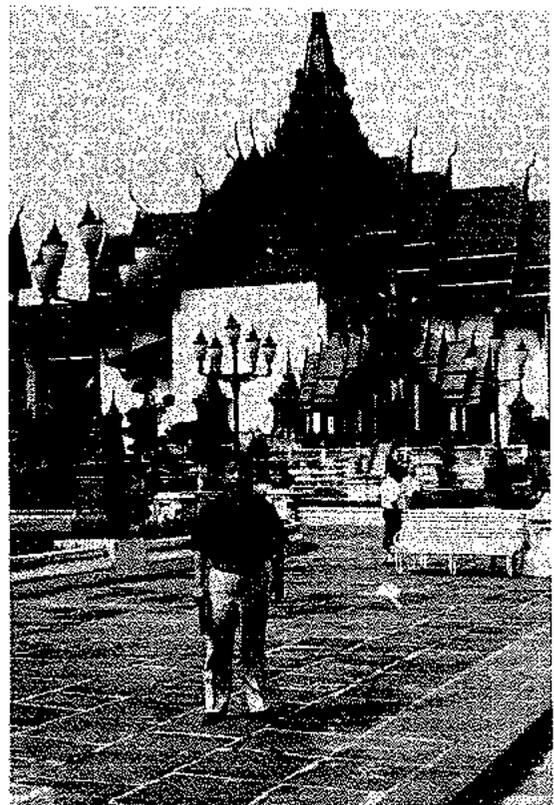
225號室의 配定을 받고 旅裝을 풀었다. 가벼운 목욕을 하고 양말 손수건등을 빨아 넣고 밤거리로 나왔다. 거리에 이곳 저곳에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터키 바-스에 손님을 끄는 靑少年들이 집요하게 달려 붙는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숙소로 돌아왔다. 후론트에서 若干의 換錢을 하였다. 화폐 단위는 ‘Baht’ U. S 달러 1弗은 約 20Baht이다.

來日의 旅行을 爲하여 1時頃에야 寢台로 돌아가서 잠을 請해 본다.

〈曼谷〉

2月 11日(水) 晴 6時에 起床 7時에 1層 레스토랑에서 빵·란치토서 아침 食事を 끝냈다. 풀 앞에서 기념 촬영.

泰國은 印度支那半島 中央에 자리하여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등과 國境을 이루고 있다. 北部地方에는 山岳이 많고 그 山들에 둘러싸인 넓은 平野를 湄南江이 흐르고 있다.



뱅크는 東南亞에 重要 空港으로서 아시아 各國은 勿論, 유럽과 連結되는 國際交通의 要路이다. 總 面積 514,000km²이고 總人口 4,000萬名이나 되며 立憲 君主國으로 言語文字는 그들 固有의 것을 가지고 있다.

外侵없이 獨立을 維持해 온 그들은 國民이 沈着 하였고 矜持가 大端하다. 寺院은 물론 王宮까지도 觀光客에게 開放하고 있다.

越南 共產化 以後 政情이 不安한 것도 事實 이지만 政黨이 20余個나 亂立되어 있어 事態가 流動的인 면도 엿보인다. 그러나 佛敎의 나라답게 곳곳에 寺院의 尖塔이 보이고 黃色法衣를 두른 스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僧侶가 오면 길을 비켜주는 風習이 어디에나 있다.

뱅크는 人口 400萬의 大都市다. 메남江으로부터 30km 올라간 델타의 中心에 位置하며 江과 運河의 水路가 옛부터 重要한 交通路였다.

뱅크는 넓고 낮은 델타여서 湿度가 높고 덥다. 地下 30cm만 파면 어디서나 물이 솟는다고 한다. 그러나 高層建物을 세우기는 適合하지 못한 곳이다.

市街 中心地를 벗어나면 四方八方 Klongs라 불리는 運河가 通하고 이 물은 모두가 메남江으로 흐르고 있다.

뒷골목에는 크롱이 通路가 되며 特異한 水上家屋이 즐비하게 서 있고 그 속에 점포도 있고 배 위에서 市場이 열리기도 한다. 이곳 商權은 華商들이 거의 쥐고 있고 自動車가 붐비는 곳에 차이나타운이 있다. 길가에는 南國의 과일을 파는 점포가 즐비하고 飲食店 小劇場이 소음과 함께 뒤범벅이 되고 있다.

市街 東쪽에는 大學과 病院, 各國大使館, 公園, 골프場, 競馬場 等 現代式 建物이 즐비하게 있고 泰國에는 우리 僑胞도 많다고 한다. 뱅크에만도 100名은 더 있으리라 한다. 가이드에게 韓國人 通譯을 부탁했더니 李某氏를 소개한다.

키가 작고 구리 빛 피부로 보아 흡사 泰國人 같으나 엄연한 우리 同胞였다. 40代로 보이는 李氏는 越南에 있다가 泰國에 왔으며 泰國 永住權을 가지고 現在는 資金屬 等 여러 事業에 從事하고 있다 한다. 財産도 着實히 모았다고 한다. 그는 市内 中心商街에 빌딩도 두어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 國際기구인 Escap에 있는 知人을 찾고자 電話번호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自己와 親하다며 매점 電話를 알려준다.

市内 觀光을 하였다. 寺院들은 모두 놀라운 규모였다. 높이 5cm 가량의 純金 佛像은 햇빛에 눈부신 至尊의 偉容을 發輝하고 있으며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佛像과는 判異하다. 얼굴 모습이 여위고 가름한 便이다. 한편

또한 에메랄드寺院에서는 높이 60cm 가로 45cm의 에메랄드 佛像은 더할 수 없이 實한 것이라 한다. 더욱이 1년에 배 번, 親히 國王이 나와 에메랄드 佛像의 옷을 갈아 입힌다고 한다.

代理石이 깔린 寺院 바닥에는 독실한 佛敎徒들이 하얀 그릇에 冷水를 담아 들고 긴 좁은 불을 부치고 몇 번이고 절하면서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이 佛像을 一時 도적을 맞았으나 여러 나라를 轉轉하다 다시 찾아 왔다고 한다. 이곳에 사는 華商들은 힘껏 노력해서 돈을 벌어 國王에게 喜捨하면 國王과 한 번 자리를 같이하게 된다. 그때 찍은 기념 사진을 自己商店에 걸어 두고 平生의 자랑으로 삼는다 한다.

또한 劇場도 많다. 觀客이 많은 理由는 한낮 더울 때, 밤도 식힐 겸, 住民들은 이곳에서 피서 겸,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는 모양이다.

극장 간판을 보니 요즘 美國에서 크게 성왕을 이룬다는 “상어” 映画 宣傳이 붙어 있다. 西部映画에서 뭘 수 없는 찰스 브론슨이 권총을 빼어 들고 있는 서니컬한 모습도 보인다.

점심 때는 韓國式 食堂 “高麗亭”에 갔다. 2層 別室에서 韓食을 시켰더니 쌀밥과 김치와 작두기 그리고 오이소박이가 나왔다. 그러나 내 平素 즐겨 먹는 고추장 생각에 견딜수가 없다.

그래서 고추장을 請했더니 이것이 웬일이냐 한 말로 고추장도 아닌 토마토 케찹에 가깝다. 그곳 食性에 영합한 國籍 없는 음식이었다.

오는 길에 寢佛敎 寺院에 들렀다. 팔 버개를 켜 부쳐가 걸게 누워 있다. 물경 길이 50m 높이 24m 나 된다. 歸路에 우리는 泰國 國防省 앞 廣場에서 旧式 녹솔은 大砲들을 보았다.

日帝때 日本 軍人들 비슷한 軍服차림의 軍人들도 더러 보인다.

午後 3時頃 自由 時間을 얻었다. 案内와 通譯을 맡아 준 우리 교포 李氏 점포에 가서 記念品 몇 개를 샀다.

泰國 建設工事を 맡은 우리 나라 共榮土建의 職員 몇 사람이 찾아 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 7時 集合해서 이곳 泰國 傳統 食事を 하고 民俗舞踊을 보기 위해 SuWannah에 갔다.

外國人이 많았다. 約 600여명은 수용할수 있다고 한다. 舞台幕 앞에 樂士들이 5~6名 앉아 있고 指定座席에 앉으니 泰國式 食事が 나왔다. 음식은 먹는 시늉만 하고 대신 시원한 맥주를 마시노라니 잠시 뒤 音樂의 선율이 흐르고 泰國古典衣裳을 한, 女人이 나와 人事를 하고 說明을 한다. 이어 다섯 사람의 또다른 女子들이 나왔다.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춘다. 머리에는 寺院의 尖塔같은 帽子를 쓰고 발은 맨발이었다. 南國

特有의 情熱의 가락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새 조용하고 극히 靜인 리듬이 쉬바뀌기도 한다.

저녁에 宿所에 돌아 오는 길로 李氏에게 電話를 걸었다. 내가 蔚山서 食品代理店을 하고 있는 会社, 韓國酪農乳業株式會社의 製品인 매일분유의 輸出相談을 相議코자 하였다. 지금까지 줄곧 市内를 거닐며 눈여겨 보았고 그곳 製品의 樣本을 蒐集하여 왔었다. 밤중인데도 李氏는 直接 車를 몰고 왔다.

現地에서 同業하고 있는 泰國人 青年한 名을 동반하고 왔다. 나는 우리 会社 製品을 說明하였고 將次 展望과 國際市場에서의 動向을 브리핑 했다. 李氏는 큰 知識이나 情報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日製粉乳가 조금 나오는 정도라고 한다. 市場調査(外製의 月間 消費量과 各國 製品別 包裝單位, 價格)를 依賴하였다. 그도 快히 승락하였다.

그도 우리나라 商品中 文房具類 特히 볼펜, 싸인펜, 매직, 萬年筆의 樣本과 價格等 商談과 希望여부를 調査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回信해 줄것을 要請했다.

물론 OK, 그들이 가고 才二信을 故脚 집으로 썼다. 이른 날 上午 暫間의 時間을 得하여 乳製品의 市場 調査에 나섰다. 特히 調製粉乳의 市場浸透가 容易하리라 卜졌다.

12時40분에 C X 703으로 佛敎의 나라 泰國를 떠나 赤道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로 向했다.

내머리 속은 至今도 泰國의 가지 가지 일들이 腦裡에 스쳐간다. 스테기에 쌓인 거리 냄새 나는 뱃글목 거리에 나와있는 맨발의 失業者들 未開한 住民들의 水船生活·不安한 政情 모두가 複雜 하게만 느껴진다.

偉大한 佛敎文化를 昇華시키고 外侵을 막고 오-런 獨立을 지켜온 이 거룩한 民族은 그 疲勞에 지쳐 긴 잠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그같은 눈동자는 지금 世界가 숨막히는 國際競爭의 소용돌이 속서 自己를 지키고 나아가 自己發展을 圖謀하는 이時代를 어떻게 보며 무엇을 生覺하고 있을까?

<싱가폴>

3時 20分, 太陽熱이 따가운 싱가포르 空港 滑走路에 우리가 탄 巨大한 나레는 멈췄다.

入国手続은 끝나고 大型 밴즈 버스에 짐과 같이 탔다. 市内 中心地에 予約된 Merin Hotel로 向했다.

椰子의 숲과 南國의 強烈한 햇빛이 함께 빛난다. 흰색의 高層건물들 유럽의인 印象이 풍기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싱가포르의 詩情이 넘치는 浪漫的인 섬나라였다.

空港에서 싱가포르 政府當局 發行의 “今週의 싱가포르” 案内라는 小冊子를 뽑아 보니 娛樂, 交通, 觀光 案内가 있는데 要注意란에 눈이 갔다. 자세히 훑어보니 에레베타, 映畫館, 劇場, 公共버스 其他 禁煙 表示 區域

에서는 喫煙하면 罰金 싱가포르 화폐로 500 \$ 以下の 罰金を 물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糞초 휴지등을 아무데나 버려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東西洋 文物이 交叉하는 地點인데 장발 단속이 있다고 한다.

Y사쓰의 깃을 덮을 程度라면 警告를 받고 제한 民願書類도 가장 늦게 發給받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곧 Hotel에 도착하여 590호실 키-를 받았다. 훌륭한 建物이다. 지금까지 묵은 호텔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이었다. 冷房施設도 잘 되었거니와 浴室 또한 施設이 잘 되었었다. 房도 넓고 旅窓의 風景이 아주 훌륭하다. 椰子나무 街路樹가 시원하게 떨어져 있는데, 自動車가 시원하게 疾走한다. 그 넘어 흰 泡沫의 파도가 넘실대고 그위에 점점이 배들이 한가롭게 떠 있고 水平線 위에 흰 뭉게 구름이 가볍게 떠 있다. 나는 그 황홀한 풍경에 나를 잊는다.

싱가폴은 馬來半島 最南端에 位置 하였고 菱形의 작은 섬이다. 모두 584km²마레 最南端 조홀 바-투와는 不過 1.23km의 道橋로써 連結되어 있다. 定溫多濕 하며 平均氣溫 31℃ 最低氣溫 24℃라 한다. 地勢는 아주 좁고 가장 높은 부기마데 힐은 해발 177m 全國土가 차츰 工業化 되고 있는 느낌이다. 中央高地의 장글은 自然 保護區域으로 되어있다. 中心 변화가 約 直徑100km 以內는 現代化의 發展을 계속하여 土地의 最有効 利用度를 爲해 再開發 地區로 指定되어 目下 눈부신 建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1819年 英國의 東印度 會社가 겨우 60萬弗을 주고 샀다는 싱가포르의 人口 220萬, 住民 74%가 中國系사람 이고 역시 이들이 主要 商權을 장악하고 그 밖에 亞細亞系·유럽系사람들이 많아 國際的인 零困氣를 풍기고 있다. 第2次大戰 初期에 美·英連合軍이 敗退하고 日本軍에 依해서 統治를 받았다. 그때 昭南島라 불리우던 中學校時節의 記憶이 되살아 난다.

1954年 新憲法이 承認되고 1955年 4月 旅選이 實施되고 마살이 이끄는 內閣이 出帆하였다. 그後 美國과의 繼統的인 交渉結果 自治權을 認定받아 外交 國防을 除外한 英聯邦內의 自治國으로 單一國家 말레이 聯邦을 形成해왔으나 1965年 8月 9日 싱가포르는 人種的인 問題와 經濟的 對立으로 말레이자를 脫退하여 獨立한 나라이기도하다.

밤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펍 시원하여 지나기가 좋다. 낮거리엔 사람들이 別로 안보이나 밤엔 모두가 거리와 公園에 나와서 흥성되며 지낸다.

輝煌찬란한 내온과 불빛은 漆黑의 바다위에 아름답게 비쳐 한層더 浪漫을 더해주다. 아무튼 어디로 가나 섬全體가 하나의 庭園이라 할수 있겠다.

또 싱가포르港은 世界第4位의 港口이며 東洋第2의 港口답게 그넓은 港口엔 많은 船舶들이 定泊해 있다.

通用言語는 英語·中國語·말레이아語 등이 混用하고 있다.

通貨는 싱가포르 달러를 쓴다. 싱가포르달러 1\$은 우리돈으로 約170원 程度가 된다.

저녁 食事는 싱가포르 唯一의 韓國食堂에 가서 2層의 아담한 汗室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 앉았다. 스피카에는 情다운 우리의 가요곡이 全館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나는 그동안 바쁜 日程속에 잊었던 故國을 다시 찾게 한다. 시중을 더는 아가씨들이 모두 색동,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다. 우리말로 故鄕이 어디냐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全然말을 모른다. 英語로 물어보니 그들은 모두 싱가포르人이라고 한다. 그리고 主人도 그러하다고 한다. 얼마前까지 單한사람의 韓國人料理士가 있었는데 歸國했다 한다. 우리는 妙한 生覺에 잠기면서 불고기와 김치와 麥酒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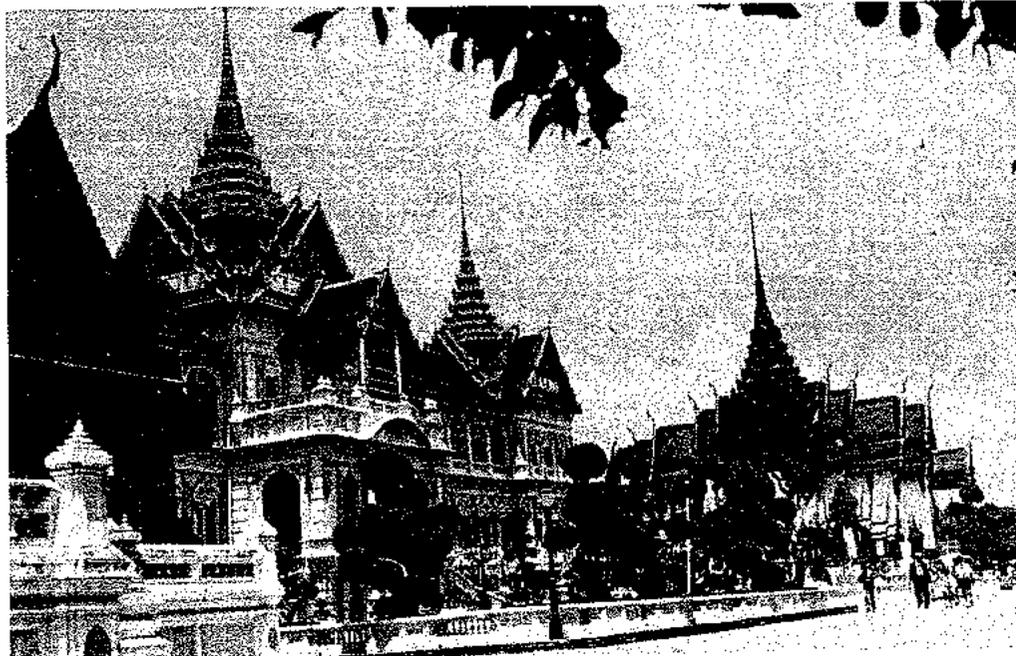
얼마 후 그 집에서 나와 다시 一行은 버스를 탔다. 案内人은 체구가 당당한 印度系의 40代 男子였다. 運轉手는 倭少한 日本人系의 40代 男子였다.

우리는 얼마 후 싱가포르 夜景이 한 눈에 보이는 Faber 언덕에 到着하여 市内를 천천히 觀望하였다.

歸路에 에리자베스 散步路를 해서 이곳 外來 觀光客의 名物인 各種海産物 料理를 파는 露天食堂을 求景하였다. 食堂 종업원들은 “日本人입니까?” 하더니 “보리스바 아리마스” “오이시-데스요” 하며 손을 끈다.

Hotel에 돌아 오니 술기가 돌아 心身이 피로하고 路壽이 육신을 엄습한다.

後에 안 事實이지만 東南亞 各國의 맥주는 度数가 우리나라 보다 倍가 더 된다는 것이다.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주시장 박 재 환

1976년 2월 9일

경주시규칙 제 239호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 4 조 내지 제 8 조의 단서 규정에서 "시장이 주위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지정한 경우"라 함은 대지 주위의 기존건축물과 조화가 되며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규모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와 표준설계도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건축물의 용도) ① 불국사 제 5 종 미관지구내 점포가구의 건축물의 동별 세부 용도는 별표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지정한 점포 가구의 건축물의 세부용도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건축물의 높이) ① 제 2 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인접 건물의 최고 높이보다 1 미터 이상을 초과하거나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주위환경 및 도시미관상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 2 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층별 높이는 당해 대지의 조건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다.

③ 제 3 종 내지 제 5 종 지구의 대지의 지반고(地盤高)는 인접도로변으로부터 0.2미터 이상 0.3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 5 조(건축물의 설계 기준) ① 조례 제 10 조 제 4 항 및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구조형태 설비 및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하여야 한다.

1. 제 2종 미관지구

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는 현대식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위환경 및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담장은 투시형을 원칙으로 하며 그 형태는 시장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담장의 높이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한다.

라. 건축물의 위생시설은 수세식으로 한다.

2. 제 3종 내지 제 5종 미관지구

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로 또는 조적조(組積造)인 경우에는 외형 및 구조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조화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지붕의 형태는 합각(合角)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처마 끝으로 이루는 선은 곡선으로서 한국 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다. 지붕의 이용재(材)는 재래식 토기와(골기와) 또는 청기와로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서까래의 길이는 건축물의 벽면 하단 부분과 서까래 또는 부연말구(付椽末口)와의 양각(仰角)은 65도 이하이어야 한다.

마. 불국사 제 5종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위생시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바. 대문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의한 형태 및 고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붕 형태는 합각 또는 맞배지붕으로서 재래식 토기와(골기와)로 이어야 한다.

사. 담장은 사피석(四塊石) 또는 자연석 쌓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부는 재래식 토기와(골기와)로 이뤄야 한다.

다만, 벽돌 또는 부록조로서 담장의 외벽면을 시장이 지정하는 문양(紋樣)과 색채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담장의 높이는 지반면(地盤面)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미만이어야 한다.

자. 굴뚝은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에 조화되는 구

조로서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건축물의 외부 색채는 삼원색(三原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3종 내지 제 5종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에 의한 건축 구조물의 세부형태 및 규모가 당해 건축물의 조화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규제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정원의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내에는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한 정원에는 3평방미터당 1주 이상의 정원수(수고 1.0미터 이상)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상록수이어야 하며 식수부적기(1~3월, 6~8월)에는 식수 적기까지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7 조(건축물의 전면 화단 설치) ① 제 2종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1.2층에는 화단이나 화분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화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3종 내지 제 5종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도로에 직접 면한 건축물의 전면에는 적당한 규모의 화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표준설계도)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표준설계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포가구내 동별세부용도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

동별	층 별	용 도
1	1·2지하	토산품, 기념품
2	1층	기념품, 사진, 다과류, 양품, 금은보석
3	1층	기념품, 사진, 다과류, 양품, 의약품
"	지하	기념품, 식료품, 이미용, 세탁, 간이음식
"	"	(점포내에서 입주 영업금지) 일용잡화
4	I	기념품, 사진, 양품, 다과류
"	지하	기념품, 식료품, 의약품, 세탁, 다과류
"	"	이미용, 간이음식, 일용잡화
5	I	기념품, 다과류, 사진, 일용잡화
6	I	토산품, 기념품

美觀地區建築條例 概要

(施行規則)

慶州市

目 次

1. 制定 根拠
2. 制定 目的
3. 建築條例 概要
4. 建築條例施行規則概要
5. 慶州市 美觀地區圖
6. 慶州市 第5種 美觀地區圖(用途別 街区)
7. 慶州市 第5種 美觀地區圖(層別 街区)

1. 制定 根拠

- 建築法 第33條
- 建築法 施行令 第 145條

2. 制定 目的

- 美觀地區內 建築物의 建築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서 本地區內의 都市 美觀을 維持함을 目的으로 한다.

3. 建築條例 概要

区分種別	2	3	4	5	備 考
地 区	상업지역내의 利 用도가 높은 道路 연변의 미관을 위 한 地区 (15M)	觀光 道路 및 史蹟 地의 進入路 연변의 미관을 위한 地区 (15M, 50M)	住居 및 生活환경과 古都의 歷史都市로 서 한국 高유의 建 축미관을 유지키 위 한 地区	상업지역내로써 都市의 환경미화 를 爲한 地区	○ 3종미관지구 (주거지역 : 15M 자연환경보존 : 50 M)
用途制限 (할수없는 건축물)	○ 精肉店 ○ 單獨 住宅(店 舖를 겸한 주 택은 除外	○ 화약류 제조공장 ○ 까스류 " " ○ 제지 펄프 공장 ○ 제혁 공장 ○ 시멘트 제조공장 ○ 석고, 카바이트 제조 공장 ○ 아스팔트 흑연 제조 공장	○ 원동기를 使用하 는 공장 ○ 작업장 바닥면적 300M ² 이상인공장 ○ 판매장 1,000M ² 이상인 백화점 ○ 영업용 倉庫 ○ 숙박업용 건물 ○ 미관 유지상특히 유해한 건물(담 장 등을 이용한 부속건물) ○ 형태, 구조, 색 채의장 및 用途 가 도시 미관상 유해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공 고한 건물	街区別 用途 제한 은 市長이 規則으 로 別途 定한다. ○ 여관 ○ 점포 ○ 요식 ○ 住宅	

区分	種別	2	3	4	5	備 考
用途制限 (할 수 없 는 건축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産物 都売市場 ○古物商 ○伝染病院, 精神病院, 麻糞 진료소, 장의사, 家畜病院 ○自動車 売買所, 自動車 整備所, 自動車 附属品商 ○煉炭工場, 貯炭場 ○製材所, 木材販売所, 木工所 ○糧穀加工業所(製菓店은 除外) ○倉 庫 ○石物 加工工場 ○鉄物店 工具販売店 ○屋外 作業場을 갖는 建築物 ○洗濯所(직접 세탁을 하지 않는 것은 除外) 				(各地区共通)

区分	種別	2	3	4	5	備 考
土地面積의 最小限		150 m ²	200 m ²	200 m ²	150 m ²	1. 시장이 설계를 지정할 경우는 대지의 규모는 최소 규정의 7/10까지 가능. 2. 佛國寺 5층지구. • 주거, 여관: 5/10 • 점포·요식: 7/10 • 요식 및 여관 여관 5/10 요식 7/10
袋地の 最少幅		10 m	12 m	10 m	10 m	
袋地안	建築線과 距離		3 m	3 m	2 m	
의空地	袋地경계 선과距離	1 m	1,5 m	1,5 m	1,5 m	
建築物의 높이		2층이상	1층이하 ○ 시장이 설계를 지정할 경우는 除外 ○ 道路 보다 낮은 대지는 도로 전망상 불리할 때는 路面高보다 초과못함	1층이하(7,0M 이하) ○ 시장이 설계를 지정할 경우는 제외 ○ 1층 건물 최고높이: 5,4m 7,0m 이하 처마높이 3,0m 이상 3,0m 이하	佛國寺 5층지구는 街區別 층수 제한에 의함	注油所 또는 기타用途上 불가피한 건축물은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자문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建築物	前面길이	10 m	12 m		10 m	
의規模	側面길이	6				

区分	種別	2	3	4	5	備 考	
建築物의 規模	建築面積	3층이하	100 M ²			100 m ²	○ 단독주택인 경우 60m ² 이상(3-5층) ○ 시장이 설계 지정의 경우 7/10까지 허용 ○ 단독주택 제외(2층)
		4층~5층	300 "			200 "	
		6층~8층	300 "			300 "	
附屬建物の規模		主建築物의 1外壁과 이를 對面하는 境界와의 사이에					○ 美觀上 장애가 없을 때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완화할 수 있다.
建築物의 模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築物의 樣式 構造 形態 色彩 등을 規則에 의거 規制 ○ 建築物의 平面形態 一直四角 正四角形 円形 타원형 ○ 屋上層 建築物 一本 建築物의 運營上 必要한 建築物의 部分 以外는 規制 ○ 建築物의 屋塔 一本 建築物과 同一한 意 으로 한다. 						

区分 種別	2	3	4	5	備 考
建築物의 附帶 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路面 設置 禁止 …… 洗濯物 乾燥合 장독대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物 ○ 建築物의 前面 또는 側面 設置 禁止 …… 굴뚝, 換氣施設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物 ○ 담장 및 大門의 높이 및 樣式 …… 規則으로 規制 ○ 美觀 維持上의 障礙物 …… 適面施設의 設置 및 交贊 또는 撤去를 命할 수 있다. (市長) 				
既存 建築物과의 緩和	○ 現行 用途地域 地区에 不 合한 既存建築物에 증축 건축물의 延面積은 기준시 以前 建築物 延面積의 5分之1을 넘지 못한다.				
該当地區	화랑로 양면 원화로 “ 서성로 “ 태종로 북편	佛國路, 칠성로, 산덕 우회도로 포석로, 칠성로 브문로, 계림로	○ 한식 건물지구 (황남, 사정, 황오, 인교) ○ 구읍성지	佛國寺 新宅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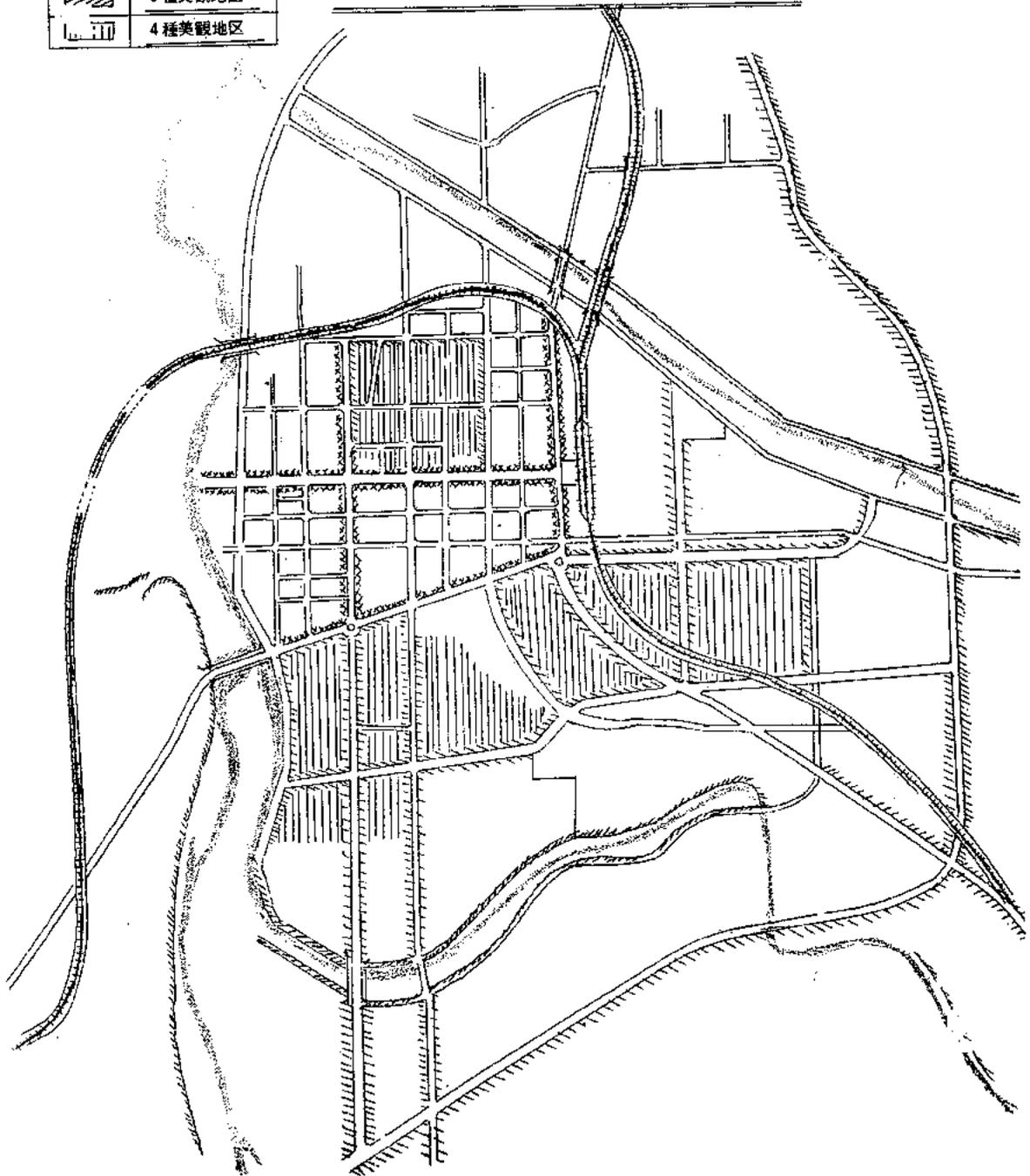
4. 建築條例概要 (施行規則)

区分 種別	2	3	4	5
樣 式	○ 現代式 建築物 (洋 式)	○ 韓國固有의 建築樣式 (韓式) ※ 組積造 철근콘크리트造인 경우에는 外形 및 構造는 韓國固有의 建築樣式에 調和되게 設計한다.		
지붕 形態	○ 스라브 (平) 지붕 ○ 재래식 한식지붕 형태는 제한	○ 合角 또는 맞배지붕 ○ 처마 끝으로 이루는 線은 曲線으로서 한국 古有의 建築美를 풍기게 한다.		
지붕이음材	○ 재래식기와이우기는 제한 ○ 스라브等	○ 재래식 토기와 (골기와) 또는 홑기와 ○ 규격품 使用		
서까래 길이		○ 벽면으로부터 1.2m 以上 ○ 서까래 또는 부연 말구와 이루는 仰角은 65° 以下		
높이	○ 2層 以上 ○ 隣接建築物의 높이 보다 1m 以上 낮거나 높아서는 아니된다. ○ 層別높이는 垜地의 條件에 따라 市長이 決定.	○ 地盤높이 : 0.2m 以上 0.3m 以下 ○ 建築物層數 : 1層 ○ 建築物의 最高높이 : 5.4m 以上 7.0m 以下 ○ 建築物의 처마높이 : 3.0m 以上 3.9m 以下 ○ 5種 美觀地區는 層別街區에 따라 決定 (佛國寺 新宅地)		
大 門	○ 재래식 韓式 構造는 制限	○ 韓國固有의 建築樣式 (韓式) ○ 合角 또는 맞배지붕의 形態 ○ 在來式 토기와 (골기와) 이우기 (合角 맞배지붕 形態 및 소슬大門)		
담 장	○ 무시형 담장原則 ○ 높이 1.5m 以上 1.8m 以下	○ 四塊石 또는 自然石 쌓기 原則 ○ 上部는 在來式 토기와 이우기 ○ 벽돌 또는 볼록造로 할 경우에는 담장의 外壁面은 市長이 指定하는 紋樣 및 色彩로 하여야 한다. ○ 높이 : 1.5m 以上 2.0m 以下		
굴뚝	○ 道路를 面한 部分의 設置制限	○ 道路를 面한 部分의 設置制限 ○ 韓式建築物에 調和되는 構造로서 市長이 指定하는 形態로 한다.		
衛生 施設	水 洗 式 (淨化槽설치)	○ 規制事項 없음		水 洗 式 (淨화조설치)
色 彩	○ 二元色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市長이 指定하는 色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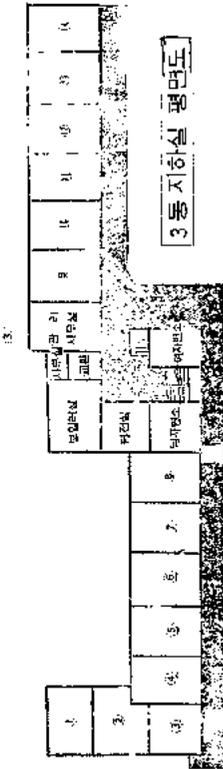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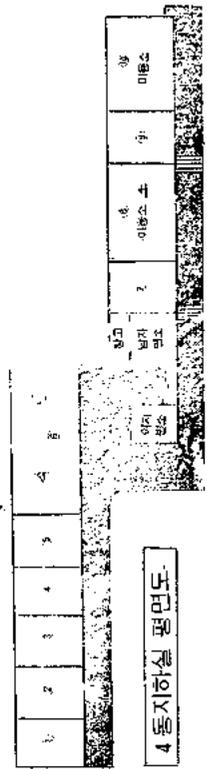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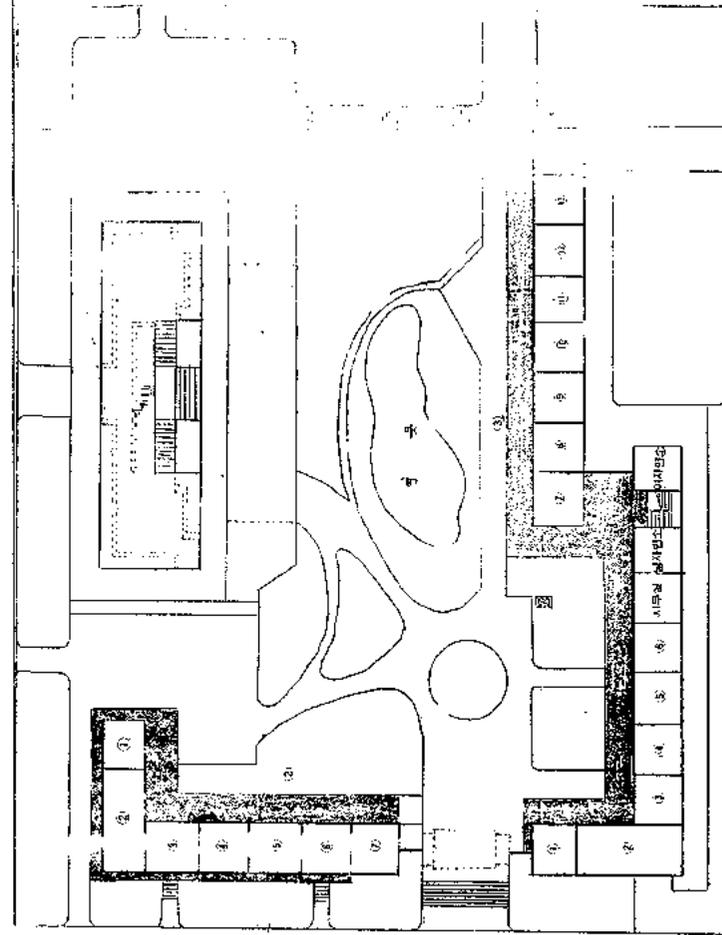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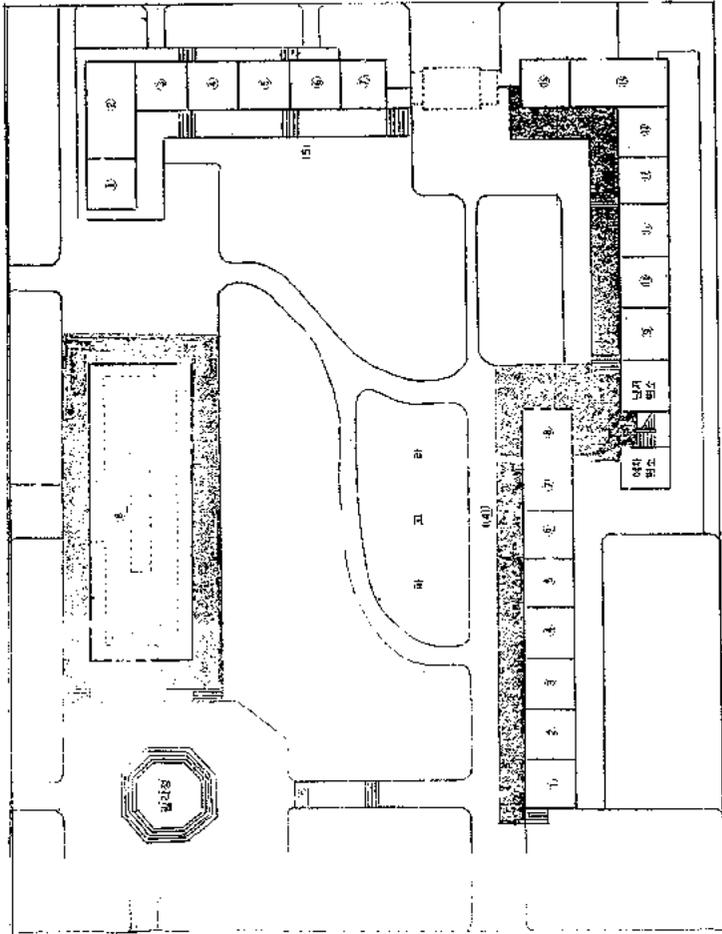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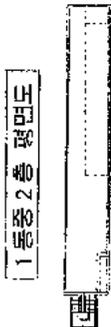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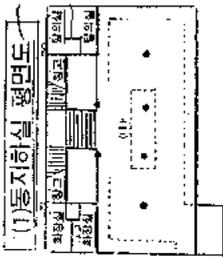
種別 区分	2	3	4	5
정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宅地面積의 1/10 以上에 해당하는 面積의 庭園設置 ○ 庭園面積 3m² 當 한그루 以上の 庭園樹를 植樹한다. ○ 樹高는 1.0m 以上 ○ 庭園樹의 1/2 以上은 常綠樹이어야 한다. 			
화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築物의 前面1, 2層에는 花壇, 또 는 「화분대」를 設置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築物이 직접 道路에 面할 경우는 花壇설치 (규모는 시장이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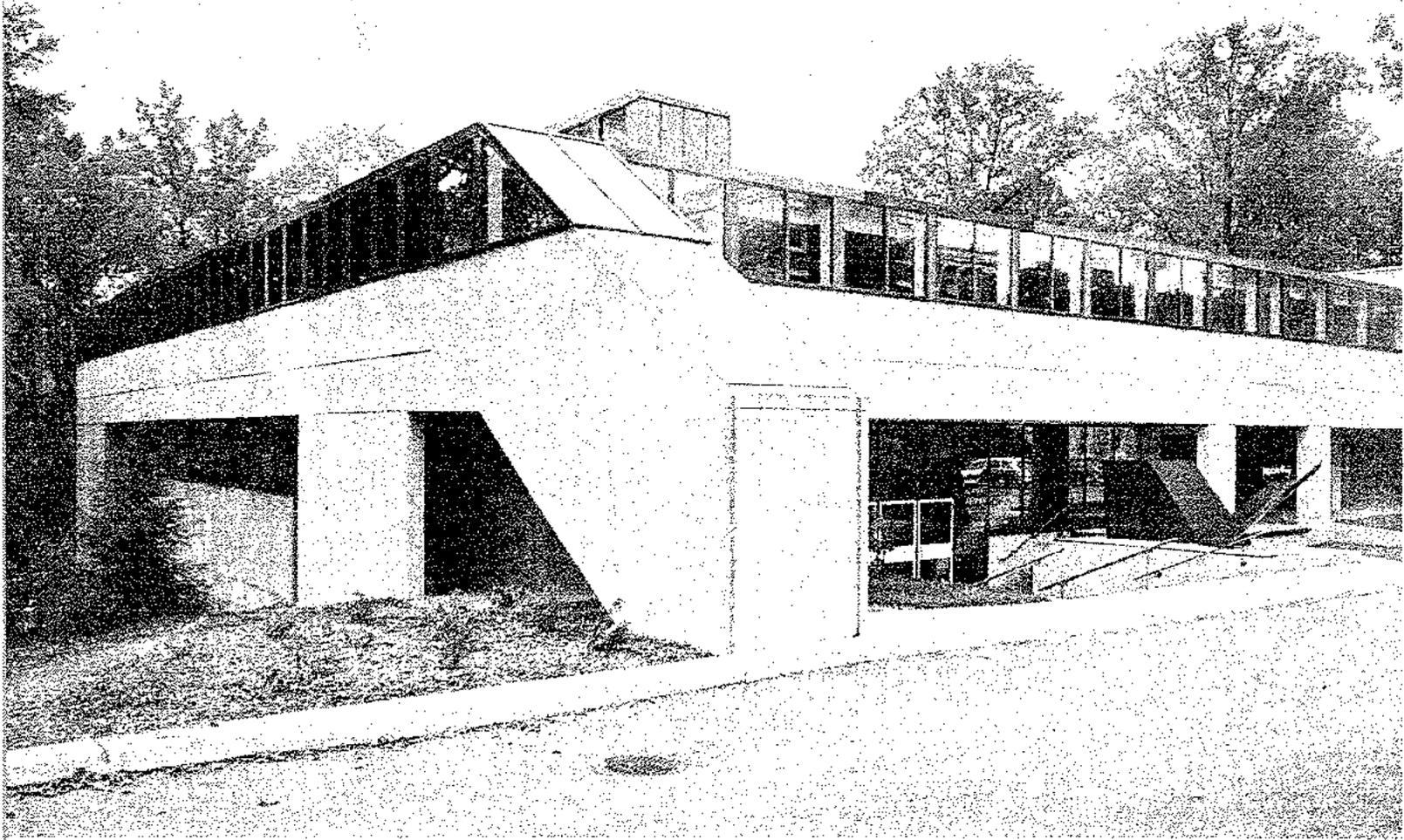
	2 種美觀地區
	3 種美觀地區
	4 種美觀地區

慶州市美觀地區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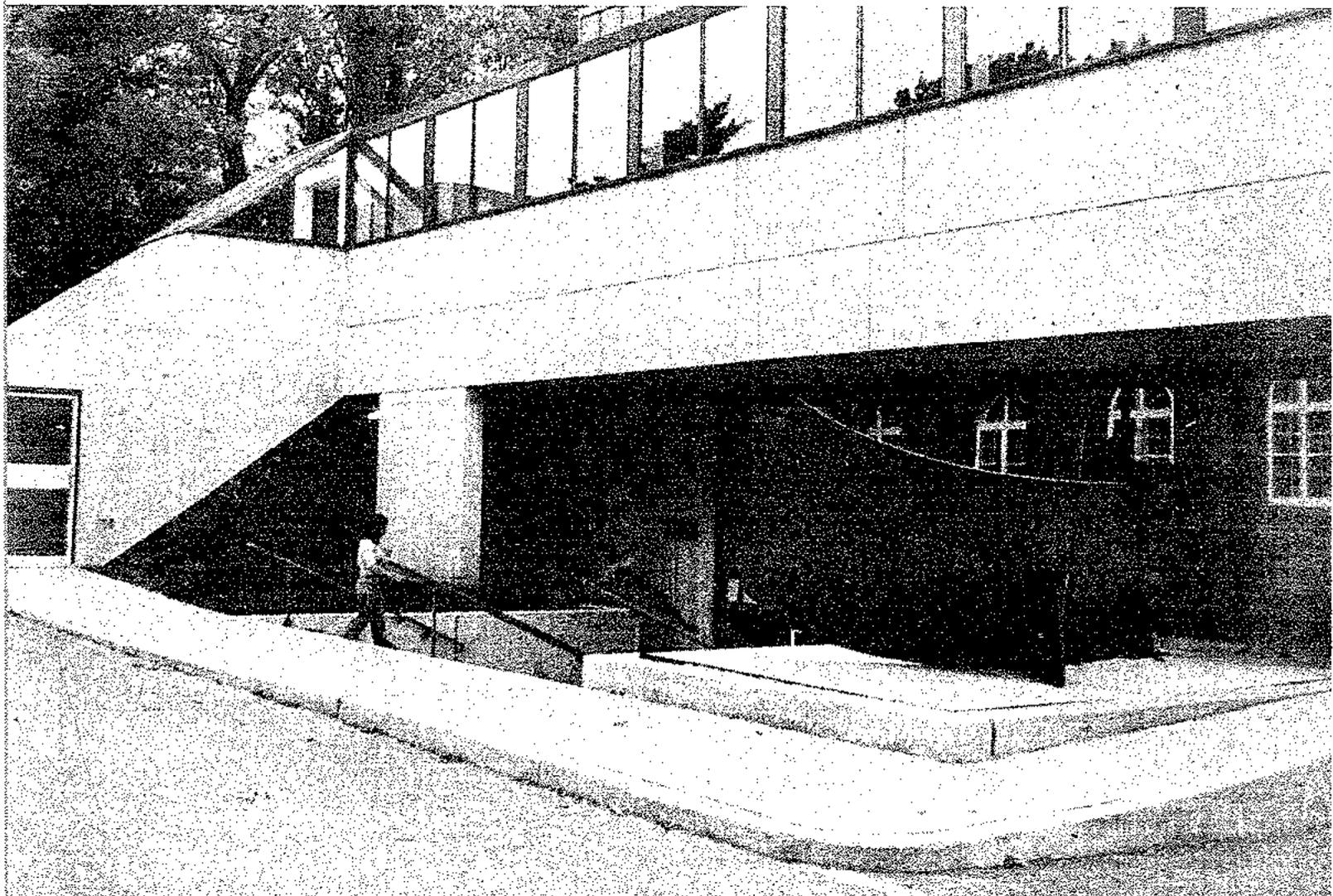


불국사 신택지 상가점포 배치도





海外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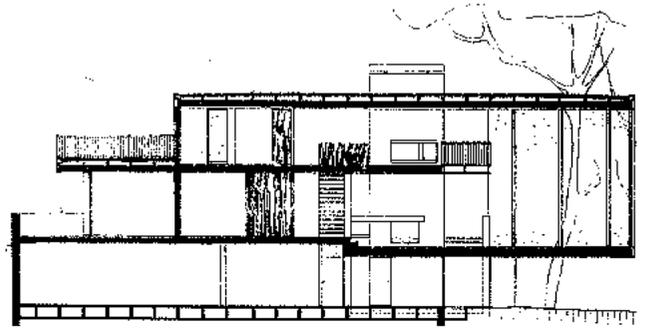


가루다湖畔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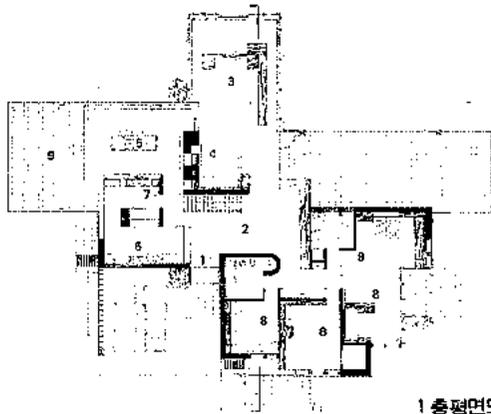
設計 : ANGELO, MANGIAROTTI

位置 : 이탈리아, 베네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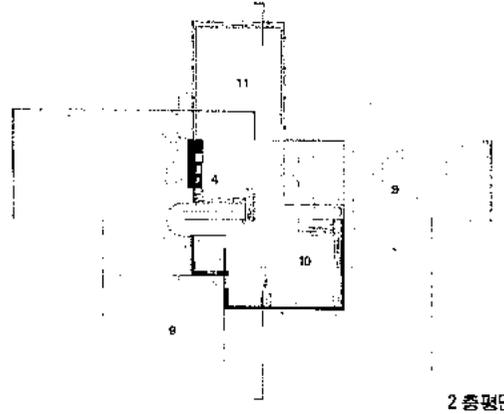
1. 入口
2. 玄關 HALL
3. 居室
4. 壁爐爐
5. 食堂
6. 부엌
7. 家事室
8. 寢室
9. 데라스



△ 断面圖



1층평면도



2층평면도

▼ 外觀



設計概要

居室에서 본다 居室内部 >

“만차로디”가 設計한 住宅을 理解하기 가장 쉬운 方法은 VOLUME 調整의 重要性 조밀과 分散의 關係 말하자면 透明유리의 純粹性으로 同一視되는 空間變化에 對해서 考案하는 同時에 平面計劃의 熟考와 吟味에서 부터 始作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본다.

이 建물이 있는 地는 湖岸에서 4方으로 아직은 어린 杉木, 오리부 숲으로 뒤덮혀 있다.

겨울철에도 草木에 依해 視界가 가려워져 있어 낮은 視界는 甚 좋지 못하다.

建물이 丘陵頂上 가까워 있어 눈대침 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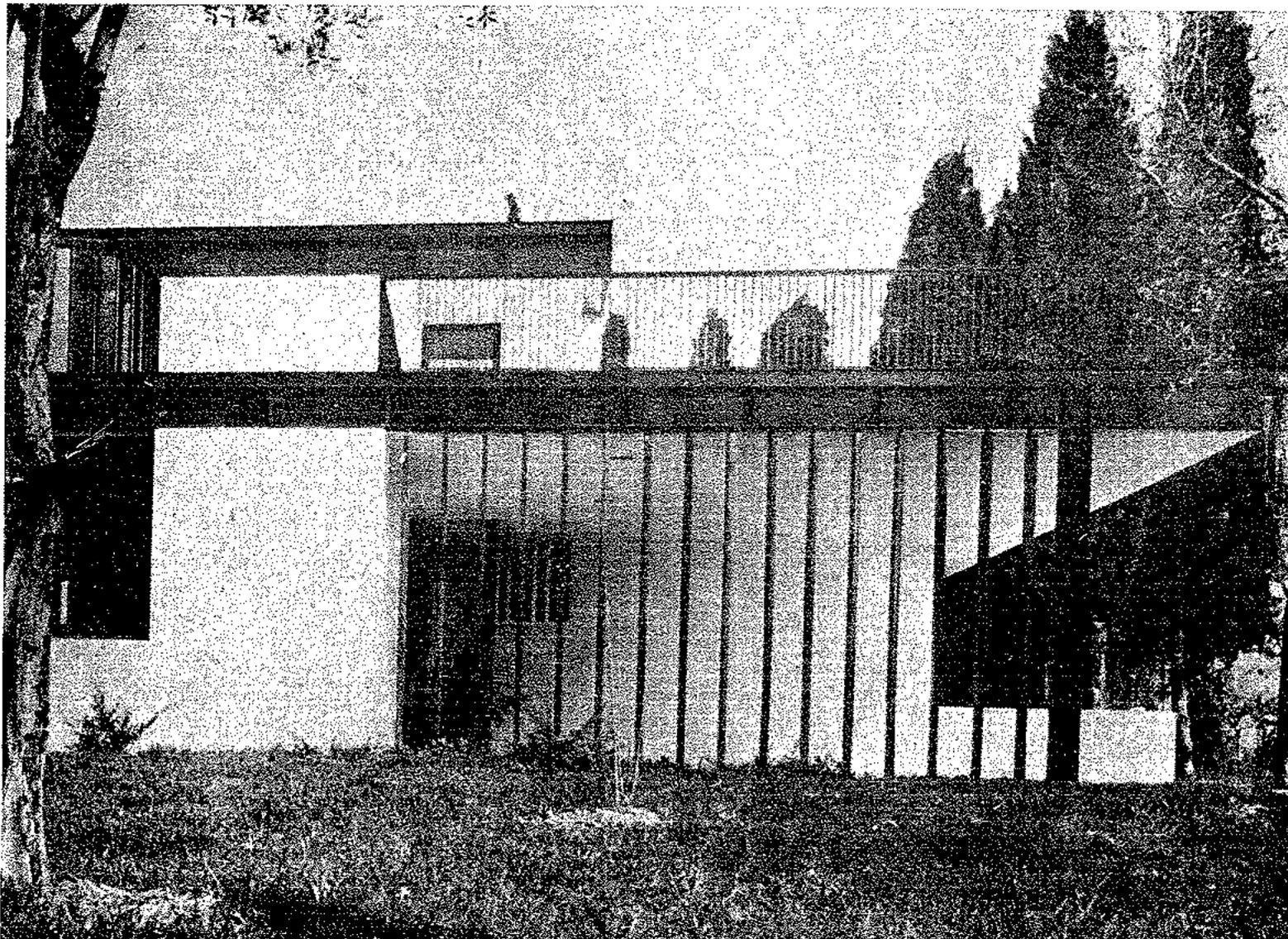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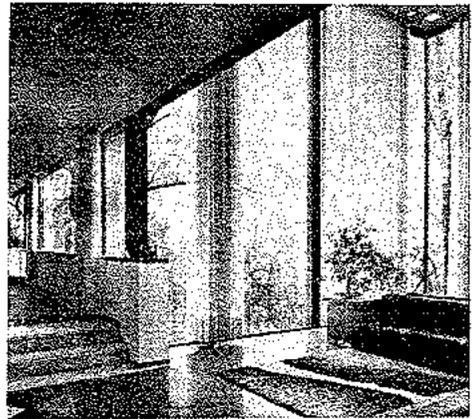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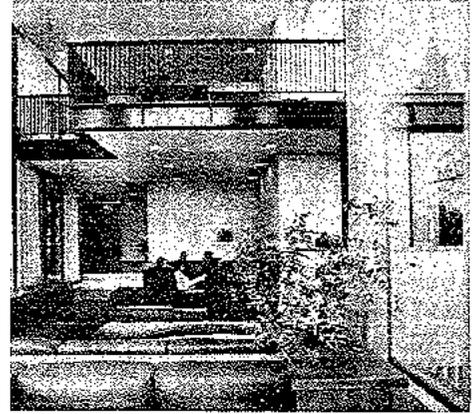
이 住居에서의 眺望은 저멀리 傾斜된 大地 저쪽 푸른 湖水의 湛湛한 水面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 住宅에 對한 作家 “만차로디”의 最初의 態度는 最大限의 透明感으로 環境 모두를 적절히 調和시켜 오리부 가는 杉木等 樹林속에 집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즉 이 집은 푸르름속에 存在한다. 그러나 建物の 基本的인 構造에 對해서 大現化 結合되어진 方法때문에 結局 強力한 光線의 網媒作用의 要素로 되어 있는 居室의 鮮명한 (내 다저·보)가 보기 좋게 突出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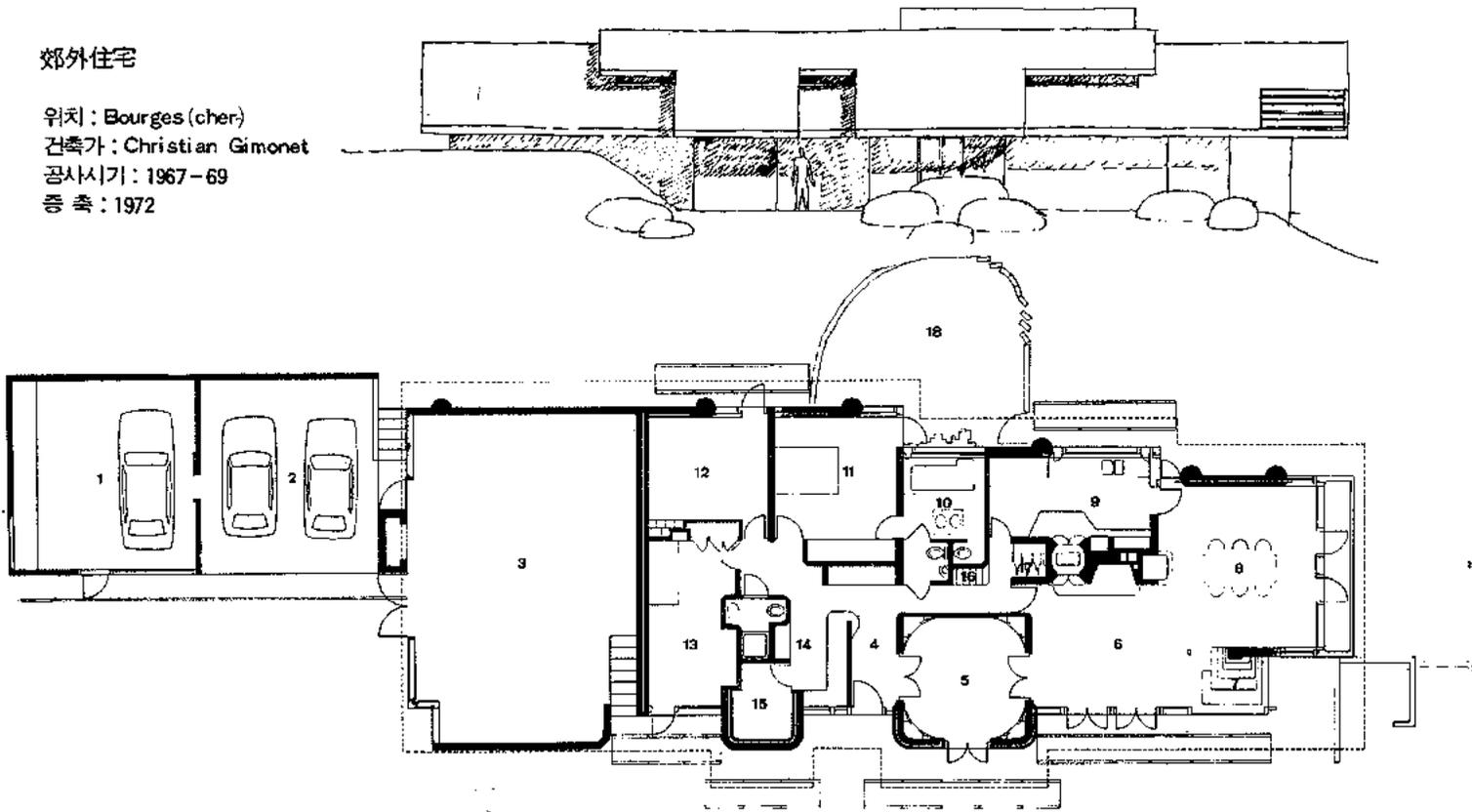
實際 유리도 처리된 壁面積이 内部와 外部의 空間의 共存을 얻어 環境을 統合하는 유리를 통한 아름다운 眺望을 可能케 하고 있다.

다시 居室의 2층의 높이를 갖는 空間, 그 剪斷의 偉業은 그自身 사람으로부터 羨望이요, 住居의 모든 點에서 이곳으로의 踏差, 不變의 參照로서 強調되어진 웅장한 尺數의 組立으로 모두가 追從하는 것도 事實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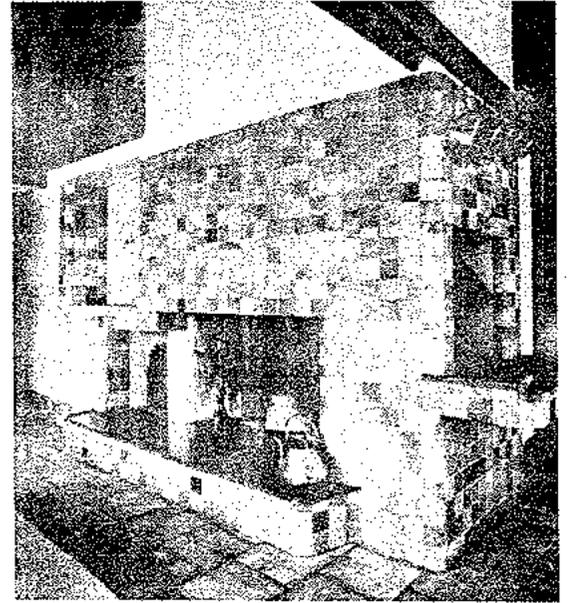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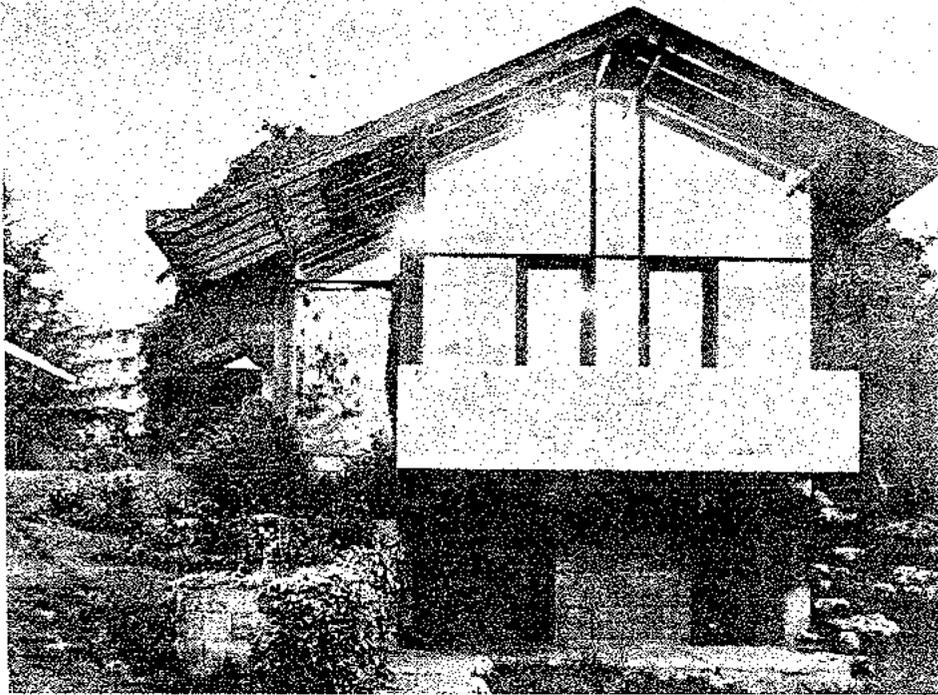
郊外住宅

위치: Bourges (cher)
 건축가: Christian Gimonet
 공사시기: 1967-69
 증축: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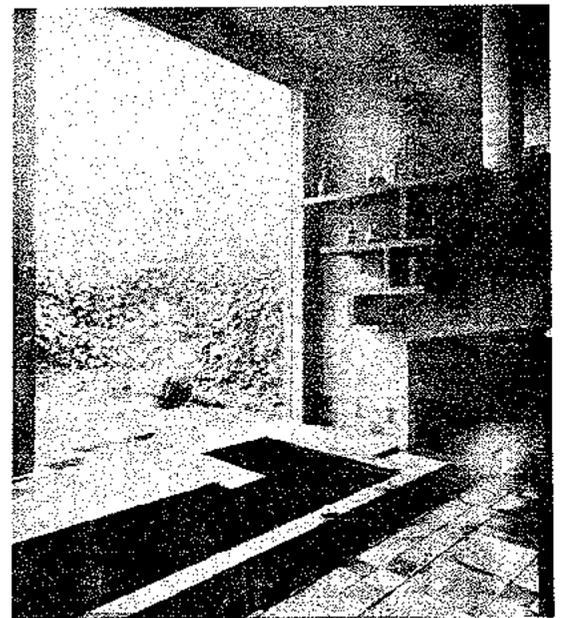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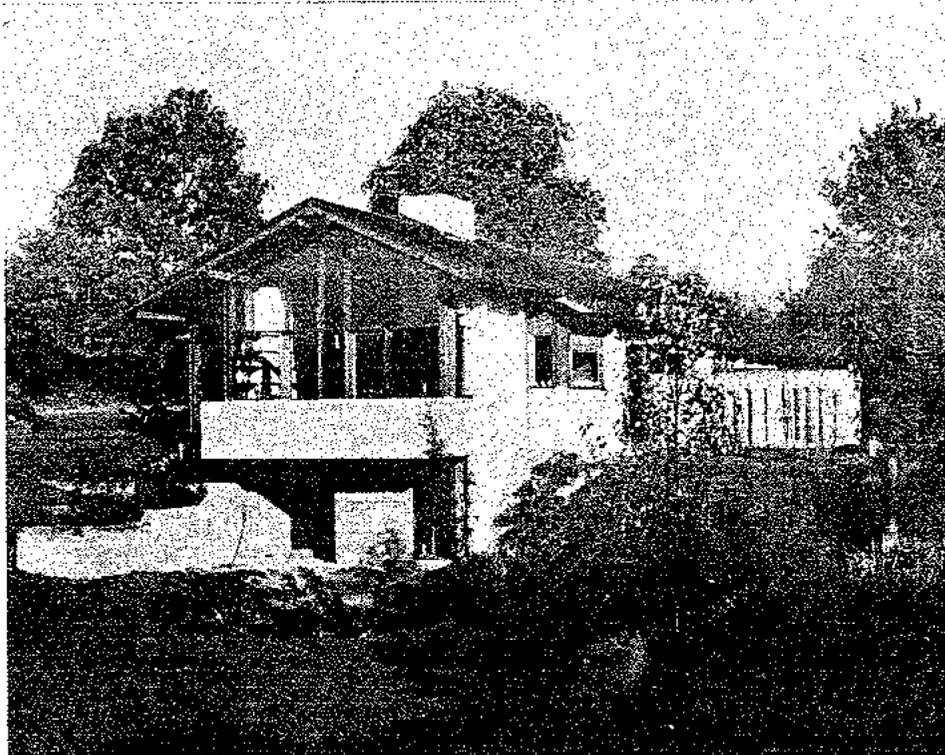


- ① 차고·작업장, 1972년증축 ② 차고·증축 ③ 유희실·증축 ④ 현관 ⑤ 소용접실 ⑥ 거실 ⑦ 욕실 ⑧ 식당 ⑨ 부엌
- ⑩ 욕실 ⑪ 부부침실 ⑫ 2인침실 ⑬ 침실 ⑭ 세탁 저장실 ⑮ 세탁실 ⑯ 로지아 ⑰ 정원용구 ⑱ 내정(内庭)





위사진의 주택 중앙에 있는 벽난로는 리나르타일(석재와 같은)로 조화된 것을 실감케한다. 아래 사진의 욕실은 내장과 직접 연결되어 슈나이데르타일로 조화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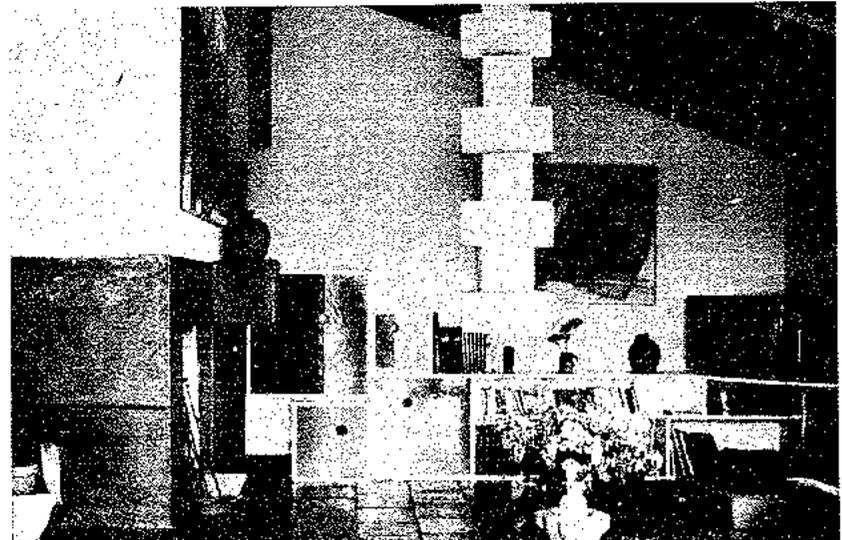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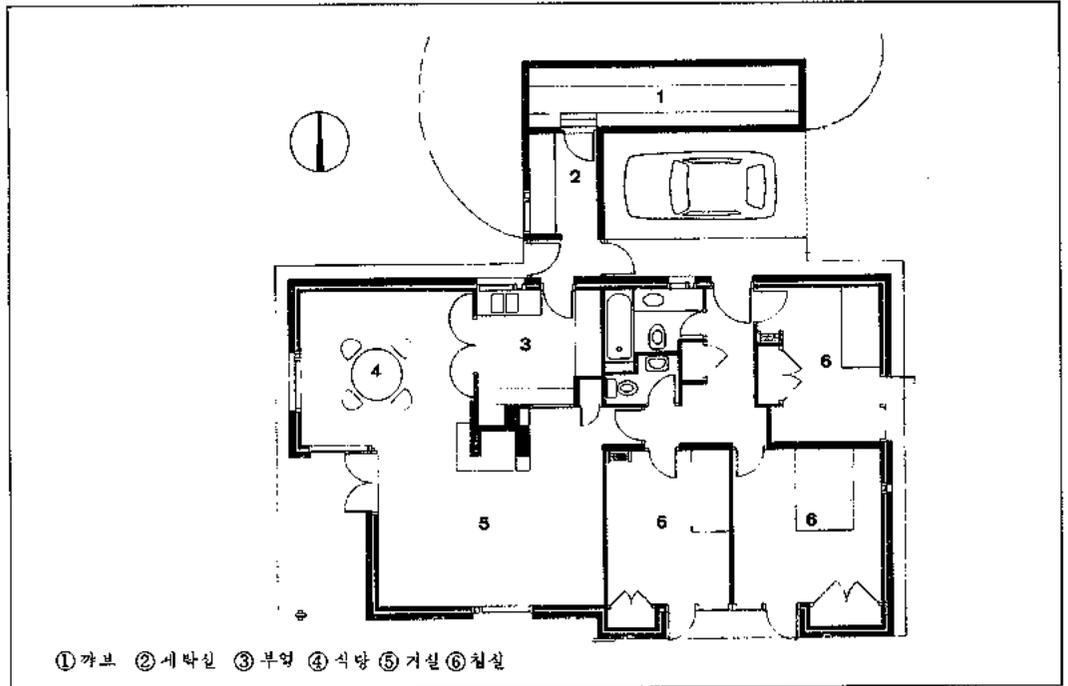
마르탱 주택(Mason Martin)

위치 : Cosne-sur-Loire (Nievre)

건축가 : 크리스띠앙 지모네

면적 : 주거용 98m² 부속건물 : 29m²

공사기간 : 1973년 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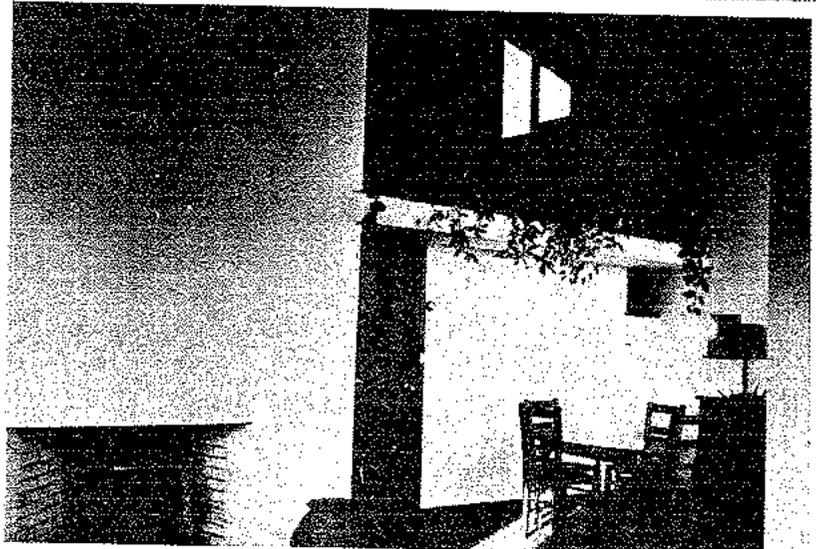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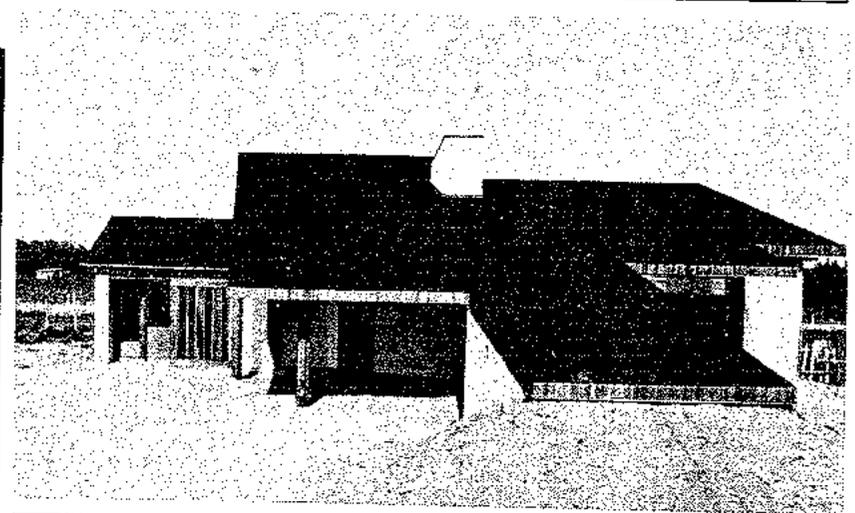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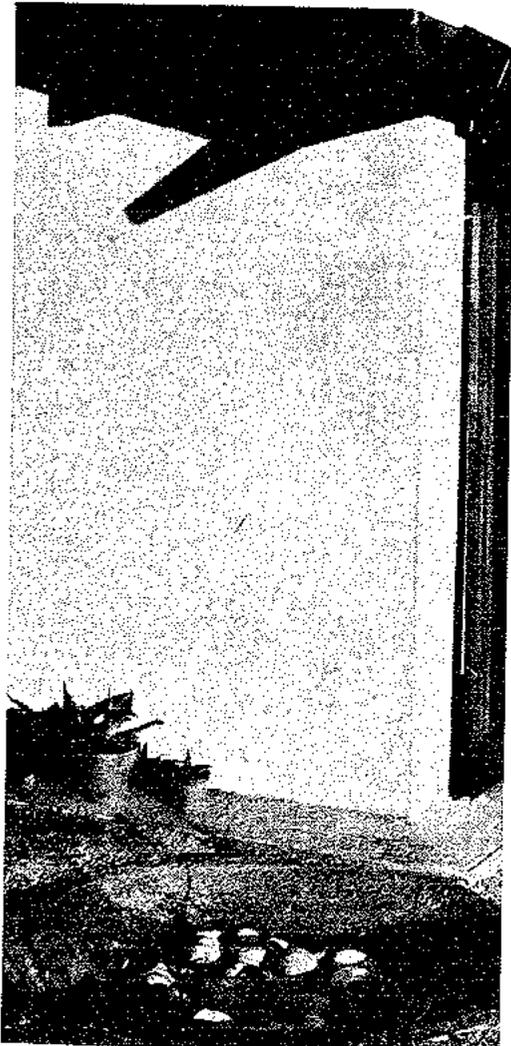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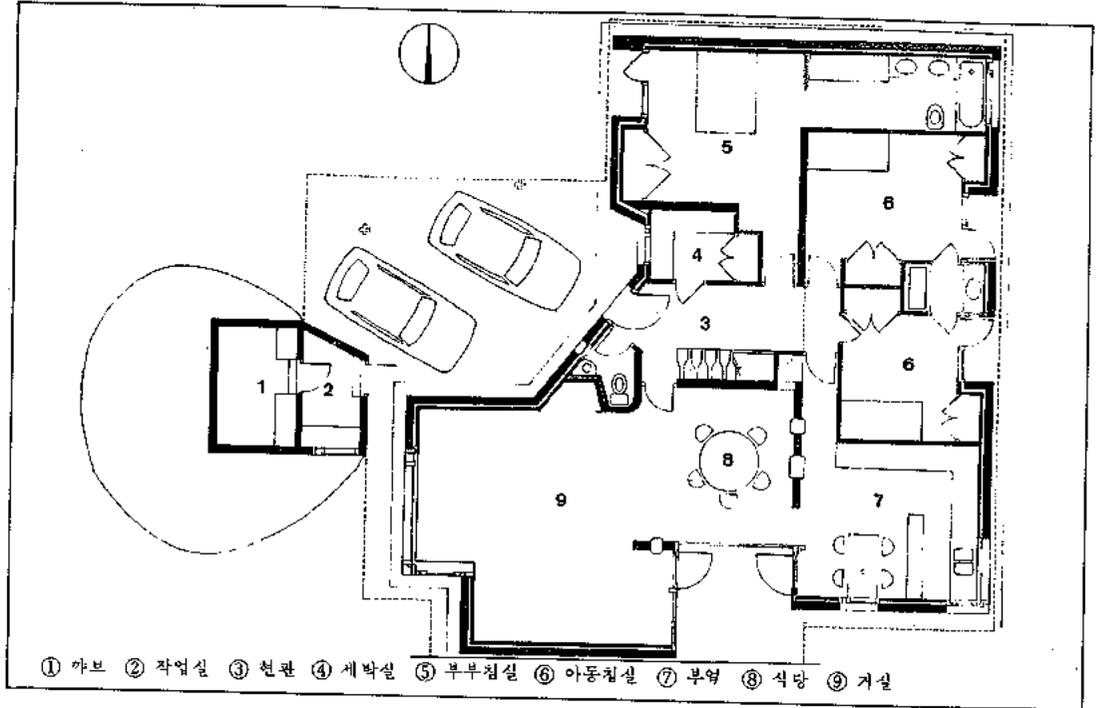
뎃세리 주택 (Maison Dessery)

위치 : Jou par Vasselay (cher)

건축가 : 그리스띠앙 지모네

면적 : 주건물 135m² 부속건물 45m²

공사기간 : 1974년 8개월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事務所 移轉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이 상 연	홍진건축연구소	동대문구중화동 270-25	92-3860	2-1558	2-351	76. 2. 16
이 창 교	신일건축	삼선동 5가 334	93-3679	2-235	2-289	"
유 흥 근	한성건축종합계획연구소	동대문구신설동 1가 103-3	53-2068	2-832	2-405	"
정 정 지	한성정정지건축연구소	청담동산67-120	57-0660	2-1714	2-424	"
장 술	장 건 사	관악구봉천동 419-3	67-4830	2-934	2-214	"
박 윤 상	신태양건축연구소	강남구반포동 113-1	57-4474	1-849	1-662	"
이 상 문	한성건축기술공사	동대문구신설동 103-13	53-2068	2-701	2-361	"
김 용 주	한성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신설동 103-3	54-3459	2-654	2-109	"
김 요 철	범한건축기술공사	중구예관동70-7	27-0467		2-254	"
김 용 수	한일종합건축연구소	중구북창동 135-1	22-7475	1-616	1-151	"
모 연 홍	모연홍건축연구소	중구양동 512	22-1053	1-495	1-181	"
김 종 우	대성건축설계사무소	성북구삼선동 5가 332	93-3679	2-7	2-13	76. 2. 18
이 태 봉	태봉건축연구소	종로구송인동1256	94-3131	2-808	2-380	"
허 경	우 성 건 축	동대문구신설동 102-4	94-7857	1-289	1-38	"
조 정 희	서울건축설계사무소	관악구봉천동 702-23	67-0159	1-1289	1-512	"
서 규 철	서영건축설계사무소	당산동 3가 257-11	64-3464	2-1703	2-416	"
김 갑 중	대창종합건축공사	강남구신사동78-5	57-1096	2-1387	2-385	"
김 연 창	바다건축연구소	당산동 3가 216	63-7205	2-417	2-327	76. 2. 19
임 의 성	삼도시건축연구소	중구수표동11-25	25-6480	1-1286	1-561	76. 2. 23
서 현 진	대 한 공 무 소	당산동 3가 257-11	64-3464	1-299	1-257	"
김 학 석	서울종합김학석건축연구소	종로구교남동73	72-2381	1-1091	1-455	"
이 중 완	서울종합이중완건축연구소	종로구교남동73	72-2380	2-309	2-142	"
최 윤 일	대하건축설계사무소	종로구도림동 135-1	74-3662	1-1687	1-484	"
신 종 우	연립건축연구소	중구을지로 3가 296-2	26-4270	1-1177	1-554	"
백 중 성	우진건축연구소	관악구봉천동 406-1	87-0114	2-317	2-360	76. 2. 26
이 준 의	선홍건축연구소	관악구사당동 255-2	87-3754	2-1549	2-326	"
한 기 설	한 건 축 사	당산동 3가 220	63-2837	1-896	1-502	"
조 대 응	로양건축설계사무소	삼선동 5가 298-3	93-5124 94-8665	2-395	2-276	"
이 정 식	도 양 건 축	"	"	1-286	1-399	"
김 성 희	김성희건축설계사무소	당산동 3가 242	63-9479	2-379	2-118	"
박 승 욱	해광건축설계사무소	"	63-5782	1-253	1-364	"
문 황 수	성성건축연구소	삼선동 5가 298-3	93-5124	2-818	2-196	"
홍 성 부	대우개발주식회사	중구양동 286	28-7823	1-593	1-579	"
이 재 제	승선건축연구소	독산동산61-5		1-1097	1-446	"
박 광 진	수복건축설계사무소	관악구봉천동 339-1	67-4830	1-473	1-392	"
朱 漢 烈	공익건축	서울서대문구합동27-3	75-7602	1-101	1-46	
김 대 성	에건사건축김대성연구소	강남구청담동산67-68	57-7008 8259	1-1112	1-629	76. 2. 6
강 신 관	여건사건축강신관연구소	"	"	2-1099	2-253	"
유 백 원	에건사건축유백원연구소	"	"	2-1702	2-425	"
정 구 은	정환경건축연구소	중구평동 2가 7-3	29-7558	2-1718	2-417	76. 2. 7
이 태 회	성도건축기술공사	마포구마포동 136-1	71-0846	2-364	2-66	"
송 진 호	대우건축사합동사무소	동대문구신설동 102-4	94-7857	1-524	1-143	76. 2. 9
홍 정 길	홍정길건축연구소	영등포구망산동 3가 228-3	64-3261	2-1347	2-400	"
이 용 의	삼미건축연구소	종로구관수동15	25-5758	1-44	1-632	76. 2. 16
徐 廷 瀟	徐서 정 호로 改名	서울 관악구 사당동708-65	강남건축사합동관악3지구	電話 87-2287		

서울特別市支部
轉出會員

姓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정 득 명	동대문구합동한도건축설계공사	동대문구신설동 101-7	93-6992	1-614	1-518	76.2.6
허 철	삼흥건축	강남구서초동70-1	57-2777	1-1485	1-673	76.2.12
김 광 한	대광건축설계공사	동대문구신설동 101-7	52-1269	1-75	1-658	76.2.13

休業中 재개업會員

박 태 식	대한건축연구소	관악구봉천동 439-4	68-1157	2-918	2-413	76.2.14
-------	---------	--------------	---------	-------	-------	---------

재 입 회

이 문 우	한국환경계획연구소	종로구외룡동 2	73-8481	1-1043	1-464	76.2.27
-------	-----------	----------	---------	--------	-------	---------

休業會員

오 흥 환	반도도시기술공단	중구북창동 104	28-1850	1-1262	1-476	76.2.14
-------	----------	-----------	---------	--------	-------	---------

釜山直轄市支部
事務所 移轉

손 재 경	중부건축사합동동양설계사	부산 중구남포동 1가28	23-0667		부산중구호 56	76.2.5
윤 근 수	부국설계사				부산중구호 26	
황 재 호	부민설계사				부산중구호 25	
김 우 송	청구설계사				부산중구호 32	
오 입 남	남미설계사				부산중구호 29	
이 상 권	미진설계사	영도구영선동 1가21	49-2180		부산시호 14	
김 현 태	아산설계사					
이 경 석	이경설계사				서구호 5	
최 안 남	한국건축설계공단최안남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191-1	6-6763		제 138	76.2.7
김 영 수	한국건축설계공단김영수사무소				제 28	
반 미 태	한국건축설계공단반미태사무소				제 127	
천 창 길	북부지구건축사합동양서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폐법동 835-5	9-2087		제 13	76.2.
조 재 현	전창건축설계사		9-2862		제 14	
김 성 길	북부산건축설계사		9-2087		부산진제 22	
이 희 응	홍인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덕포동 710-1	9-1840		부산진제 43	
김 덕 부	새부산건축사		9-2862		부산진제 50	
정 용 응	대명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가야동 180	3-0715		부산진제 49	
김 건 랑	명원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폐법동 835-5	9-4411		부산진호 33	
심 국 남	동명건축설계사		9-1449		부산진호 38	
김 영 상	이명건축설계사		9-2087		북제 1호	
황 경 호	경진건축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399-1			부산진구제 78	76.2.10
이 외 롱	원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남구대연동1745-1	8-2739		남 233	76.2.9
조 정 승	남구합동설계사대한건축	부산시남구광안동98-35	7-3543		동래구호 6	
이 태 호	남영건축	부산시남구광안동89-2	7-2419		동래지구호 11	76.2.13
백 운 수	진양건축		7-4370		부산진구호 34	
도 상 도	선명건축		7-4370		동래구호 41	76.2.
박 종 석	신안건축설계사	부산시동래구북천동 342-2	53-7724		동래구호 16	
허 인	화양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부전1동352-14	3-9626		진구호 35	76.2.18
박 영 애	샘건축연구소	부산시동래구북천동342-3	53-7724		진구호 81	76.2.21

京畿支部

事務所 移転

姓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송 기 준	인천북구건축사합동사무소	인천시북구부평동 109			25호	
허 집	“	“			13호	
김 영 배	“	“			33호	
김 기 배	“	“			19호	
오 성 윤	합동건축사무소	경기도성남시신흥동 180외21호	2-0554		79호	75. 11. 26
홍 행 남	홍남건축설계사무소	성남시신흥동3436-14호			73호	76. 3. 3
정 훈 성	영진건축기술공사	부천시삼곡동 588-1	5-1004		61호	74. 11. 8
정 진 민	이천건축설계사무소	성남시태평동 379			74호	74. 3. 6
이 병 록	삼기종합설계사무소	수원시교동 135			28호	69. 4. 28
박 호 남	창성건축설계사무소	수원시교동81			제 2 호	76. 1. 9
김 문 증	부인건축사무소	경기도부천시삼곡 1 동 538			64호	76. 1.

재 개 업

박 증 윤	삼보건축설계사무소	광주군광주면경안 1리74-1		2-1535	광주 1호	76. 2. 23
-------	-----------	-----------------	--	--------	-------	-----------

忠清南道支部

転入会員

박 영 호	부여건축설계사무소	부여군부여읍 등남리 711		2-1521		76. 1. 21
-------	-----------	----------------	--	--------	--	-----------

全羅北道支部

事務所 移転

印 柱 成	인주성건축연구소	全州市慶園洞 1가76	2-5033 2-8667		1-2	76. 1. 10
金 成 根	대성건축설계사무소	“	2-2884 2-6335		1-3	“
金 光 煥	국제건축설계사	“	2-5281		1-5	“
李 漢 圭	이한규종합건축사무소	“	“		1-9	“
金 仕 鈺	김사옥건축연구소	“	“		1-14	“
崔 錫 珪	최석규건축사무소	“	“		1-15	“
金 光 瑞	전일건축사	“	“		1-16	“
金 致 述	협성건축설계사	“	“		1-17	“
趙 秉 濟	동아건축설계사무소	“	“		1-18	“
宋 天 奎	일신건축사	“	“		1-15	“
李 榮 洙	부인건축설계사무소	全州市慶園洞 3가56	2-4343 2-3051		2-19	“
俞 鐵 鉀	유탑건축연구소	“	2-5804 2-5964		2-21	“
全 炯 植	동서건축연구소	“	“		2-24	“
李 相 激	구미건축사무소	“	“		2-25	76. 3. 5
朴 鍾 允	대지건축설계사무소	“	“		2-29	76. 1. 10
李 擊 鎭	시민건축설계사	전주시경원동 1가 128	2-8724		2-13	76. 2. 5
崔 洛 靈	상중건축설계사무소	“	2-6649		2-26	“
白 南 國	남국건축설계사	“	“		2-30	“
柳 龍 順	동일건축사무소	“	“		2-31	“

全羅南道支部

事務所 移転

洪 鍾 植	미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대안동 190-6	2-9805	1-1256	광주17	76. 1. 30
玄 俊 鐵	세광건축설계사무소	“	2-5554	2-1018	광주 15	“
鄭 在 京	신진건축설계사무소	“	2-0359	2-1023	광주 16	76. 1. 28

全羅南道支部
事務所 移轉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高 在 善	중앙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동구대인동 190-6	2-7977	2-606	광주 4	76. 1. 30
周 光 根	아주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동구 광산동 100-10	2-6926	2-622	광주 7	76. 2. 3
千 渡 吉	신일건축연구소	광주시 동구 광산동 69-5	2-3607	2-1316	광주 27	76. 2. 4
朴 得 洙	머성설계사	광주시 동구대의동 75	2-2614	2-669	광주 9	☞
高 善 柱	고선주건축연구소	광주시 동구금남로 5가 99	3-2703	2-1324	광주 34	76. 2. 6
安 奉 炅	한진건축연구소	☞	3-2703	2-1318	광주 30	☞
朴 永 憲	무등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동구금남로 5가 133	3-2703	2-54	광주 1	☞
趙 東 熙	현대건축사무소	☞	4-2597	1-175	광주 3	76. 2. 10
吳 茂 松	동아건축설계사무소	☞	4-2937	2-53	광주 3	76. 2. 9
宣 在 圭	고려건축연구소	광주시 동구대인동 311-2		2-1729	광주 31	76. 2. 16
曹 善 京	제일건축사무소	☞	2-6944	2-678	광주 11	☞
朴 永 東	대한건축연구소	☞	2-6944	2-178	광주 12	☞

慶尙南道支部
事務所 移轉

이 치 구	경남설계사	마산시 중앙동 3가 3-59	2-1743		경남제 34	76. 2. 14
김 정 수	김정수건축설계사무소	☞	2-3868		경남제 35	☞
이 강 진	합성건축설계사무소	☞	2-2397		마산제 8	☞
최 봉 형	현대건축설계사무소	☞	2-5218		마산제 2	☞

濟州道支部
事務所 移轉

강 민 범		제주시 1도 1동 1451-1			제 13호	76. 2. 20
-------	--	------------------	--	--	-------	-----------

〈人事發令〉

지난 제 5회 이사회에서 濟州支部 事務所長에 洪鎭豪 3월 5일 宇
全南支部 事務所長에 鄭東柱 3월 18일 宇
各各 임명발령 하였다.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本籍	서울특별시	電話	95-2408
姓名	백인기	免許番号	1-1032
名稱	한독건축연구소	登録番号	694
所在地	동대문구중화동 270-25	年月日	76. 2. 10



本籍	서울특별시	電話	72-2380
姓名	김홍주	免許番号	1399
名稱	서울종합건축 김홍주건축연구소	登録番号	695
所在地	중로구교남동73	年月日	



本籍	부산직할시	電話	27-4013
姓名	양광용	免許番号	1-1456
名稱	한국건축기술연구소	登録番号	689
所在地	서울중구충무로2가52-4	年月日	76. 1. 13



本籍	경기도	電話	94-3131
姓名	李圭興	免許番号	403
名稱	선일건축기술공사	登録番号	403
所在地	중로구충인동1256 (영화빌딩 401)	年月日	76. 2. 16



本籍	전라북도	電話	21-5755
姓名	김원석	免許番号	1-1092
名稱	홍일건축사무소	登録番号	696
所在地	서울중로구낙원동 138-1	年月日	76. 2. 19



本籍	서울특별시	電話	57-8365
姓名	박남준	免許番号	1159
名稱	제일건축설계사무소	登録番号	698
所在地	강남구학동산16-91	年月日	76. 2. 27



本籍	경상북도	電話	68-2741 (주)4516
姓名	김종호	免許番号	1-1417
名稱	일성건축연구소	登録番号	685
所在地	서울관악구신림동 445-4	年月日	76. 2. 28



本籍	충청남도	電話	21-1518
姓名	이병권	免許番号	1-819
名稱	미로건축연구소	登録番号	697
所在地	서울중구초동10-1	年月日	76.



本籍	경상북도	電話	27-8412
姓名	홍순덕	免許番号	1-1410
名稱	홍덕순건축연구소	登録番号	699
所在地	중구예관동70-7	年月日	76. 3. 5



本籍	서울특별시	電話	57-8998
姓名	金奎泰	免許番号	327
名稱	金龍建築事務所	登録番号	434
所在地	서울강남구학동66-2	年月日	76. 2. 19



本籍	경기도	電話	55-1681
姓名	都會滿	免許番号	2-1643
名稱	종합주택건축연구소	登録番号	412
所在地	성동구구의동68-31	年月日	76. 3. 2

釜山直轄市支部 新入會員



本籍	부산시	電話	7-2997
姓名	박영투	免許番号	1-1341
名稱	건축공방에틱	登録番号	249
所在地	부산시 남구 광안동 669-8	年月日	76. 2. 4



本籍	충청북도	電話	22-2293
姓名	김석원	免許番号	2-1006
名稱	해동건축연구소	登録番号	250
所在地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6	年月日	76. 2. 27

忠清北道支部 新入會員



本籍	충청북도	電話	
姓名	정완래	免許番号	1-850
名稱	금성건축연구소	登録番号	
所在地	충북청주시북문로3가93-1	年月日	66. 3. 21



本籍	충청남도	電話	2980
姓名	빈길원	免許番号	2-1362
名稱	영 건축연구소	登録番号	2-6
所在地	청주시북문로 2가 122-1	年月日	76. 2. 13

忠清南道支部 新入會員



本籍	충청남도	電話	3-2721
姓名	박태우	免許番号	2-81
名稱	유림건축설계사무소	登録番号	
所在地	대전시대흥동 504-5	年月日	76. 2. 12

全羅南道支部 新入會員



本籍	電 話
姓名 박 현 석	2 - 6431
名稱 대림건축연구소	免許番号 2 - 1320
所在地 광주시동구광산동69-5	登録番号 36
	年月日 76. 2. 9



本籍	電 話
姓名 김 성 선	2 - 6865
名稱 동인건축연구소	免許番号 2 - 1725
所在地 광주시동구장동89-2	登録番号 광주35
	年月日 76. 1. 29



本籍	電 話
姓名 정炳汶	2 - 2626
名稱 반도건축연구소	免許番号 1 - 1287
所在地 광주시동구광산동 100-10	登録番号 광주25
	年月日 76. 2. 6



本籍	電 話
姓名 김 현 준	4 - 2722
名稱 삼호건축설계사무소	免許番号 2 - 1451
所在地 광주시유동 109-1	登録番号 광주37
	年月日 76. 2. 13

慶尚北道支部 新入會員



本籍 경상북도	電 話
姓名 고 규 환	
名稱 현대건축설계사무소	免許番号 2 - 949
所在地 경북문경군점촌읍점촌리 245-3	登録番号 1
	年月日 76. 2. 10

慶尚南道支部 新入會員



本籍 경상남도	電 話
姓名 백 흥 기	1019
名稱 백운건축설계사무소	免許番号 2 - 907
所在地 경남밀양군밀양읍대일동67-1	登録番号 밀양1호
	年月日 76. 2. 17

月間協會動靜

제 4 회(정기) 이사회

일시 : 1973. 3. 3 (수) 14:00

장소 : 협회 회의실

출석임원 :

- 회 장 이규복
- 총무이사 박성규
- 이 사 이홍수
- 이 사 성일영
- 이 사 김진성

참석임원 :

- 감 사 박래운
- 서울시지부장 이봉로

부의안건 :

1. 대의원 승인의 건
2. 경주분소장 취임 승인의 건
3. 김해분소 업무 중단 해제의 건
4.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임명 및 호봉 결정의 건
5. 직원 채용의 건
6. 건축물 유지 관리보고 업무보수 효율에 관한 건
7. 감리 업무에 대한 실적회비 징수에 관한 건
8. 기타 사항

제 5 회 이사회(임시)

일시 : 1976. 3. 10 (수) 14:00

장소 : 협회 회의실

출석임원 :

- 회 장 이규복
- 총무이사 박성규
- 이 사 성일영
- 이 사 김진성

참석임원 :

- 감 사 박래운
- 서울시지부장 이봉로

부의안건 :

1. 정관 윤리규약 및 제규정 개정안 심의건
2. 197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1회추가
개정 예산안 심의
3. 총회 회순 결정의 건
4.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5. 전남지부 사무국장 임명 및 호봉 결정의 건
6. 직원 채용의 건
7. 기타 사항

제 1 회 기획위원회

일시 : 1976. 3. 8 14:00

장소 : 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

1. 정관 개정안
2. 윤리규약 개정안
3. 인사규정 개정안
4. 윤리 위원회 규정 개정안
5. 회계 규정 개정안
6. 추경 예산안
7. 기타 사항

출석 :

- | | | |
|--------|-----|-----|
| 총무이사 | 박성규 | 김춘배 |
| 서울시지부장 | 이봉로 | 송관식 |
| 부산시지부장 | 유광택 | 김정지 |
| 충남도지부장 | 박홍우 | 최광현 |
| 전남도지부장 | 최춘화 | 이조원 |
| 경남도지부장 | 윤상봉 | 오완 |
| | | 박래운 |

제 2 회 지부장회의

일시 : 1976. 3. 9 14:00

장소 : 협회 회의실

- 출석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이홍수
 이 사 성일영
 이 사 김진성

참석임원 :

- 감 사 박래운
- 서울특별시지부장 이봉로
- 부산시지부장 유광택
- 경기도지부장 김일호
- 강원도지부장 이상철
- 충북도지부장 오석균
- 충남도지부장 박홍우
- 전북도지부장 이영수
- 전남도지부장 최춘화
- 경북도지부장 윤옥
- 경남도지부장 윤상봉
- 제주도지부장 강은홍

부의안건 :

1. 정관 개정안
2. 윤리규약 개정안
3. 인사규정 개정안
4.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5. 회계규정 개정안
6. 추경 예산안
7. 기타 사항

庶政刷新 業務推進에 관한 本會 李圭福 會長 指示事項

1. 自率의 周邊淨化에 관한 指示
 - 1) 免許貸與者 事件 부로커를 索出 三月末까지 告發할것.
 - 2) 2중職을 索出 各地部에서 根源的인 制裁措置를 가할것.
 - 3) 過當競爭 덩핑 行爲等を 索出 各地部에서 措置할것.
2. 制度改善 方案에 관한 指示
不條理 척결을 爲한 制度的 改善方案을 各地部別로 研究하여 3月15일까지 本部에 提出할것.
3. 行政能率 培養 및 業務處理에 관한 指示
 - 1) 이미 示達한 “行政指針”에 依據 各地部長은 行政 合理化를 爲한 制限措置를 講究하고 確認 業務에 對한 評價 分析을 부단히 繼續할 것. 特히 全會員들에게 配付하는 諸 資料는 지체없이 處理하고 그 結果를 必히 確認할 것.
 - 2) 變態經理 不當支出은 一切 容납되지 않을 것이니 예산 집행의 合理化와 予算節減을 爲해 最先을 다 할 것.



訓示를 하는 本會 會長



會議에 參席한 任職員들의 모습

決議文

1. 우리는 政府의 庶政刷新施策에 呼應하여 모든 不正, 不條理 척결에 앞장선다.
2. 우리는 庶政刷新에 관한 建設 部長官 및 會長의 指示事項을 徹底히 遵守履行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最善을 다한다.
3. 우리는 우리의 業務와 關聯된 周邊의 淨化運動을 自律的으로 果敢히 展開한다.



質疑에 나선 任職員

庶政刷新全國支部任職員 및 分所長 會議

지난 2月28日 本協會에서는 庶政刷新 全國支部任職員會議을 開催하여 庶政刷新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政府施策에 呼応, 會員스스로의 周邊淨化를 비롯하여 모든 不正·不條理 척결에 앞장설것을 다짐하고 이 運動을 全國會員의 当面重要課로 設定 全面的으로 強力히 展開할것을 決議했다.

本部任職員 傘下11個支部의 總務幹事·監事·事務局長 및 全國 50余 分所長 全員등 75名이 參席한 이날 會議은 同日 下午 1時 本協會 一層 展示場에서 開會되어 長長 4時間余에 걸친 熱연 霧圍氣속에서 進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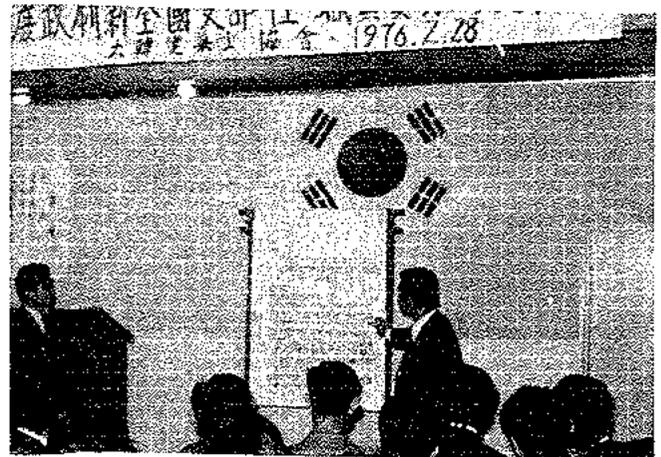
이날會議에서 本協會 李圭福會長은 庶政刷新關係官會議에서 示達된 金載圭建設部長官의 指示事項을 상세히 說明 傳達하는 同時 別項과 같은 會長指示事項을 직접 示達하고 全國會員의 積極인 參與를 促求 했다. 한편 이날 會議에 參席한 建設部建築課 金章振 行政係長은 庶政刷新의 意義와 目的 그리고 政府의 意圖와 方針을 소상하게 說明하는 同時 建築士業務에 關聯된 庶政刷新 業務推進의 事例를 列挙, 効果인 推進과 所望스러운 成果로 期必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金事務官의 講演要旨는 別項과 같다.

또한 이날 會議에서 朴來運本協會 監事는 庶政刷新 實踐計劃과 庶政刷新業務 推進의 一環으로 實施되는 各支部에 對한 本部監查方針을 상세히 說明하고 各支部에서는 이에對한 萬端의 準備를 갖추도록 指示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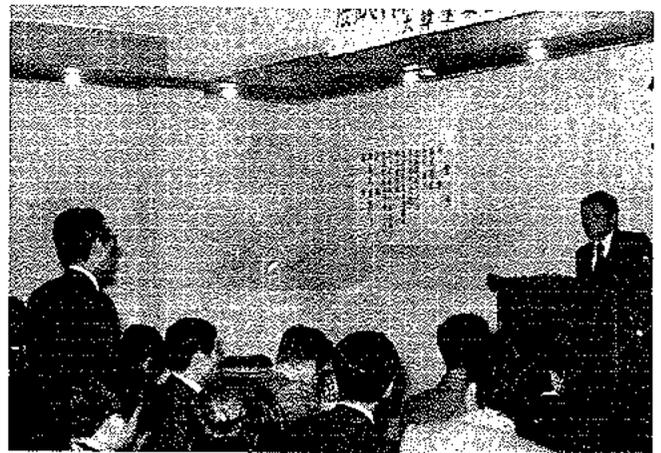
以上과 같은 指示 및 講演이 있은후 이날 會議에서는 別項과 같은 3個項의 決議文을 採択하고 (朴成圭 總務理事郎說) 下午 5時半 閉會했다.

決議文

1. 우리는 政府의 庶政刷新施策에 呼應하여 모든 不正, 不條理 척결에 앞장선다.
2. 우리는 庶政刷新에 關한 建設部長官 및 會長의 指示事項을 徹底히 遵守履行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最善을 다한다.
3. 우리는 우리의 業務와 關聯된 周邊의 淨化運動을 自律的으로 果敢히 展開한다.



차-트를 直接說明하며 強力한 指針을 示達하는 本會 會長



參席任職員의 質疑를 받는 모습.



○本協會 全國支部 任職員 庶政刷新 會議에서 行한 建設部 建築課 金章振 事務官의 講演要旨는 다음과 같다.

오늘 貴協會의 要請에 依하여 未淺한 계가 여러분 앞에 庶政刷新이라는 題目으로 講演하게 된것을 慍懼스럽게 生覺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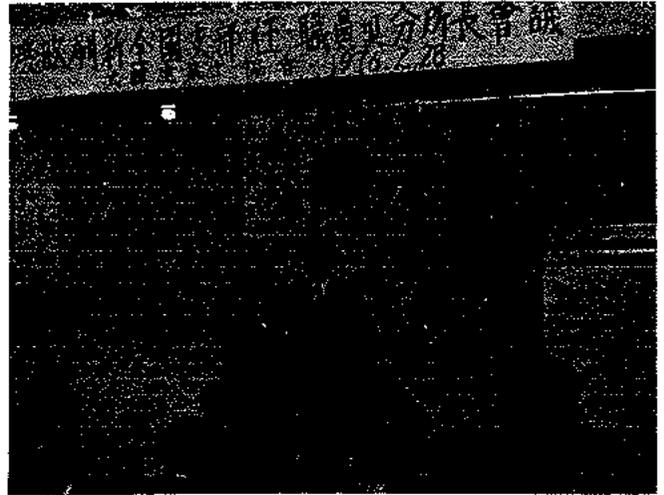
여러분께서도 各種 指示公文과 메스콤을 通하여 周知하고 있을것으로 推料되니만 政府에서는 庶政刷新을 國家安保次元에서 推進하고 있으며 不條理 要素를 剔決하여 維新理念의 具現과 國民總和를 이룩하고 明朗한 社會를 形成하는데 根本的인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維新理念에 對한 概念을 말씀드리면 10月 維新은 對內外的인 周邊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우리 民族의 活路를 우리의 自主的인 힘으로 開拓하고 国力 培養과 組織化 하므로서 民族繁榮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成就할수있는 民主制度를 確立하기 爲하여 그 目的이 있으며 아울러 民族의 主体性을 確立하여 祖國近代化를 通한 国力을 培養하고 組織化하여 祖國의 平和的統一의 基盤을 굳건히하여 民族中興을 成就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周邊情勢를 살펴보면 北傀 共產集團의 南侵野慾을 止버리지 못하고 虎視眈眈 南侵 機會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北傀 共產集團의 威脅을 우리의 힘으로 粉碎하고 民族의 繁榮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기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国力을 培養하고 總力安保態勢를 鞏固히하여 北傀의 侵略企圖를 봉쇄하고 우리 大韓民國의 正統性과 우리 體制의 優越性을 國家發展을 通하여 實証하므로서 北韓同胞들에게까지 祖國像을 깨우쳐 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職業과 身分의 如何를 不問하고 모두 維新理念을 우리의 信念으로 삼아 이를 生活化하여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周邊의 一角에서는 아직도 維新理念을 生活化하지 못하고 前近代的인 狹은 思考方式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갖가지 社會不條理를 助長하고 國民總和를 깨뜨리는 例가 없지 않는것입니다.

10月 維新 3周年을 맞는 오늘날의 周邊情勢는 10月 維新을 不可避하게 했던 當時의 周邊情勢는 조금도 好轉되지 않고 더욱 激動과 試練을 안겨주고 있는 實情입니다. 우리는 이런때 일수록 더욱 現實을 直視해서 우리 周邊에서 非能率과 不條理를 除去하고 扶相助하는 總和團結의 氣風을 造成하여 總力安保態勢를 굳게 다져 나가는데 모두 앞장서 나가야 할것입니다.



政府關係官으로 參席 政府施策을 說明하는 建設部 김 장진 행정관

둘째 庶政刷新의 概念에 對하여 말씀드리면 國家에서 推進하는 庶政刷新은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10月 維新理念에 立脚하여 一切의 不正과 부패 그리고 非違를 根絶하므로서 새로운 國家觀을 定立하여 嶄新한 社會氣風을 造成하여 不條理가 없는 明朗한 社會를 이룩하자는데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國民總和와 國家安保와 一致된다는 點을 國民各者는 銘心해야 할것입니다. 아무리 經濟成長이 이룩된다 할지라도 國民總和없이 健全한 國家安保를 期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以上 말씀드린 바와 같이 汎國民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庶政刷新은 國家의 安保次元에서 果敢하게 不條理를 剔決하여 不條理가 없는 明朗한 社會風潮를 造成하므로서 國民總體制를 더욱 鞏固히 하여 國家安保態勢에 너 나 없이 率先垂範하여 協助하여야 할것입니다.

여러분!! 建築界에 從事하시는 建築士여러분께서는 앞서 言及한 維新理念을 生活信條로하여 不條理없는 明朗한 社會氣風을 造成하는데 이바지 해주실것을 當부하는바이며 建築士여러분은 各者 스스로 創意力을 發揮하고 誠實과 清廉 그리고 國家民族을 爲하여 奉仕한다는 生活信條로서 여러분의 周邊부터 淨化하므로서 國民으로부터 信賴받은 建築士像을 定立하여 嶄新한 建築界의 風土를 造成하여 이를 汎國民的運動으로 拡散시키는데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大多數의 建築士 여러분은 國家에서 安保의 次元에서 推進中에 있는 庶政刷新의 一環인 不條理剔決에 積極呼應하여 所期의 成果를 贊揚하고 있는데 對하여는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나 一部 建築士께서는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고 前近代的인 思考方式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自身의 利益追求만을 爲하여 不條理를 恣行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으로 生覺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建築士여러분께서는 서로 一心團結하여 舉國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庶政刷新에 한 사람이라도 離脫者가 없도록 하여 建築界의 名譽를 드높이는데 스스로가 積極協助하여야 할것입니다.

저가 建築行政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으면서 建築界의 動態를 檢討分析한 結果 一部 建築士가 自己의 私利

私慾만을 充足한다면 된다는 그릇된 思考方式에서 不條理를 恣行하므로서 建築界 全般에 걸친 名譽와 威信을 損傷시키는 事例가 있는바 이를 몇가지 例示한다면 첫째, 建築士 相互間의 利權을 둘러싼은 過當競爭으로 不實設計를 하므로서 민원의 對象이 되고있고

둘째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違法建築物을 默認하는 事例가 있으며

셋째 工事監理의 委託을 받고 建築士 自身은 ~ 工事現場에 一回도 臨하지 않고 補助員으로 하여금 監理케 하므로서 違法建築物을 남겨한 事實

넷째, 建築士事務所를 開設登錄하여 놓고 建築士 自身은 他職에 從事하고 建築士事務所의 業務를 補助員에게 全担케 하므로서 違法建築物을 남겨하는 事例

다섯째, 免許를 他人에게 貸與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建築士의 業務를 行使하게 하는 事例

여섯째, 建築許可를 둘러싼 許可擔當 公務員과의 金品受収 및 饗飯提供 등의 事例

以上과 같은 不條理 事例가 完全 발본쇄신되지 못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는바 이와같은 不條理는 하루속히 是正되어야 하겠읍니다.

今般政府에서는 建築許可를 둘러싼 不條理를 果敢히 剔決하기 爲하여 住宅建築許可節次改善策을 마련하여 1976. 1. 1 부터 4個都市에 示範적으로 實施한 結果 建築士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意識의 發露로서 所期의 成果를 깊이 贊揚하는바이며 1976. 7. 1 부터 全國적으로 擴大實施하는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積極協助가 切實히 要請되는 바입니다.

協會幹部님에게 付託드리고 싶은것은 非違 建築士를 認知 하였음에도 같은 會員이라는 人間關係로 因하여, 이를 默認하거나 比護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一罰百戒主義로 嚴重問責함과 同時 自体肅正을 斷行하여 不條理 剔決을 爲해 果敢하게 庶政刷新을 推進해 주시기바라는 바입니다.

庶政刷新의 實踐計劃에 對하여 말씀드리면

1. 周辺淨化運動展開

가. 建築士界의 社會淨化

- 1) 各級의 長(協會長 및 支部長)부터 精神姿勢確立할 것.
- 2) 建築士 全員에 對하여 維新理念和 遵法精神을 鼓吹시킬 것.
- 3) 建築士가 著作한 建築物은 後孫에게 물려줄 遺産임을 自覺하여 國家民族에 對한 奉仕者로서의 姿勢를 確立할 것.
- 4) 信債必罰主義을 徹底히 履行할 것.
- 5) 奢侈, 浪費 및 頹敗風潮의 追放으로 健全한 生活態度를 振作시킬 것.
- 6) 教育訓練을 通하여 庶政刷新을 生活化하도록 할 것.
- 7) 建築界의 改善事項에 對하여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實施하여 事後管理를 徹底히 할 것.

나. 庶政刷新의 專担特別明班을 編成하여 그活動을 強化하고 不正 非違發生을 強力히 根絶토록 自体督察班을 더욱 強化하여 摘發된 非違者에게는 一罰百戒主義로 措置할 것.

라. 連帶責任制 實施의 強化

會員의 非違(免許取消 懲戒) 支部長(解任警告)

마. 自体事正의 果敢한 斷行

사. 一般監查機能을 轉換하여 制度改善의 效果測定에 重點적으로 實施할 것.

2. 精神姿勢의 確立

가. 새마을 知育을 繼續實施하되 이에 積極參與하고 協會에서는 庶政刷新에 對한 教科目을 新設하여 維新理念和 庶政刷新의 참뜻을 全會員에게 鼓吹시킬 것 을 바람.

나. 遵法精神을 昂揚시켜 모든 業務에 公明 正大하게 處理하는 한便 國家民族에 對한 奉仕者임을 自覺하고 建築士로서의 精神姿勢 確立을 期하여 주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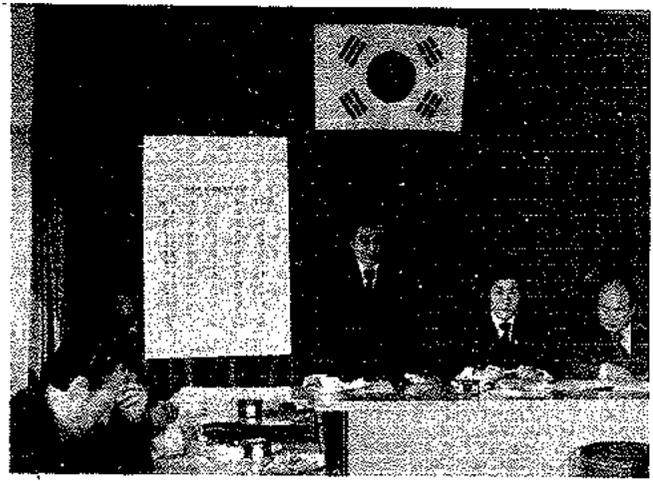
끝으로 建築士여러분에게 付託드리고 싶은것은 會員여러분은 創意力을 最大로 發揮하여 優秀한 建築物의 創作에 協力하여 주시기 바라며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誠實 清廉, 親切과 奉仕的 姿勢로서 業務를 遂行하여 주시기바라며 建築士 自身은 勿論 家族에 이르기까지 奢侈 등의 常習을 一掃하고 不遇이웃돕기 등 模範家族이 되도록 분수에 넘지 않는 勤儉한 生活氣風을 振作시켜 明朗한 社會風土를 이룩하는데 積極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第 2 回各市道支部長會議光景



第 1 回企副委員会会議光景



第7080部隊 慰問

慰問冊字傳達後 談笑하는 光景들



慰問冊字冊 部隊參謀長에게 傳達하는 本會 金鎮成 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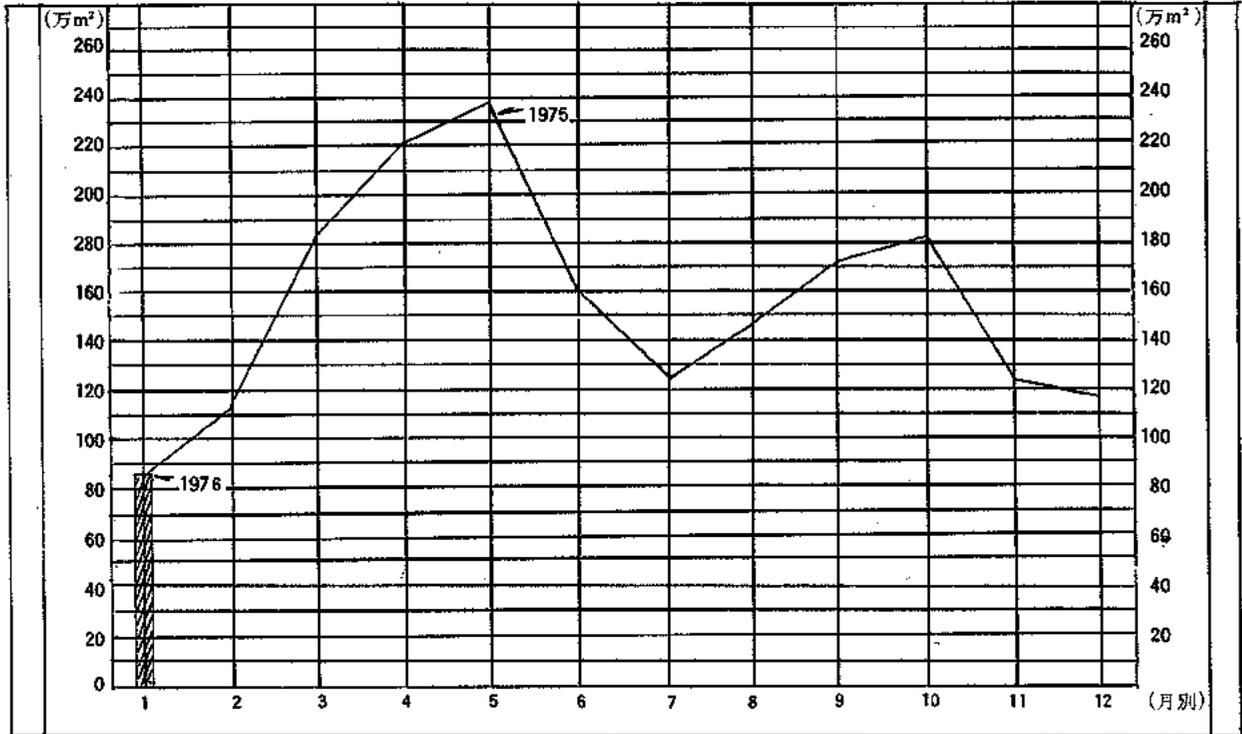
慰問記念撮影



全国建築許可統計

(1976年1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